

북한주민 통일외식
2020



목 차

제1장 서장

1. 서론	14
2. 조사 배경 및 조사 목적	16
3. 설문내용 및 조사방법	18
4. 인구학적 배경변수의 특징	23
5. 조사의 의의와 시사점	38

제2장 통일인식

1. 서론	42
2.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44
3. 통일에 대한 기대감	51
4. 사회 경제적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	58
5. 통일정책에 대한 인식	64
6. 소결	69

제3장 대남인식

1. 서론	74
2.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77
3.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인식	80
4. 북한주민의 북핵 및 대남 위협 인식	87
5. 남한의 대북지원 평가	90
6. 소결	96

제4장 북한실태인식

1. 서론	100
2. 북한주민의 정치의식	102
3. 북한주민의 경제의식	118
4. 북한주민의 사회통제에 대한 인식	126
5. 소결	136

목 차

제5장 주변국 관계인식

1. 서론	142
2. 한국과 중국으로 양분되는 북한 주민의 마음	144
3. 북한 위협인식의 재귀	151
4.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의 역할에 관한 북한 주민의 마음	157
5. 소결	160

제6장 남한적응실태

1. 서론	166
2. 친근감과 포용성: 정서적 반응과 현실적 경험 사이	167
3. 남한생활에의 만족도와 후회도	171
4. 탈북결심 요인과 남한입국후 국민정체성	174
5. 적응과정에서의 도움과 어려움: 정부정책과 민간단체 지원	177
6. 소결	183

제7장 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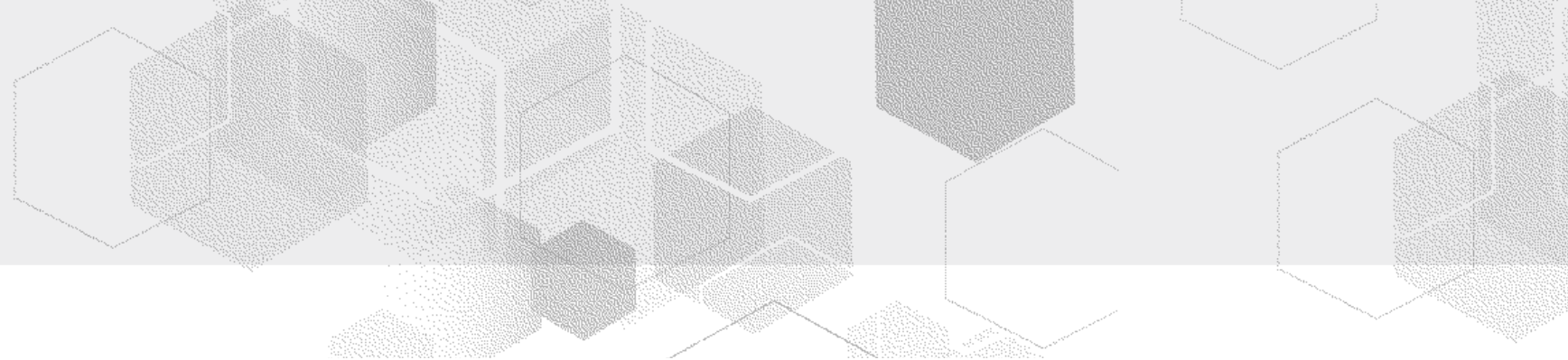
결장	188
----	-----

부록

집계표 2019	196
설문지 2019	280

표목차

〈표 1-1〉 조사방법, 표본, 조사내용	20	〈표 4-4〉 연령별 김정은 지지도(2011-2015)	109
〈표 1-2〉 통일부의 탈북자 통계	22	〈표 4-5〉 직업별 김정은 지지도(2011-2020)	109
〈표 1-3〉 북한주민 통일인식 조사의 표본 수 및 남녀 성비	22	〈표 4-6〉 연령별 핵무기 보유 견해(2011-2020)	116
〈표 1-4〉 성별·연령별 분포	23	〈표 5-1〉 가장 친밀하게 느끼는 주변국	144
〈표 1-5〉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시간	24	〈표 5-2〉 성별 간 중국과 한국에 대한 친밀감	146
〈표 1-6〉 탈북 전 최종 거주지	26	〈표 5-3〉 학력별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1(연도별)	148
〈표 1-7〉 북한에서의 교육수준별 분포	27	〈표 5-4〉 학력별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2(2011-2020)	149
〈표 1-8〉 북한에서의 직업별 분포	28	〈표 5-5〉 당원 여부에 따른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	151
〈표 1-9〉 북한에서의 당원 여부 분포	29	〈표 5-6〉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152
〈표 1-10〉 북한에서의 공식 월수입의 분포	30	〈표 5-7〉 성별 간 미국과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	154
〈표 1-11〉 북한에서의 비공식 월수입의 분포	32	〈표 5-8〉 학력별 주변국에 대한 위협 인식	155
〈표 1-12〉 장사활동 경험 유무	33	〈표 5-9〉 당원 여부에 따른 주변국에 대한 위협인식	156
〈표 1-13〉 탈북 후 북한의 소식에 대한 접근성	35	〈표 5-10〉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 희망 정도	157
〈표 1-14〉 탈북 전 남한 친척의 유무	36	〈표 5-11〉 통일을 위한 협조 필요성	159
〈표 1-15〉 혼인 상태에 따른 분포	37	〈표 5-12〉 북한의 발전을 위하여 우호 관계가 필요한 국가	160
〈표 1-16〉 자녀의 수 분포	38	〈표 6-1〉 남한주민 친근감과 포용성 교차표(2019)	169
〈표 4-1〉 연령별 주체사상 자부심(2011-2020)	105	〈표 6-2〉 남한주민 친근감과 포용성 교차표(2020)	169
〈표 4-2〉 연령별 주체사상 자부심(2011-2015)	106	〈표 6-3〉 남한생활 만족도와 후회도 교차표	173
〈표 4-3〉 연령별 김정은 지지도(2011-2020)	108		



그림목차

〈그림 2-1〉 통일의 필요성	45	〈그림 3-2〉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	80
〈그림 2-2〉 통일 의지	46	〈그림 3-3〉 남한문화에 대한 경험도	81
〈그림 2-3〉 통일 이유	48	〈그림 3-4〉 남한문화에 대한 친숙도	82
〈그림 2-4〉 통일 내용	49	〈그림 3-5〉 남한문화의 유통경로	84
〈그림 2-5〉 통일 집단 이익	51	〈그림 3-6〉 남한문화 접촉 후 남한에 대한 호감도 변화	85
〈그림 2-6〉 통일 개인 이익	52	〈그림 3-7〉 남북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	86
〈그림 2-7〉 통일 거주 지역	54	〈그림 3-8〉 남한의 대북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88
〈그림 2-8〉 통일 방식	55	〈그림 3-9〉 북한주민의 대남 복핵 위협 인식	89
〈그림 2-9〉 통일 감정	56	〈그림 3-10〉 대북지원 인식	91
〈그림 2-10〉 통일 시기	58	〈그림 3-11〉 대북지원 규모 평가	92
〈그림 2-11〉 빈부 격차(2020)	59	〈그림 3-12〉 남한의 대북지원 평가	93
〈그림 2-12〉 실업 문제(2020)	61	〈그림 3-13〉 남한의 대북 경제 투자에 대한 평가	95
〈그림 2-13〉 지역 갈등(2020)	62	〈그림 3-14〉 개성공단에 대한 평가	96
〈그림 2-14〉 이념 갈등(2020)	63	〈그림 4-1〉 주체사상 자부심	103
〈그림 2-15〉 쌀 · 비료 ·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65	〈그림 4-2〉 김정은 지지도	107
〈그림 2-16〉 학술인 · 예술인 · 체육인 · 종교인 교류 등 사회문화교류	66	〈그림 4-3〉 김정은 직무 평가	111
〈그림 2-17〉 금강산 · 개성관광 · 개성공단 사업 등 경제협력	67	〈그림 4-4〉 정부 비판행위	112
〈그림 2-18〉 정기적인 남북한 회담	68	〈그림 4-5〉 핵무기 보유 평가	115
〈그림 3-1〉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78	〈그림 4-6〉 정권유지 예상 기간	117

그림목차

〈그림 4-7〉 기대 소득 수준	119
〈그림 4-8〉 직장 내 생산규율	121
〈그림 4-9〉 경제 악화 원인	123
〈그림 4-10〉 경제체제 선호도	125
〈그림 4-11〉 사회통제 유지	126
〈그림 4-12〉 생활총화 출석률	128
〈그림 4-13〉 타 지역 방문	130
〈그림 4-14〉 외부소식 접촉 경로	131
〈그림 4-15〉 언론에 대한 신뢰도	133
〈그림 4-16〉 집단과 개인 우선순위	134
〈그림 6-1〉 남한주민 친근감	168
〈그림 6-2〉 남한주민 포용성	168
〈그림 6-3〉 남한생활 만족도	172
〈그림 6-4〉 탈북결심 요인	174
〈그림 6-5〉 국민 정체성	176
〈그림 6-6〉 지원정책 만족도	178
〈그림 6-7〉 정부지원 제외, 적응에 도움을 준 요인(2020)	180
〈그림 6-8〉 적응에 어려움을 준 요인(2020)	182



제1장 서장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1장 서장

1. 서론

2020년은 코로나 19 감염병의 확산으로 한국정부의 통일정책 전개나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들이 실현되기 어려운 한해였다. 2018년까지 급격하게 개선되던 남북관계는 2019년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 2020년에는 단절되고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물론 2019년에도 북미간 하노이 정상회담이 열리고,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려는 노력들이 지속되었지만, 2018년의 급격한 변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비하면 긍정적 변화의 흐름이 느려진 한해 였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2019년에 남북한 관계 개선이 진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으로 2020년 '정면 돌파' 전략을 내걸고 북한식 발전과 번영의 길을 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올해 북한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지 못하며 지속된 제재와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한 국경 봉쇄와 이동 통제, 홍수와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는 3중고를 겪었다.

이러한 급격한 남북관계 변화와 지정학적 정세의 변동은 북한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북한 주민들은 통일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주변국 정세의 변화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 무엇보다 이러한 변

화속에서 북한 체제 내부의 현황과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통일에 대한 남한 국민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올 2020년까지 매년 시기에 따라 변화해온 국민들의 통일외식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동 연구원에서는 2008년부터 북한주민의 통일외식을 비슷한 설문문항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

물론 분단이 지속되고 있고, 상호 교류가 제한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직접 북한에 들어가 주민들을 설문조사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제약을 간접적으로나마 극복하고자 동 연구원에서는 가장 최근에 북한을 넘어 남한에 들어온 탈북민들에게 그들이 “북한에 살고 있을 때” 통일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를 묻고 있다. 따라서 본 조사의 응답시점은 조사시점보다 최소 1년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 올해 조사의 경우 그들의 응답은 2020년이 아닌 2019년의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은 결국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체제 해제, 비핵화의 단계와 평화 프로세스의 로드맵에 대한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다시 상호 불신과 긴장이 강화되었던 시기였다. 하지만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병행되어 다행히 큰 군사적 갈등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통일외식조사에는 이런 변화의 흐름들이 반영되어 있다. 지난 12년간의 조사결과를 볼 때 2018년의 변화가 이전과 어떻게 다르고, 2019년의 상황은 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2. 조사 배경 및 조사 목적

국내외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되어 왔고, 관련 조사의 양적 데이터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남북하나재단이 주도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 조사를 전수조사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수많은 조사들과 연구들은 대체로 남한사회 안에서 그들의 삶과 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에 북한에 거주하고 있었던 시기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포괄적인 의식을 파악하려거나 통일에 초점을 두고 이뤄진 조사는 부재하였다. 통일평화연구원은 통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논의에서 남북 간의 사회통합을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며, 사회통합을 논의하고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북한주민의 통일 의식을 파악해오고 있다.

남북한주민이 통일과 통합의 파트너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뤄가길 원한다면 남한주민의 통일외식조사와 더불어 북한주민의 통일외식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들이 필요하다. 북한주민의 통일외식은 어떠한 남한주민의 통일외식과의 차이점 및 공통점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면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원의 『북한주민 통일외식』 조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우선, 이 조사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주민의 통일, 북한실태, 남한사회, 남한의 대북정책, 주변국 관계, 남한사회 적응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외식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적·정책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1차적 목적을 둔다. 둘째, 이 조사의 결과는 통일평화연구원이 2007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는 『남북통합지수』의 외식 부문 통합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셋째, 이 조사의 결과는 남한주민의 통일외식조사의 결과와 비교 분석됨으로써 통일과정 및 통일 후 사회통합의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활용된다.

북한주민 통일외식조사는 북한지역의 현장조사 형태로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방법론상 여러 가지의 한계점들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한계점은 표본의 대표성 문제이다. 이미 남한사회에서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의 결과가 과연 실제 북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외식을 대변할 수 있는가라는 지적이 있다. 이 지적은 매우 합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주민만의 통일외식을 가지고 남북한 모두의 통일을 논하는 것 또한 ‘절름발이’식 접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어진 제약 속에서 가능한 방법론적 엄밀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남북한 주민 모두의 통일외식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축적하고, 그에 기반하여 다양한 학술적·정책적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3. 설문내용 및 조사방법

북한주민의 통일의식조사의 설문 내용은 크게 6개의 범주로 분류된다. 첫 번째 설문 범주는 통일인식이다. 통일인식에는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염원도, 통일의 이유, 통일 가능시기 예상, 통일의 집합적·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 통일 이후 주요 사회문제의 개선에 대한 기대, 대북정책의 통일 기여도, 통일 방식,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유대감, 통일 후 거주지역 등의 설문 문항들이 포함된다. 2020년도에는 통일에 대한 감정을 조사하기 위해 화, 불안, 슬픔, 시큰둥, 희망적, 기쁨을 묻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두 번째 범주는 대남인식이다. 여기에는 남북한 관계인식,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 인지 수준, 남한문화의 접촉 여부, 남한문화 접촉 후 호감도 변화, 남북한 사회의 이질성,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남한의 핵무기 위협 수준, 남한의 대북지원 인지 여부, 남한의 대북지원 효과성,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 남한의 대북 경제투자 효과성 등의 설문 문항들이 포함된다. 2020년도에는 남한에 대한 지식을 묻는 질문에 촛불집회, 1997 IMF 외환위기, K-POP이 보기로 추가되었다.

세 번째 범주는 북한실태 변화이다. 이 범주에는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지지도, 공안기관에 의한 사회통제 수준, 정치적 비판 행위, 북한체제의 지속가능성, 북한 경제위기의 원인, 장사인구의 규모, 직장 내 생산규율의 실효성, 생활총화, 경제체제의 선호도, 거주 이동의 자유,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 생활비 등의 문항들이 포함된다. 2018년도에는 인권에 대한 항목들이 일부 추가되었다. 2020년도에는 한미연합훈련에 의한 불안감을 묻는 신규문항이 추가되었다.

네 번째 범주는 주변국에 대한 인식으로, 2012년 설문조사부터 포함되었다. 여기에는 주변국의 친밀감, 주변국에 대한 위협감, 주변국의 통일 희망도,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협조 필요성이 포함된다.

다섯 번째 범주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로서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포용성,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생활 만족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남한 거주시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 적응에 도움을 받은 경로, 남한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을 묻는 문항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 범주는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대한 설문이다.

이 설문조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현재의 의식이나 태도를 파악하기보다 그들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 자신 혹은 다른 북한주민들의 의식이나 태도가 어땠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¹ 따라서 질문의 형식은 다섯 번째 설문 범주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실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설문 문항에서는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이 제시되었다.

1] 2020년 설문지는 책 뒤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표 1-1〉 조사방법, 표본, 조사내용

(단위: 명)

조사연도	2008	2009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조사기간	7월	10월	4/15-6/4	4/6-6/2	6/13-7/16	5/20-7/7	7/1-7/24	6/10-8/8	6/8-8/6	7/20-8/31	8/9-9/6	7/12-8/20
입국연도	응답자	응답자										
2000년 이전	54	78										
2001 - 2004	87	94										
2005 - 2008	142	-										
2005 - 2009	-	175										
무응답	13	23										
탈북연도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2010			104	-	-	-	-	-	-	-	-	-
2011			1	127	-	-	-	-	-	-	-	-
2012			-	-	133	-	-	-	-	-	-	-
2013			-	-	-	149	-	-	-	-	-	-
2014			-	-	-	-	146	-	-	-	-	-
2015		-	-	-	-	-	-	135	-	-	-	-
2016		-	-	-	-	-	-	3	-	-	-	-
2017		-	-	-	-	-	-	-	132	85	-	-
2018		-	-	-	-	-	-	-	-	2	114	-
2019		-	-	-	-	-	-	-	-	-	2	109
2020		-	-	-	-	-	-	-	-	-	-	-
총 계	296	370	105	127	133	149	146	138	132	87	116	109
조사방법	하나원 방문조사		면대면 설문조사									
조사내용												
통일의식	Y	Y	Y	Y	Y	Y	Y	Y	Y	Y	Y	Y
대남의식	Y	Y	Y	Y	Y	Y	Y	Y	Y	Y	Y	Y
북한실태 변화	Y	Y	Y	Y	Y	Y	Y	Y	Y	Y	Y	Y

조사연도	2008	2009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남한적응 실태	-	-	Y	Y	Y	Y	Y	Y	Y	Y	Y	Y
주변국 인식	-	-	-	Y	Y	Y	Y	Y	Y	Y	Y	Y

〈표1-1〉에 나타나듯이 연도별 표본 구성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2008년과 2009년 조사의 경우에는 표집의 기준이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시기에 맞춰졌기 때문에 표본의 탈북시기가 제각각이다. 이와 같은 표집방법은 표본의 접근성 측면에서는 용이하지만 탈북시기가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특정 시기의 실태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2011년 조사부터는 표본의 탈북시기를 동일하게 맞춰 조사가 실행되는 직전 해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만을 표집하였다. 이 경우 연도별 실태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 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모집단의 규모가 크게 줄면서 표본의 접근성이 매우 낮아져 표집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발생했다.

2011년 조사부터 표집방법은 1차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지원을 돕고 있는 전국의 하나센터와 탈북자단체 및 탈북자지원 민간단체, 그리고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모집하였고, 1차로 모집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눈덩이표집(snowballing) 방법으로 2차 표집이 이뤄졌다. 이 조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준수하며, 조사대상자들에게 조사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한 후 실시되었다. 2011년부터 면대면(face-to-face) 방식으로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연구 참여자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일정에 따라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조사가 이뤄지기도 하고, 일부는 조사 연구원

이 연구 참여자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방문하여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표 1-2〉 통일부의 탈북자 통계

(단위: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남	795	404	369	305	251	302	188	168	202	72
여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969	845	157
합계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1,137	1,047	229
여성 비율(%)	71	73	76	78	80	79	83	85	81	68.6

자료: 통일부 이탈주민정책, 입국현황

〈표 1-3〉 북한주민 통일의식 조사의 표본 수 및 남녀 성비

(단위: 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59 (44.4)	74 (55.6)	50 (33.6)	99 (66.4)	57 (39.0)	89 (61.0)	53 (38.4)	85 (61.6)	70 (53.0)	62 (47.0)	38 (43.7)	49 (56.3)	41 (35.3)	75 (64.7)	37 (34.2)	72 (65.7)

자료: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

올해 2020년 조사에서는 표본수가 지난해 조사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 표본의 수는 2014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 〈표 1-2〉의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본 조사의 전체 모집단인 탈북자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2020년에는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교류 협력 뿐 아니라 사람들의 이동 자체가 큰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본 조사의 표본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관 차원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인구학적 배경변수의 특징

(1) 성별·연령별 분포

〈표1-4〉는 8년 조사 대상자들의 성별, 연령별 분포를 보여준다. 2020년 조사에서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34.2%, 여성 65.7%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남성의 비율은 약 1.1% 감소했고, 여성의 비율은 약 1.0% 증가하여 지난해에 이어 여성 비율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20대 30.5%, 30대 16.6%, 40대 12.9%, 50대 27.7%, 60대 이상 6.4%로 집계되었다.

〈표 1-4〉 성별·연령별 분포

(단위: 명(%))

연령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10대	1 (33.3)	2 (66.7)	2 (66.7)	1 (33.3)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3 (7.9)	1 (2.0)	0 (0.0)	3 (100.0)	2 (50.0)	2 (50.0)
20대	24 (52.2)	22 (47.8)	15 (33.3)	30 (66.7)	16 (36.4)	28 (63.6)	14 (26.9)	38 (73.1)	24 (51.1)	23 (48.9)	14 (36.8)	19 (38.8)	20 (54.1)	17 (45.9)	14 (38.8)	22 (61.2)
30대	17 (58.6)	12 (41.4)	13 (46.4)	15 (53.6)	20 (44.4)	25 (55.6)	16 (50.0)	16 (50.0)	24 (61.5)	15 (38.5)	11 (28.9)	10 (20.4)	9 (34.6)	17 (65.4)	6 (33.3)	12 (66.7)
40대	11 (28.9)	27 (71.1)	12 (30.8)	27 (69.2)	13 (35.1)	24 (64.9)	15 (44.1)	19 (55.9)	16 (59.3)	11 (40.7)	5 (13.2)	5 (10.2)	7 (29.2)	17 (70.8)	4 (28.6)	10 (71.4)
50대	7 (43.8)	9 (56.3)	6 (31.6)	13 (68.4)	6 (37.5)	10 (62.5)	7 (43.8)	9 (56.3)	5 (29.4)	12 (70.6)	5 (13.2)	14 (28.6)	5 (25.0)	15 (75.0)	8 (26.7)	22 (73.3)
60대 이상	0 (0.0)	4 (100.0)	2 (13.3)	13 (86.7)	2 (66.7)	1 (33.3)	1 (25.0)	3 (75.0)	1 (50.0)	1 (50.0)	0 (0.0)	0 (0.0)	0 (0.0)	6 (100.0)	3 (42.9)	4 (57.1)
합계	59 (44.4)	74 (55.6)	50 (33.6)	99 (66.4)	57 (39.0)	89 (61.0)	53 (38.4)	85 (61.6)	70 (53.0)	62 (47.0)	38 (43.7)	49 (56.3)	41 (35.3)	75 (64.7)	37 (33.9)	72 (66.1)

(2) 탈북 후 입국까지의 소요기간 및 재북 거주지

응답자들의 탈북연도와 입국연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1-1>에 나타듯 2011년 조사의 전체 응답자 105명 중 104명은 2010년에 탈북했고, 1명은 2011년에 탈북했다. 이들 중 89명이 2010년에 입국했으며, 14명이 2011년에 입국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조사년도 직전해에 탈북한 사람들이었다. 올해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109명 모두가 2019년도에 탈북하였고 이 중 92명이 2019년도, 그리고 17명이 2020년에 남한에 입국하였다.

각 조사의 응답자들이 탈북하여 입국하기까지 걸린 기간을 살펴보면, <표1-5>에서 알 수 있듯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였는데, 2020년은 지난 기간 평균과 거의 유사한 3.01개월로 나타났다. 특히, 탈북과 입국까지의 소요 기간이 2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2015년의 69.8%에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2020년에는 53.2%가 되었다. 이것은 상당수의 탈북자들이 제3국에서 장기간 체류하지 않고 탈북하여 바로 남한으로 입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패턴을 반영하여 이들을 ‘직행탈북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표 1-5>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시간

(단위: %)

소요기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개월 미만	0	0	3.4	0	1.4	1.5	2.3	0.9	2.8
1개월	1.6	0	26.8	30.8	21	27.3	27.6	22.4	14.7
2개월	18.1	29.3	48.3	39	22.5	32.6	21.8	31	35.8
3개월	48.8	47.4	8.1	14.4	15.2	12.1	10.3	11.2	12.8

4개월	14.2	8.3	2	6.8	14.5	8.3	20.7	18.1	18.3
5개월	6.3	5.3	4.7	2.1	15.2	8.3	5.7	8.6	3.7
6개월	4.7	1.5	2.7	1.4	2.9	2.3	4.6	5.2	6.4
7개월	0.8	3.8	2	0.7	1.4	0.8	1.1	0.9	2.8
8개월	2.4	1.5	1.3	0	0.7	3.8	4.6	0.9	1.8
9개월	0.8	0.8	0.7	1.4	1.4	2.3	0	-	0
10개월	1.6	2.3	0	3.4	0.7	0	0	-	0
11개월	0.8	0	0	0	1.4	0.8	0	-	0
13개월	-	-	-	-	-	-	1.1	-	0
14개월	-	-	-	-	-	-	-	0.9	0.9
무응답	0	0	0	0	1.4	0	0	0	0
평균(개월)	3.57	3.37	2.26	2.49	3.33	2.82	3.06	2.9	3.01
합계(N)	127	133	149	146	138	132	87	116	109

응답자들의 탈북하기 전 최종 거주지 분포는 지역적 편중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1-6>에 나타나듯, 함경북도와 양강도 출신의 응답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각 조사에서 두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81.9%, 2013년 82.5%, 2014년 83.9%, 2015년 84.9%, 2016년 87.7%, 2017년 88.6%, 2018년 82.8%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는 두 지역 비중이 더욱 상승하여 90.5%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0년은 84.4%로 다소 줄어든 양상을 보인다.² 이러한 응답자의 지역적 편중현상은 탈북 현상이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² 통일부의 통계에 의하면 2020년 12월 말 입국자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거주지 중에서 함경북도와 양강도의 비중은 각각 58.8%, 17.8%를 차지한다.

〈표 1-6〉 탈북 전 최종 거주지

(단위: 명(%))

지역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양	0 (0.0)	1 (0.8)	3 (2.0)	3 (2.1)	5 (3.6)	2 (1.5)	2 (2.3)	0 (0.0)	1 (0.9)
개성	0 (0.0)	0 (0.0)	0 (0.0)	0 (0.0)	0 (0.0)	1 (0.8)	1 (1.1)	1 (0.9)	0 (0.0)
남포	1 (0.8)	0 (0.0)	2 (1.3)	1 (0.7)	2 (1.4)	1 (0.8)	0 (0.0)	0 (0.0)	0 (0.0)
평안남도	0 (0.0)	2 (1.5)	4 (2.7)	3 (2.1)	2 (1.4)	0 (0.0)	2 (2.3)	0 (0.0)	2 (1.8)
평안북도	1 (0.8)	6 (4.5)	0 (0.0)	3 (2.1)	1 (0.7)	1 (0.8)	5 (5.7)	0 (0.0)	2 (1.8)
함경남도	14 (11.0)	11 (8.3)	9 (6.0)	5 (3.4)	4 (2.9)	6 (4.5)	4 (4.6)	5 (4.3)	5 (4.6)
함경북도	65 (51.2)	51 (38.6)	53 (35.6)	64 (43.8)	58 (42.0)	33 (25.0)	20 (23.0)	18 (15.5)	15 (13.8)
자강도	0 (0.0)	0 (0.0)	1 (0.7)	0 (0.0)	0 (0.0)	0 (0.0)	0 (0.0)	0 (0.0)	3 (2.8)
양강도	39 (30.7)	58 (43.9)	72 (48.3)	60 (41.1)	63 (45.7)	84 (63.6)	52 (59.8)	87 (75.0)	77 (70.6)
황해남도	3 (2.4)	0 (0.0)	1 (0.7)	1 (0.7)	0 (0.0)	4 (3.0)	1 (1.1)	0 (0.0)	0 (0.0)
황해북도	3 (2.4)	1 (0.8)	2 (1.3)	4 (1.3)	0 (0.0)	0 (0.0)	0 (0.0)	2 (1.7)	3 (2.8)
강원도	1 (0.8)	2 (1.5)	2 (1.3)	2 (1.4)	3 (2.2)	0 (0.0)	0 (0.0)	2 (1.7)	1 (0.9)
무응답	0 (0.0)	1 (0.8)	0 (0.0)	0 (0.0)	0 (0.0)	0 (0.0)	0 (0.0)	1 (0.9)	0 (0.0)
합계(N)	127	133	149	146	138	132	87	116	109

(3) 교육수준·직업 분포

응답자들의 교육수준 분포를 보면, 고급중학교의 학력을 가진 이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각 조사에서 고급중학교 학력의 응답자 비중은 2011년 66.7%이었고, 2016년에는 7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다가 2020년에는 67%로 나타났다. 남한의 전문대학교에 상응하는 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비중은 2011년 32.4%였고, 2015년에 36.3%까지 상승하였으나 2020년에는 25.7%로 나타났다. 통일부 자료에서는 고급중학교와 전문대 이상 재학자가 86.8%로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조금더 높은 학력 분포를 갖고 있다.

〈표 1-7〉 북한에서의 교육수준별 분포

(단위: %)

교육수준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대학교	11.4	10.2	16.5	13.6	19.9	13.0	7.6	5.7	6.9	10.1
전문학교	21.0	18.1	11.3	18.0	16.4	11.6	17.4	13.8	22.4	15.6
고급중학교	66.7	65.4	71.4	66.7	61.0	74.6	72.0	73.6	70.7	67
소학교	1.0	3.2	0.0	1.6	2.1	0.7	2.3	6.9	0.0	1.8
무학	0.0	1.6	0.8	0.6	0.7	0.0	0.8	0.0	0.0	2.8
무응답	-	1.6	-	-	-	-	-	-	-	1.8
합계(N)	105	127	133	147	146	138	132	87	116	109

응답자들의 북한에서의 직업 분포를 보면, 〈표1-8〉에서 보이듯 2017년보다는 응답률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노동자 직업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노동자 비중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1년 27.6%에서 2017년

에는 43.9%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2020년에는 26.6%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 범주는 각 조사에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장사나 주부의 비중이 높다. 2011년 조사에서는 사무원(12.4%)이, 2012년에는 장사(11.1%)와 주부(11.1%)가, 2019년 역시 주부(21.6%)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직업이었다. 장사의 비중은 2014년 4.8%에서 2015년 20.5%로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12.3%), 2017년(9.8%) 다시 하락하여 2018년(0.0%)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2019년에는 8.6%, 올해는 18.3%로 크게 상승하였다. 노동자, 장사, 주부가 응답자들의 대표적인 직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8〉 북한에서의 직업별 분포

(단위: %)

직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노동자	27.6	37.0	31.6	30.6	26.0	22.5	43.9	32.2	26.7	26.6
농민	8.6	8.7	3.8	7.5	4.8	9.4	3.8	11.5	3.4	5.5
사무원	12.4	4.7	9.8	12.2	8.9	10.9	6.1	6.9	8.6	5.5
전문가 (교원, 의사, 기술자 등)	7.6	7.1	8.3	3.4	5.5	7.2	7.6	0.0	1.7	3.7
학생	6.7	6.3	6.0	7.5	4.8	4.3	2.3	13.8	7.8	11.9
군인	5.7	3.9	4.5	4.8	4.8	8.0	5.3	3.4	3.4	4.6
외화별이일군	1.0	2.4	2.3	0.0	4.1	2.9	3.8	0.0	1.7	2.8
장사	10.5	11.1	13.5	4.8	20.5	12.3	9.8	0.0	8.6	18.3
주부	10.5	11.1	16.5	19.1	11.6	13.0	10.6	21.8	21.6	13.8
무직 및 기타	3.8	6.3	3.8	10.2	8.2	9.4	6.8	10.3	16.4	4.6
무응답	5.7	1.6	-	-	0.7	-	-	-	-	0.9
합계(N)	105	127	133	149	146	138	132	87	116	109

(4) 당원 가입 여부

응답자의 당원 여부는 〈표1-9〉에서 보듯이 북한에서 당원이었던 응답자의 비중은 2020년 조사에서 12.8%에 불과하고, 반면에 비당원의 비중은 84.4%를 차지한다. 지난 십여년간의 조사에서 연도별 당원과 비당원의 비중은 큰 변동이 없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4년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을 모두 합한 경우에서 당원들의 직업별 비중을 보면, 노동자>사무원>군인 순서로 비중이 많이 나타났으나, 2015년의 경우에는 노동자>사무원>전문가 순서로 비중이 높게 나왔다. 2019년에는 노동자와 주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20년에는 14명의 당원 중 노동자가 6명으로 비중이 가장 컸고, 사무원이 3명, 군인 2명 순서로 비중이 높았다.

〈표 1-9〉 북한에서의 당원 여부 분포

(단위: %)

당원여부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당원	9.5	14.4	14.3	13.5	17.8	18.8	18.2	13.8	11.2	12.8
후보당원	1.0	0.0	0.0	0.7	0.7	0.0	0.8	0.0	0.9	0.9
비당원	85.7	84.3	85.7	85.8	80.0	81.2	80.3	85.1	87.1	84.4
무응답	3.8	1.6	-	-	0.7	-	0.8	1.1	0.9	1.8
합계(N)	105	127	133	149	146	138	132	87	116	109

(5) 북한에서의 경제활동

북한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원적인 수입 경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조사 역시 북한주민의 경제활동 및 생활수준을 이해하기 위하여 ‘공식 월수입’과 ‘비공식 월수입’을 조사했다. 공식 월수입의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 수준은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 혹은 수입이 없는 경우로 나타났다. <표 1-10>에 나타나듯이 연도별 응답률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공식 월수입이 ‘5,000원 이하’라는 응답률은 2012년 36.2%, 2013년 36.8%, 2014년 26.2%, 2015년 35.6%, 2016년 26.8%, 2017년 40.9%, 2018년 20.7%, 2019년 19.8%, 2020년 17.8%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반면, 공식 월수입이 ‘0원’이라는 응답률은 2012년 25.2%, 2013년 51.9%, 2014년 61.1%, 2015년 54.8%, 2016년 58.0%, 2017년 47.0%, 2018년 51.7%, 2019년에는 66.4%로 점차 늘어났고, 올해는 56.1%로 2016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1-10> 북한에서의 공식 월수입의 분포

(단위: 명(%))

공식 월수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0원	32 (25.2)	69 (51.9)	91 (61.1)	80 (54.8)	80 (58.0)	62 (47.0)	45 (51.7)	77 (66.4)	60 (55.0)
1,000원 이하	10 (7.9)	2 (1.5)	13 (8.7)	7 (4.8)	7 (5.1)	8 (6.1)	8 (9.2)	5 (4.3)	7 (6.4)
5,000원 이하	46 (36.2)	49 (36.8)	39 (26.2)	52 (35.6)	37 (26.8)	54 (40.9)	18 (20.7)	23 (19.8)	19 (17.4)
1만원 이하	4 (3.1)	5 (3.8)	2 (1.3)	1 (0.7)	4 (2.9)	0 (0.0)	0 (0.0)	2 (1.7)	0 (0.0)

10만원 이하	9 (7.1)	0 (0.0)	3 (2.0)	4 (2.7)	5 (3.6)	2 (1.5)	9 (10.3)	2 (1.7)	5 (4.6)
50만원 이하	5 (3.9)	4 (3.0)	0 (0.0)	0 (0.0)	3 (2.2)	3 (2.3)	5 (5.7)	6 (5.2)	8 (7.3)
100만원 이하	0 (0.0)	2 (1.5)	0 (0.0)	1 (0.7)	2 (1.4)	2 (1.5)	1 (1.1)	1 (0.9)	0 (0.0)
100만원 초과	0 (0.0)	0 (0.0)	1 (0.7)	1 (0.7)	0 (0.0)	1 (0.8)	0 (0.0)	0 (0.0)	1 (0.9)
무응답	21 (16.5)	2 (1.5)	0 (0.0)	0 (0.0)	0 (0.0)	0 (0.0)	1 (1.1)	0 (0.0)	9 (8.3)
합계(N)	127	133	149	146	138	132	87	116	109

이와 대조적으로 비공식 월수입의 경우는 점차 고소득 월수입의 응답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1-11>에서 보이듯 비공식 월수입의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10만원이상 50만 원 이하’로 2012년 34.6%, 2013년 39.1%, 2014년 28.9%, 2015년 29.5%, 2016년 26.8%, 2017년 34.1%, 2018년 31.0%, 2019년 32.8%, 올해 24.3%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50만원 이상 100만 원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6.3%에서 2015년(24.7%), 2016년(23.9%)에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다가 점차 감소하여 2017년(13.6%), 2018년(13.8%), 2019년(13.8%), 2020년에는 11.2%를 기록하였다. ‘100만 원 초과’라는 응답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2012년 5.5%에서 2015년 23.3%, 2016년 15.2%, 2017년 26.5%, 2018년 14.9%, 2019년 23.3%, 2020년에는 15%를 기록하였다.

한편 ‘10만 원 이하’의 응답의 비중은 2014년 17.4%, 2015년 6.2%, 2016년 8.0%, 2017년 8.3%, 2018년 16.1%, 2019년 6.9%, 올해에는 7.5%

를 기록하였고, 소득이 없다는 응답이 2012년 16.5%에서 조금씩 상승하여 2020년 현재 29%를 보이고 있다. 종합하면, 비공식 소득은 2015~2017년 사이가 고소득 비중이 가장 높았고, '10만원 이하' 소득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1-11〉 북한에서의 비공식 월수입의 분포

(단위: 명(%))

비공식 월수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0원	21 (16.5)	32 (24.1)	33 (22.1)	24 (16.4)	32 (23.2)	18 (13.6)	18 (20.7)	26 (22.4)	31 (28.4)
1,000원 이하	0 (0.0)	3 (2.3)	4 (2.7)	0 (0.0)	2 (1.4)	1 (0.8)	0 (0.0)	0 (0.0)	4 (3.7)
5,000원 이하	2 (1.8)	0 (0.0)	2 (1.3)	0 (0.0)	1 (0.7)	4 (3.0)	1 (1.1)	1 (0.9)	1 (0.9)
1만원 이하	2 (1.6)	3 (2.3)	2 (1.3)	0 (0.0)	1 (0.7)	0 (0.0)	1 (1.1)	0 (0.0)	1 (0.9)
10만원 이하	25 (19.7)	9 (6.8)	26 (17.4)	9 (6.2)	11 (8.0)	11 (8.3)	14 (16.1)	8 (6.9)	8 (7.3)
50만원 이하	44 (34.6)	52 (39.1)	43 (28.9)	43 (29.5)	37 (26.8)	45 (34.1)	27 (31.0)	38 (32.8)	26 (24.0)
100만원 이하	8 (6.3)	12 (9.0)	17 (11.4)	36 (24.7)	33 (23.9)	18 (13.6)	12 (13.8)	16 (13.8)	12 (11.0)
100만원 초과	7 (5.5)	19 (14.3)	15 (10.1)	34 (23.3)	21 (15.2)	35 (26.5)	13 (14.9)	27 (23.3)	16 (14.7)
무응답	18 (14.2)	3 (2.3)	7 (4.7)	0 (0.0)	0 (0.0)	0 (0.0)	0 (0.0)	0 (0.0)	10 (9.1)
합계(N)	127	133	149	146	138	132	87	116	109

북한주민들이 비공식 수입을 획득하는 주요 경제활동은 장사이다. 〈표 1-12〉를 보면 매년 약 60%에서 70%의 응답자들이 북한에서 장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장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69.3%, 2013년 74.4%, 2014년 69.8%, 2015년 76.7%, 2016년 68.8%, 2017년 69.7%, 2018년 60.9%, 2019년 64.7%, 2020년 63.3%로 조사 연도별로 약간씩의 응답률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 수준별 장사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업별 장사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10년간의 통합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직업별 장사 경험의 응답률을 보면, 노동자 68.1%, 농민 45.7%, 사무원 69.7%, 전문가 59.7%, 학생 35%, 군인 54.1%, 외화벌이 81.5%, 가정부인 85.1%로 나타났다. 북한주민들 중 장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직업군은 가정부인과 외화벌이군으로 10명 중 8명 이상이 장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학생, 농민, 군인의 경우는 장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회집단임을 보여준다.

〈표 1-12〉 장사활동 경험 유무

(단위: %)

장사 경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있다	69.3	74.4	69.8	76.7	68.8	69.7	60.9	64.7	63.3
없다	29.9	25.6	30.2	23.3	31.2	30.3	39.1	35.3	36.7
무응답	0.8	-	-	-	-	-	-	-	-
합계(N)	127	133	149	146	138	132	87	116	109

(6) 탈북 후 정보 접근성 및 남한 친척의 유무

본 조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 후에도 북한 내부의 정보나 소식을 얼마나 자주 접하고 있는가를 파악했다. <표1-13>에서 보이듯 거의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 후에도 북한의 내부 소식을 ‘조금씩’ 또는 ‘거의 대부분’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내부 소식을 ‘조금씩’ 또는 ‘거의 대부분’ 접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2012년 78.8%, 2013년 79.7%, 2014년 82.6%, 2015년 74.0%, 2016년 76.8%, 2017년 76.6%, 2018년 82.7%, 2019년 77.6%, 올해는 67.9%이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는 남북한 간 정보교류가 상당히 활발하며 동시에 정보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남한의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내부의 구성원 간의 정보교류에서 휴대폰은 주요 매개체이다. 이집트 이동통신사인 오라스콤(Orascom)과 북한 조선체신회사의 합작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고려링크를 이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가입대수는 2020년 공식 통계를 기준으로 381만대에 이르며, 평양이나 나선 등 대도시 거주 20~50대 장년층의 70%가 휴대전화에 가입하였고, 실제사용자는 450만명 수준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³⁾

이처럼 북한사회에서의 정보통신의 빠른 보급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내부의 구성원 간의 정보교류를 증가시키고 있다. 탈북후 북한 소식을 거의 대부분 혹은 조금씩 접할수 있었다는 응답은 60~80% 대를 유지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 접할수 있다는 응답은 2016년에 26.1%로 가장 높은 비

3) 통계청, 『2020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서울: 통계청, 2020), p.217.; · KDB미래전략연구소 『북한 포커스』(2020.8.10)

율을 보이다가 조금씩 줄어들어 올해는 9.2%가 답했고, 조금씩 접할 수 있다는 응답은 2018년 63.2%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다가 올해는 약간 감소하여 58.7%로 나타났다. 소식을 접할수 있다는 응답이 여전히 다수이지만,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이다.

<표 1-13> 탈북 후 북한의 소식에 대한 접근성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9.7	22.6	24.8	19.2	26.1	20.5	19.5	22.4	9.2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59.1	57.1	57.8	54.8	50.7	56.1	63.2	55.2	58.7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1.3	20.3	17.5	25.3	23.2	23.5	17.2	21.6	31.2
무응답	-	-	-	0.7	-	-	-	-	0.9
합계(N)	127	133	149	146	138	132	87	116	109

탈북하기 전에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의 유무 관계는 위에서 언급한 탈북 후 북한의 소식에 대한 접근성과 탈북 후 입국까지의 소요시간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년간 결과를 보면, 탈북 후 북한 소식에 대한 접근성은 점차 높아져 가고 또한 탈북 후 입국까지의 소요시간이 점차 단축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탈북 전에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이 있다는 응답률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1-14>에서 나타나듯이 탈북하기 전에 남한에 친척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37.8%로 50% 미만이었다가 2013년 65.4%, 2014년 69.1%, 2015년 58.2%, 2016년 60.9%, 2017년 51.5%, 2018년 50.6%로

50%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나 2019년 70.7%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가 2020년에는 63.3%로 다소 줄어들었다.

〈표 1-14〉 탈북 전 남한 친척의 유무

(단위: %)

남한친척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없다	62.2	34.6	30.9	41.8	39.1	48.5	49.4	29.3	36.7
있다	37.8	65.4	69.1	58.2	60.9	51.5	50.6	70.7	63.3
무응답	-	-	-	-	-	-	-	-	-
합계(N)	127	133	149	146	138	132	87	116	109

(7) 가족생활

응답자들의 현재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표1-15〉에서 보이듯 결혼 상태에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미혼 순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결혼 상태에 있는 응답자의 비중은 2011년 41.9%, 2012년 44.1%, 2013년 53.4%, 2014년 55.0%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5년에는 42.5%, 2016년에는 47.1%, 2017년 45.5%, 2018년 41.4% 다소 하락하였지만 2019년 52.6%로 상승하고, 올해는 45.9% 수준을 유지했다.

미혼 상태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52.4%, 2012년 45.7%, 2013년 37.6%, 2014년 30.9%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5년에는 39.0%로, 2016년 42.0%, 2017년 40.2%로 증가했고 2018년 50.6%로 10.4%p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9년 33.6%로 주춤하다 올해엔 44%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혼 상태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는데 2011년 0%, 2012년 9.4%, 2013년 9.0%, 2014년 14.1%로 증가했고 2015년 17.8%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하여 2016년 10.9%, 2017년 13.6%, 2018년 5.7%, 2019년 13.8%, 올해는 9.2%로 다소 낮아졌다.

〈표 1-15〉 혼인 상태에 따른 분포

(단위: %)

혼인상태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미혼	52.4	45.7	37.6	30.9	39.0	42.0	40.2	50.6	33.6	44
결혼 (동거포함)	41.9	44.1	53.4	55.0	42.5	47.1	45.5	41.4	52.6	45.9
이혼	0.0	9.4	9.0	14.1	17.8	10.9	13.6	5.7	13.8	9.2
무응답	5.7	0.8	-	-	0.7	-	0.8	2.3	-	0.9
합계 (N)	105	127	133	149	146	138	132	87	116	109

응답자의 자녀수를 파악한 결과, 〈표1-16〉에서 나타나듯 자녀가 없는 경우가 해마다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2년에 38.4%이던 무자녀 응답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올해는 46.8%가 자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에 52.9%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이래 자녀가 없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명 혹은 2명의 자녀를 가진 응답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여 2012년에는 47.3% 2017년에는 55.3%였다가 올해는 다소 하락하여 46.7%가 한두명의 자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혹은 사별에 의한 편부모 가구수는 2013년 12가구이며, 2014년 19가구, 2015년 43가구, 2016년 40가구, 2017년 28가구, 2018년 14가구, 2019년 47가구, 2020년에는 26가구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있는 응답자들은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16〉 자녀의 수 분포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0명	24.4	37.9	34.2	39.7	43.5	43.2	52.9	43.1	46.8
1명	27.6	32.6	27.5	35.6	33.3	36.4	24.1	39.7	28.4
2명	19.7	24.2	29.5	21.2	18.8	18.9	19.5	12.1	18.3
3명	7.1	4.5	6.7	2.1	4.3	0.8	3.4	0.9	2.8
4명	1.6	0.8	1.3	1.4	0.0	0.8	0.0	2.6	0.9
5명	-	-	0.7	-	0.0	-	0.0	0.0	0
무응답	19.7	-	-	-	-	-	-	1.7	2.8
합계 (N)	127	133	149	146	138	132	87	116	109

5. 조사의 의의와 시사점

『북한주민 통일인식』 조사는 북한 주민들이 통일에 대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남한 사회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무엇을 알고 있으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주변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매우 희귀한 자료이다.

비록 직접 북한에서 설문조사를 할 수 없다는 제약으로 인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른 조사 방식과 자료의 한계가 있

지만, 구체적인 쟁점과 주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시계열적이고 포괄적인 자료로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남북관계가 급변하고, 매일 다양한 사건과 변화가 발생하지만, 지난 10년간 조사를 지속한 결과 상대적으로 긴 흐름이 형성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지속되고 있으며,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인식과 여론이 서로 다른 부분이 분명히 확인되지만, 서로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분명히 이해하게 되면 서로의 기대와 인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현명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인식조사를 통해 서로에 대한 기대와 친밀감, 상대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같은 긍정적 태도와 서로에 대한 무지나 편견, 불신이나 위협인식 같은 부정적 태도들이 확인되며,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서는 긍정적 인식의 지지를 받고, 부정적 태도와 인식을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아주 단순한 원칙들이 확인되기도 한다.

올해의 조사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큰 변화가 발생해온 남북관계가 북한 주민들의 통일과 남북관계, 주변국과 북한 사회 내부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하고, 그것이 더 나은 연구와 정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제2장 통일인식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2장 통일인식

| 엄현숙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1. 서론

이 장에서는 2019년 북한 주민의 통일 인식 변화를 살펴본다. 북한 주민의 통일인식 조사는 북한에 살고 있을 당시 통일에 대한 응답자의 생각에 기초한다. 이번 조사의 설문 시점으로 되는 2019년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 개선의 덕을 보는,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다음의 걸음을 내디디는 전환적 해가 되어야 하였다. 이에 북한은 2019년을 민족 화해와 단합의 주인이 되어 역사발전의 획기적 전환을 가져오는 해로 설정하였다. 이는 2019년 신년사를 통해서 확인되는데,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의 모색” 등으로 구체화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역사적인 북한 선언을 철저히 리행”하는 것이 2019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길로 명시되었다.

우선, 북한은 연초부터 “관계개선과 제제는 량립될수 없다”는 주장 하에 대북제제를 ‘케케묵은 것’으로 치부하였다. 북한이 바라보는 관계 개선의 기초는 존중과 신뢰이며, 제제의 기초는 적대와 대결이었다. 이에 북한

은 남한을 향해 2018년의 판문점 상봉과 9월 평양 상봉 때의 초심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한편 ‘중재자’, ‘촉진자’ 행세가 아닌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며 관계 개선의 조급함을 드러냈다.

또한, 북한은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북미 수뇌부 상봉의 발언과 회담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남·북·미 상봉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이 상봉에 대해 북한은 “적대와 대결의 산물인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남조선과 미국의 최고수뇌들이 분단선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만나는 력사적인 장면”으로 치켜세웠다. 이 날의 장면은 오랜 세월 불신과 오해,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간직한 판문점에서의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으로 기록되어 7월 1일 전 국민에 공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이자 역사적 사변으로 풀이하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 후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이례적 비난과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에 대한 날 선 공세로 선언 이행의 교착과 대화의 동력 상실에 대한 책임을 남한 정부의 탓으로 돌렸다.

결과적으로 2019년 통일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타들어가는 경제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방안” 제시보다는 “말재간만 부린” 남한 정부에 대한 질타와 공동 번영의 꿈이 갖는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 이는 2018년 판문점과 평양에서의 선언에 따른 기대가 컸 던만큼 2019년 북한 당국이 체감한 실망이 상당했을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2019년의 통일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북한 주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그리고 이 인식은 조사가 시작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시된 질문은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통일에 대한 기대감’,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 ‘통일

정책에 대한 인식' 등이다. 이번 조사는 북한에 대한 현지조사가 불가능한 현실에도 그간의 축적된 조사와 결과들로 인해 통일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인식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에 이 연구는 2011년부터 진행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9년 북한 주민의 통일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2.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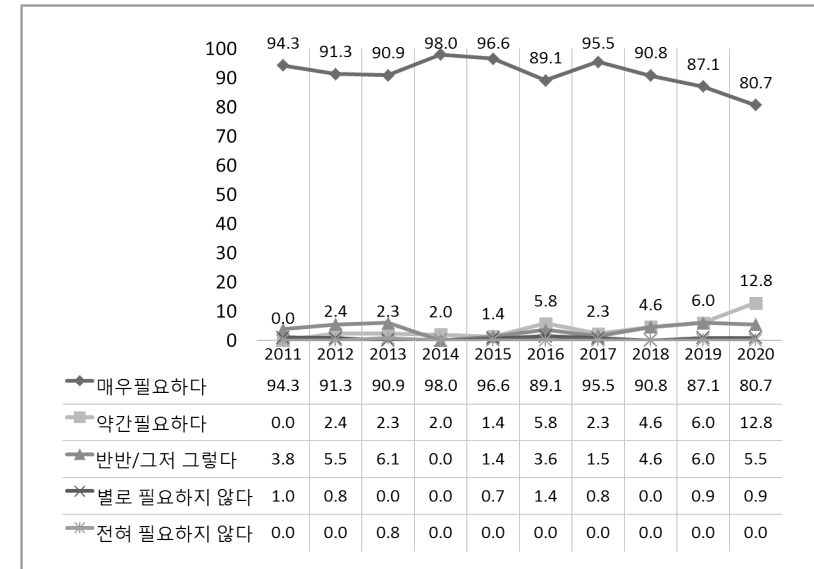
(1) 통일의 필요성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대부분이 통일을 필요하다고 보았다.

2020년 조사에서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 80.7%와 ‘약간 필요하다’ 12.8%를 더한 결과는 93.5%로 이는 2019년 93.1%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매우 필요하다’의 경우 조사가 시작된 2011년 94.3%보다 낮으며 전년 대비 6.4%p 하락하였다. 반면 ‘약간 필요하다’의 경우 지난해 6.0%에서 2020년 12.8%로 6.8%p 우세하다. 그 외 ‘반반/그저 그렇다’는 5.5%,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0.9%이다

〈그림 2-1〉 통일의 필요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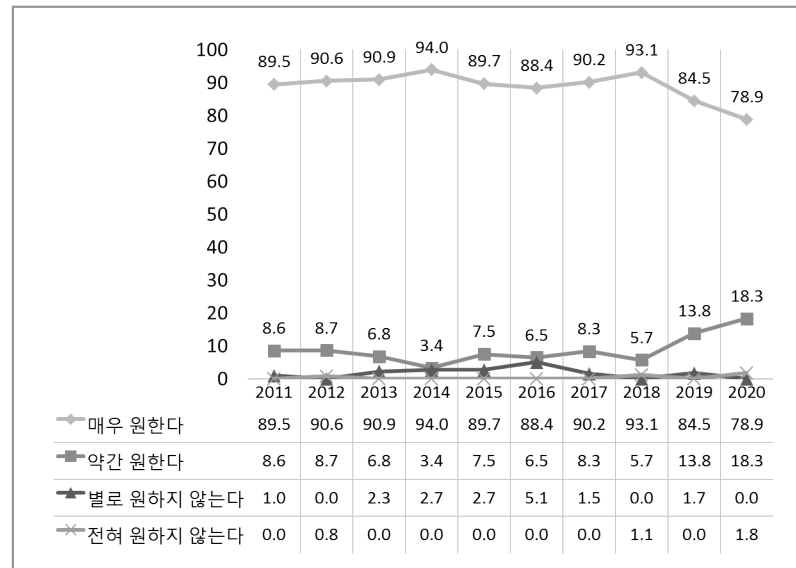
전체 조사기간(2011년~2020년) 평균 91.4%가 통일을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에서 북한 주민에게 통일은 당연하고 절대적이다. 하지만 ‘매우 필요하다’의 인식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면 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는 통일에 대한 북한 주민의 기대가 점차 식어간다는 의미 일수도 있으며, 다른 하나는 통일의 가능성보다는 남한으로의 탈출에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응답자 개인의 심리가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2) 통일 의지

“귀하는 북한 주민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기를 얼마나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매우 원한다’의 인식은 2020년 78.9%이다. 여기에 ‘약간 원한다’ 18.3%를 더하면 97.2%로 통일은 원하는 인식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하지만, ‘매우 원한다’의 경우 전년 대비 5.6%p 낮은 결과이며, 이는 조사기간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더욱이 주목되는 점은 통일 의지의 하락세가 앞서 살펴본 통일의 필요성 인식과 흐름을 같이 한다는 점이다. 특히 ‘약간 원한다’는 2018년 5.7%, 2019년 13.8%, 2020년 18.3%로 상승 중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1.8%로 미비하다.

〈그림 2-2〉 통일 의지

(단위: %)



통일을 원하긴 하되 그 강도가 눈에 띄게 약해진다는 점은 통일에 대한 북한 사회 지배적인 인식에 드러난 변화이다. 일시적이라고 보기에는 하락세가 가파르다. 다만, 그 반대의 의견이 현재까지는 아주 미비하다는 점에서 통일을 ‘약간 원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다음의 이어지는 질문들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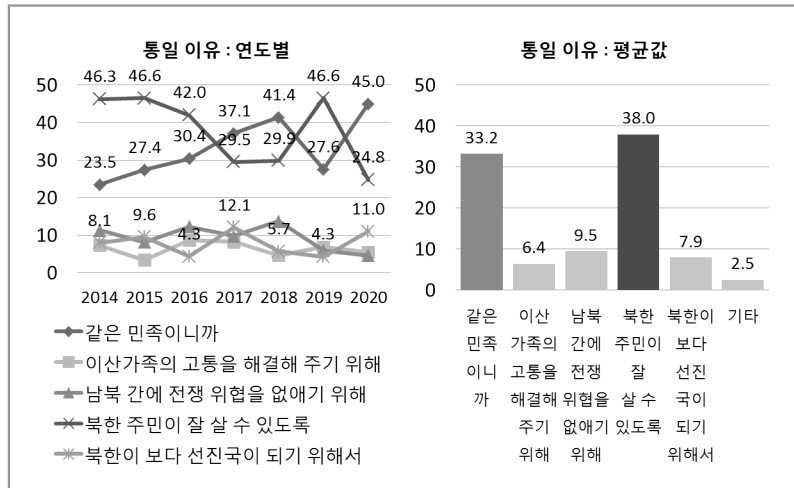
(3) 통일 이유

그렇다면 통일의 이유는 무엇일까?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같은 민족이니까’가 가장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같은 민족이니까’의 경우 2019년 27.6%에서 2020년 45.0%로 무려 17.4%p 높아졌으며 이는 조사기간 이래 가장 높다. ‘북한 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의 경우, 2019년 46.6%에서 2020년 24.8%로 21.8%p 하락했으며 이는 조사기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다. 그 외,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2020년 11.0%로 전년 대비 6.7%p 상승하는 모습이다.

반면 전체 조사기간(2011년~2020년) 평균을 보면 정 반대의 모습이 관찰되는데, ‘북한 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38.0%로 1위, ‘같은 민족이니까’ 33.2%로 2위를 차지한다.

〈그림 2-3〉 통일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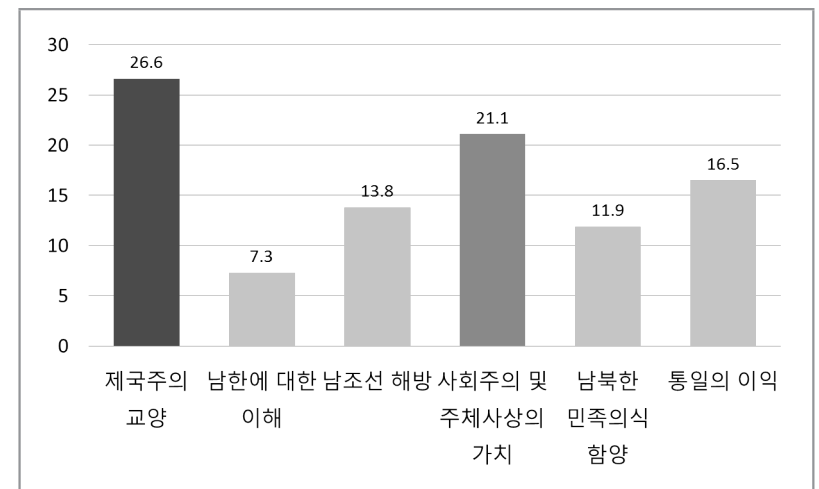
이에 ‘북한 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이 높을 때에는 북한 당국의 남한 정부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강화될 때라면, ‘같은 민족이니까’의 인식이 우위에 있을 때에는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긍정적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남한 정부에 대한 당국의 불만과 질타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북한 사회의 지배적인 인식은 화해와 평화, 남북한 공동 번영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음을 확인시키는 대목이다.

(4) 통일 내용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가장 많이 들었던 통일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의 질문에 응답자들은 ‘제국주의 교양’ 26.6%, ‘사회주의 및 주체사상의 가치’ 21.1%, ‘통일의 이익’ 14.7%, ‘남조선 해방’ 12.5%, ‘남북한 민족의식 함양’ 11.9%, ‘남한에 대한 이해’ 7.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조사기간(2018-2020) 평균을 보아도 ‘제국주의 교양’이 29.0%로 ‘사회주의 및 주체사상의 가치’ 24.3%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통일 내용

(단위: %)



이번 조사로 북한이 ‘남한에 대한 이해’ 보다는 북한 체제의 우월성과 이념에 기초한 통일을 추구하며 이를 주민에게 주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

인식이다. 북한이 그들 주민에게 주입시키는 통일의 가치는 다음의 예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다큐 '남북 미생'이 그 예이다. 조선형 감독이 제작한 다큐 『남북 미생』(2015년)은 분단으로 인해 다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남북한 두 여대생을 그린 것이다. 두 여대생 모두 성악을 전공하였고 그들 부모는 의사이다. 두 여대생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감독은 통일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물었다. 남한 여대생이 통일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에 달리하여 지금 당장 혜택이 차려지는 것이 아닌 통일보다 그저 자기 할 일에 바쁜 것을 강조한다면, 북한의 여대생은 “오래 떨어져 있다고 해서 언어가 달라졌는가? 핏줄이 달라졌는가? 풍습이 달라졌는가?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라고 강조하는 아버지의 의견에 동의한다. 이는 북한의 '남한에 대한 이해', 나아가 통일에 대한 이해를 함축하여 보여준다. 남과 북이 달라진 것 없다는 전제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에 대한 이해'가 아닌 자본주의, 개인주의에 대한 경계와 자각만을 필요로 한다.

이상의 통일과 남한에 대한 인식은 탈북민들의 정착에 체제의 다름에서 오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와 개인주의 가치와 경제적 자본의 빈약함 등에 의한 불안 정서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또한 이러한 응답자 개인의 인식이 통일의 필요성이나 의지에 반영되어 '매우 필요하다', '매우 원한다'의 하락을 불러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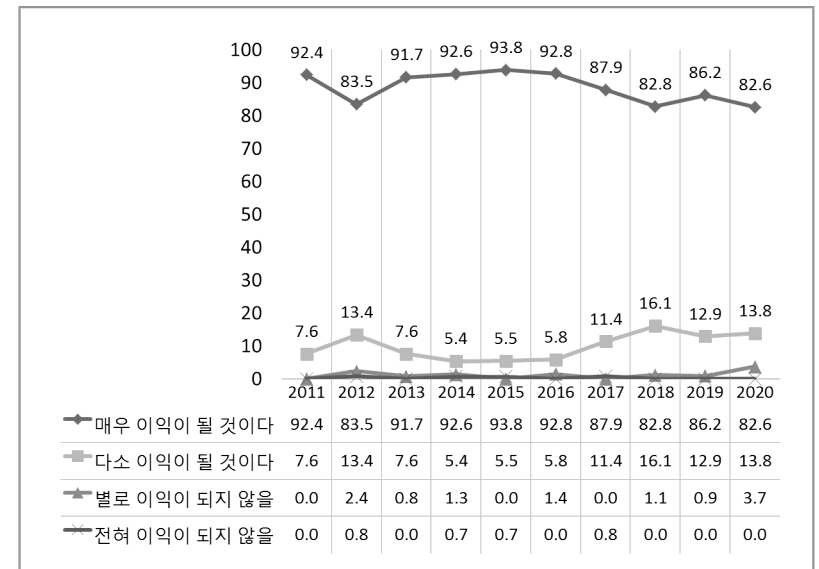
3. 통일에 대한 기대감

(1) 통일 집단 이익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북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82.6%,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13.8%,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3.7%,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0.0%로 나타났다. 특히 집단에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의 경우 전체 조사기간(2011년~2020년) 평균 88.6%로 우위를 나타내며, 2020년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와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를 더하면 96.4%로 높게 나타난다.

〈그림 2-5〉 통일 집단 이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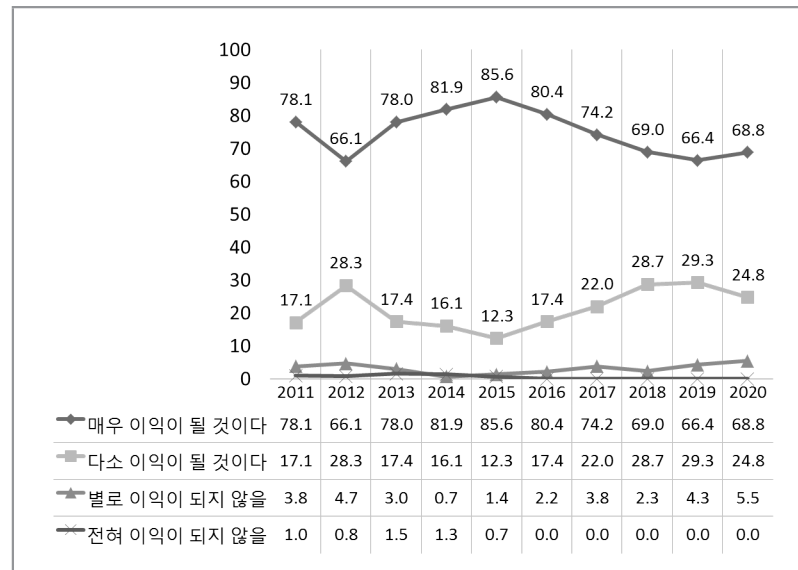


(2) 통일 개인 이익

그렇다면 통일에 대한 개인 이익은 어떠한가?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68.8%,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24.8%,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5.5%,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0.0%로 나타났다.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와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는 인식을 더하면 통일이 개인에 줄 이익은 93.6%로 높게 나왔다.

<그림 2-6> 통일 개인 이익

(단위: %)



<그림 2-5>와 <그림 2-6>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의 인식의 차이이다. 그것은 집단 이익이 82.6%, 개인의 이익이 68.8%로 집단 이익이 개인 이익에 비하여 13.0%p 높다. 통일이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하여 개인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이익을 가져다줄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함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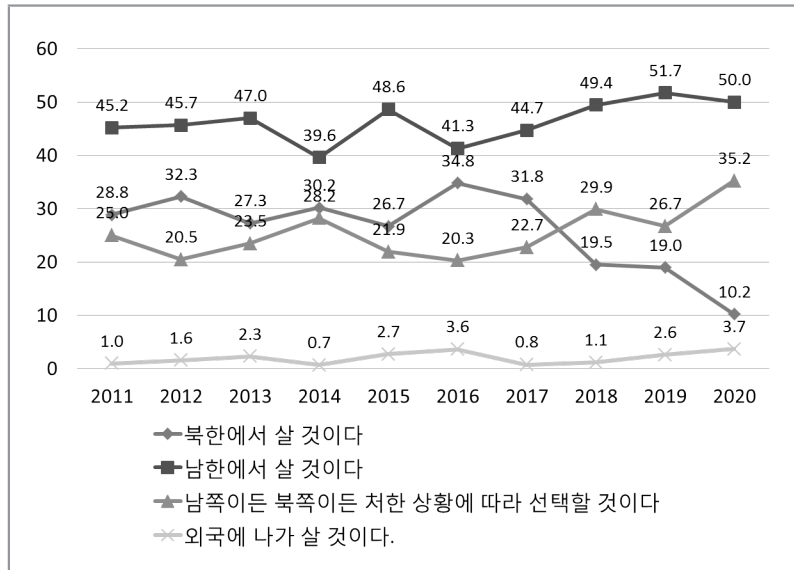
(3) 통일 거주 지역

통일에 대한 기대감은 통일 이후 거주 지역 선택에 잘 드러난다. “귀하는 통일이 되면 어느 지역에서 거주할 생각이십니까?”의 질문에 50.0%는 ‘남한에서 살 것이다’는 인식을 드러낸 반면, ‘남쪽이든 북쪽이든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것이다’는 35.2%, ‘북한에서 살 것이다’는 10.2%, ‘외국에 나가 살 것이다’는 3.7%에 그쳤다. 다만, ‘남한에서 살 것이다’는 생각은 전년 대비 1.7%p 낮게 나왔다. ‘북한에서 살 것이다’는 인식 역시 전년 대비 8.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은 ‘남한에서 살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과반이 남한에서 살기를 원한 반면, ‘남쪽이든 북쪽이든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것이다’의 경우는 전년 대비 8.7%p 높게 나왔다. 이는 통일이 되어 함께 잘 살기만 한다면 그만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분단에 의한 피로감과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2-7〉 통일 거주 지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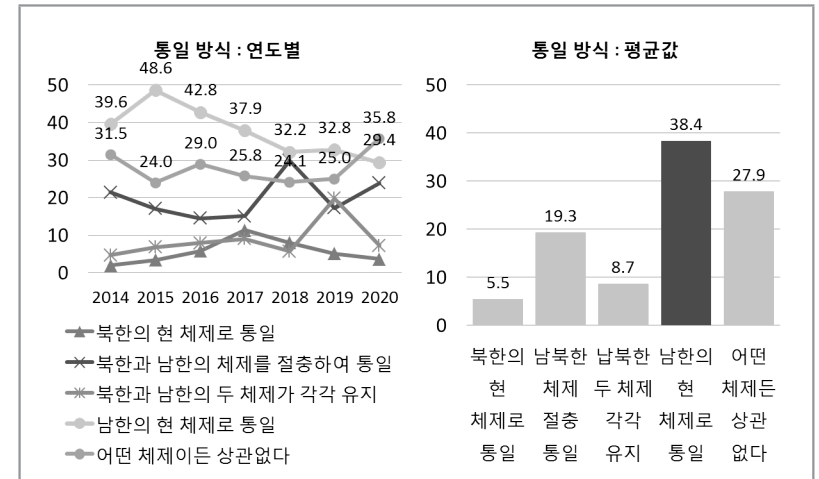
(4) 통일 방식

북한 주민들은 통일의 방식에 있어 ‘통일이 이뤄지기만 한다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것은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따른 것으로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 3.7%,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절충하여 통일한다’ 23.9%, ‘통일 이후에도 북한과 남한의 두 체제가 각각 유지된다’ 7.3%,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 29.4%, ‘통일이 이뤄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35.8%로 나타났다. 특히 ‘통일이 이뤄지기만 하

면 어떤 체제든 상관없다’의 경우 전년 대비 10.8%p 높게 나왔다. ‘남한의 현체제로 통일한다’의 경우는 전년보다 3.4%p 낮은 반면,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절충하여 통일한다’는 전년 대비 6.7%p 상승하였다.

〈그림 2-8〉 통일 방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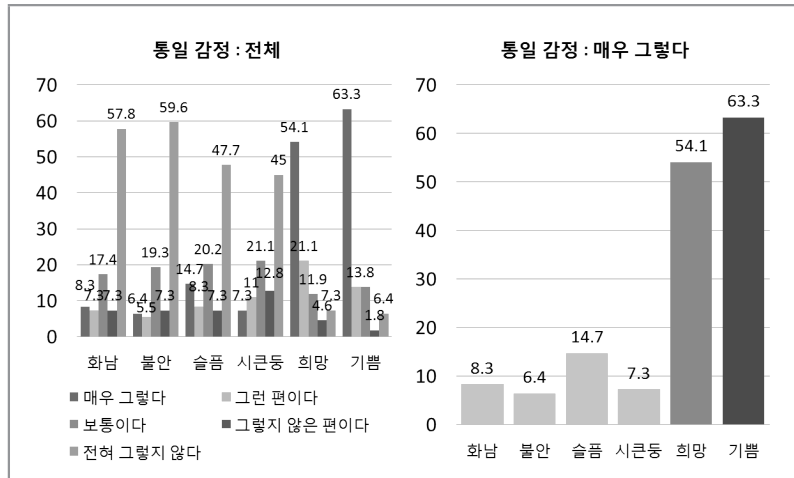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은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하는 것에는 대단히 부정적이다.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을 선호하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하락하고 있다. 2020년 조사의 결과는 어느 한 체제로 기울던 상관없이 통일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는 긴 분단으로 인한 피로감의 호소로 보이는 대목이다.

(5) 통일에 대한 감정

이 항목에 관한 조사는 2020년 조사에서 처음 시도된 것으로 연구진은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을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의 질문에 화가 난다. 불안하다. 슬프다. 시큰둥하다. 희망적이다. 기쁘다의 다섯 가지 변수를 설정하고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보기를 제시하였다. 이에 응답자들은 ‘매우 그렇다’의 경우 기쁨과 희망에 대한 인식에서 각각 63.3%, 54.1%를 나타냄으로써 통일에 긍정적 감정이 우세함을 보여주었다. 반면 부정적 감정은 슬픔 14.7%, 화남 8.3%, 시큰둥 7.3%, 불안 6.4%로 나타났다.

<그림 2-9> 통일 감정

(단위: %)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통일은 긍정적인 것이며 통일을 생각하면 희망과 기쁜 감정을 먼저 느끼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로서 북한 주민은 어떤 방식으로든 통일이 되어 잘 살기만 한다면 그것은 국가와 개인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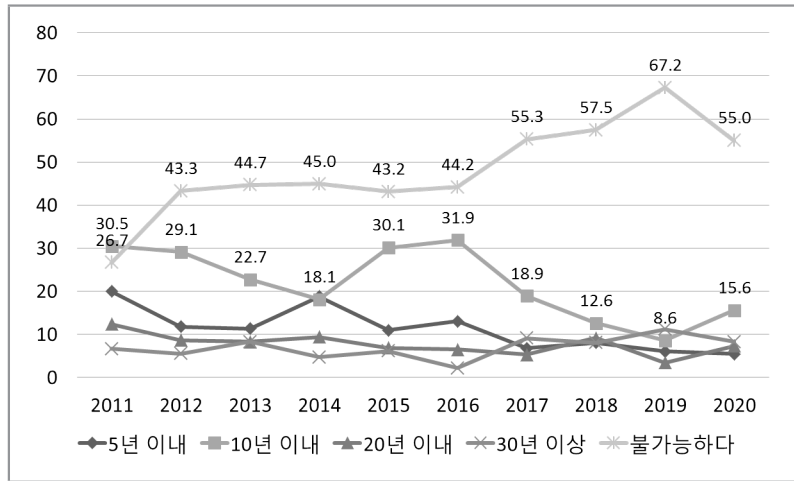
(6) 통일 시기

그렇다면 통일의 시기와 그 방법에 대하여 북한 주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선,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조사기간(2011년~2020년) 평균, 48.2%는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5년 이내’는 5.5%, ‘10년 이내’는 15.6%, ‘20년 이내’는 7.3%, ‘30년 이상’은 8.3%, ‘불가능하다’는 55.0%이다. 다만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전년 대비 12.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10년 이내’가 2019년 8.6%에서 2020년 15.6%로 7%p 상승한 점이 눈에 띈다. 이에 ‘10년 이내’가 ‘불가능하다’와의 격차를 2019년 58.6%p에서 39.4%p로 줄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2011년 3.8%p 차이에 비하면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림 2-10〉 통일 시기

(단위: %)



북한 정권이 안정된다고 보면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정권의 안정성이 흔들릴 때 통일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기 마련이다. 2019년 조사에서 비관론이 우세했다면, 2020년 조사에서는 통일에 대한 낙관론이 조금씩 탄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4. 사회 경제적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

한국에 들어온 지 1년 미만의 응답자들을 상대로 이어진 다음의 질문은 남한 내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것으로 이 문제가 탈북민에게 어떻게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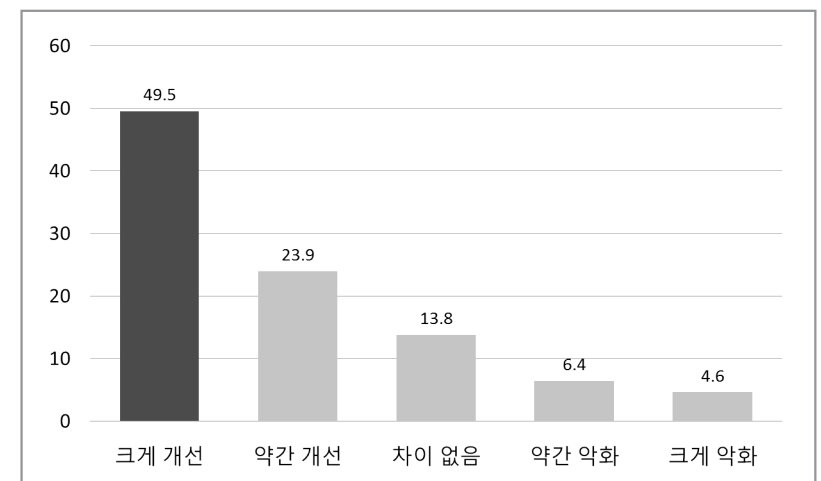
식되는지를 살펴보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본 조사는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에 빈부 격차, 실업 문제, 지역 갈등, 이념 갈등의 네 변수를 설정하고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의 다섯 가지 보기를 제시하였다.

(1) 빈부 격차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 중 빈부 격차에 관한 항목에 대하여 전체 조사기간(2011년~2020년) 평균 응답자의 55.6%는 ‘크게 개선’된다고 보았다.

〈그림 2-11〉 빈부 격차(2020)

(단위: %)



구체적으로, ‘크게 개선’, 49.5%, ‘약간 개선’ 23.9%, ‘차이 없음’ 13.8%, ‘약간 악화’ 8.4%, ‘크게 악화’ 4.6%이다. ‘크게 개선’의 경우 전년 대비 0.4%p의 근소한 차이로 상승한 반면, ‘약간 개선’될 것으로 보는 인식은 전년 대비 7.1%p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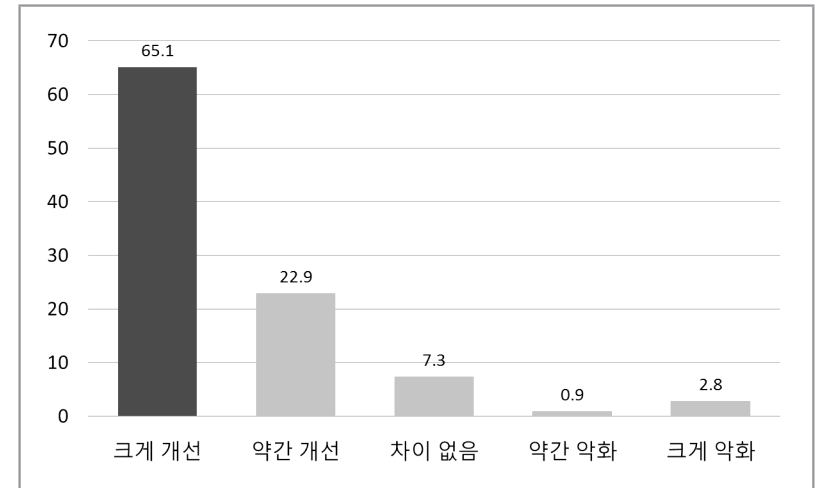
이에 빈부 격차에 대한 인식은 확실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결정적 우위는 아니며, 통일로 인한 국가적 이익은 증대되나 개인적 이익의 불확실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통일이 되더라도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2) 실업 문제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보기로 제시된 실업문제에 대하여 전체 조사기간(2011년~2020년) 평균, 68.5%는 실업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았다.

〈그림 2-12〉 실업 문제(2020)

(단위: %)



구체적으로 ‘크게 개선’은 65.1%, ‘약간 개선’은 22.9%, ‘차이 없음’ 7.3%, ‘약간 악화’ 0.9%, ‘크게 악화’, 2.8%이다. ‘크게 개선’의 경우 ‘약간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을 반영할 경우 88.0%로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실업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에, 응답자들은 통일 이후 경제적 효과를 우선하여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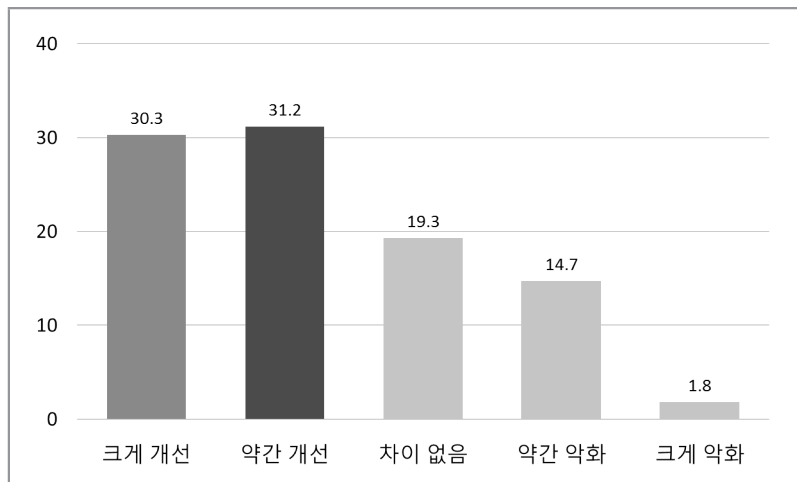
(3) 지역 갈등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보기로 제시된 지역 갈등에 관한

인식은 ‘크게 개선’ 30.3%에 ‘약간 개선’ 31.2%를 더하여 61.5%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 외 ‘차이 없음’ 19.3% ‘약간 악화’ 14.7%, ‘크게 악화’ 1.8%의 순이다. 지역 갈등의 경우 통일로 인해 개선된다는 점에 힘을 실어주고는 있으나 앞서 살펴본 빈부 격차나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3〉 지역 갈등(20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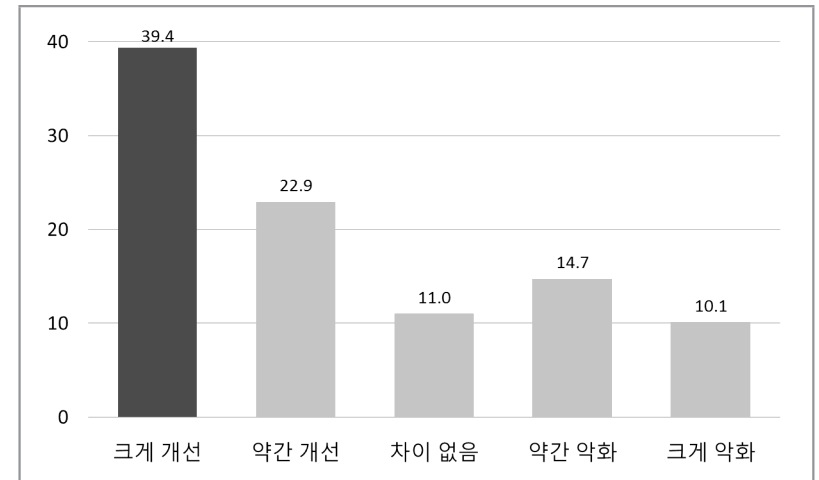
(4) 이념 갈등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보기로 제시된 이념 갈등에 대한 인

식은 ‘크게 개선’ 39.4%, ‘약간 개선’ 22.9%로 개선된다는 인식(크게+약간)이 62.3%로 악화된다는 인식(약간+크게) 24.8%에 비하여 37.5%p 높다.

〈그림 2-14〉 이념 갈등(2020)

(단위: %)



응답자들은 통일이 되면 이념갈등은 개선된다고 보고 있다.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통일이 되면 이념에 의한 대립 구조는 지금보다는 줄어들 것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과정으로써 현재를 주목한다면 갈등의 표면화로 읽혀질 수 있다.

5. 통일정책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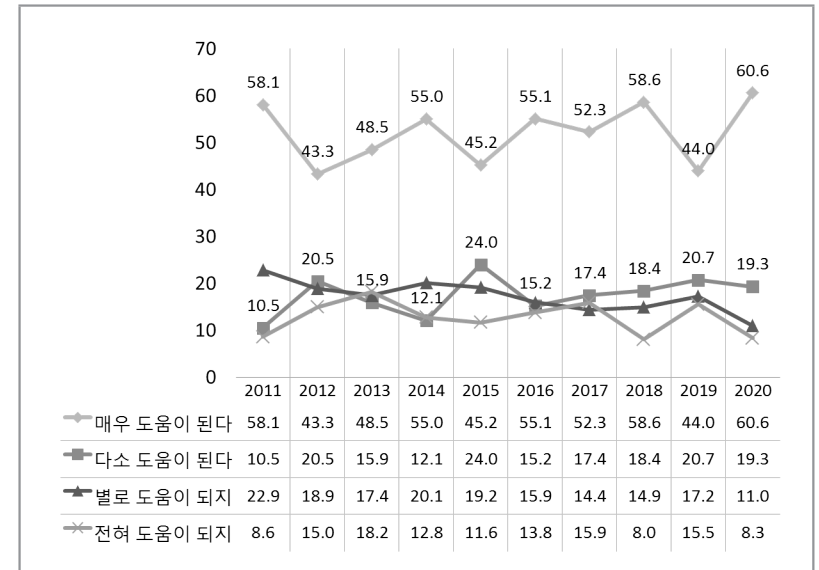
끝으로 통일정책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질문과 보기를 제시하였다. 이 질문과 보기는 조사의 시점에서 응답자들의 견해를 묻는 것으로,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에 대북지원, 사회문화 교류, 경제협력, 정기적인 남북 간 회담의 네 변수를 설정하고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의 네 가지이다.

(1) 인도적 대북지원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하여 인도적 대북지원은 ‘매우 도움이 된다’가 60.6%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19.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의 경우 11.0%,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8.3%이다. ‘도움이(매우+다소) 된다’는 인식은 2019년 64.7%에서 2020년 79.9%로 15.2%p 상승한 반면, ‘도움이(별로+전혀) 안된다’는 인식은 2019년 32.8%에서 2020년 19.3%로 13.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5>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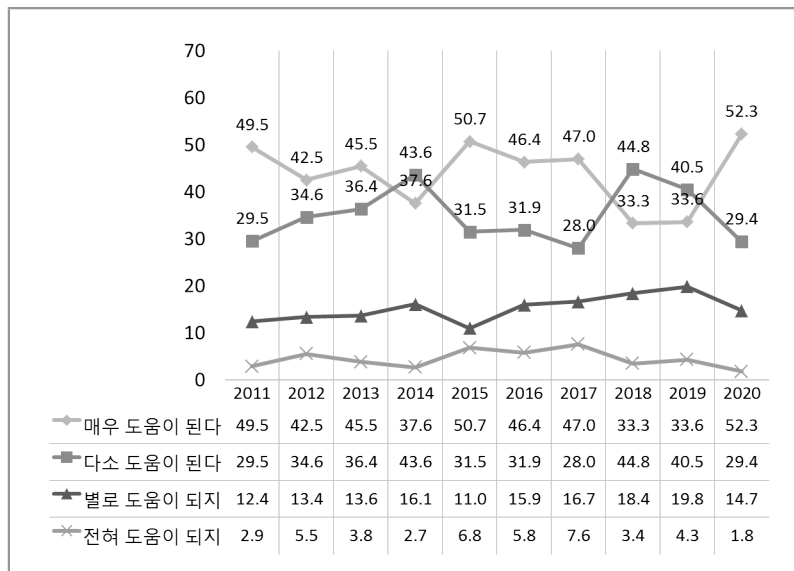
특히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열악한 북한의 상황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올해의 상황에 더욱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2) 사회문화 교류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보기로 제시된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사회문화교류에 대해 응답자의 52.3%는 ‘매우 도움이 된다’, 29.4%는 ‘다소 도움이 된다’, 14.7%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8%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2020년 도움이 된다와 도움이 안된다는 격차는 전년 50%p에서 65.2%p로 그 격차가 15.2%p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준다.

〈그림 2-16〉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사회문화교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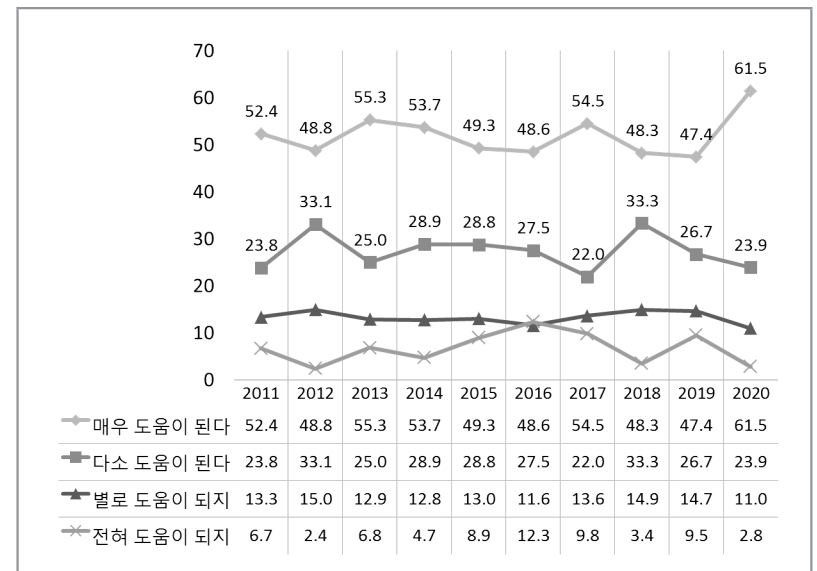


사회문화교류는 북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사회의 전반적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도구적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볼 수 있다.

(3) 경제협력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보기로 제시된 금강산·개성관광·개성공단 사업 등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61.5%가 ‘매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그림 2-17〉 금강산·개성관광·개성공단 사업 등 경제협력 (단위: %)



‘다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23.9%,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은 11.0%,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2.8%에 그쳤다. 2020년 ‘도움이 된다’와 ‘도움이 안된다’의 격차는 전년 50%p에서 71.6%p로 21.6%p 벌어지면서 ‘도움이 된다’에 다수의 의견이 집중되었다. 이는 남북 간 경제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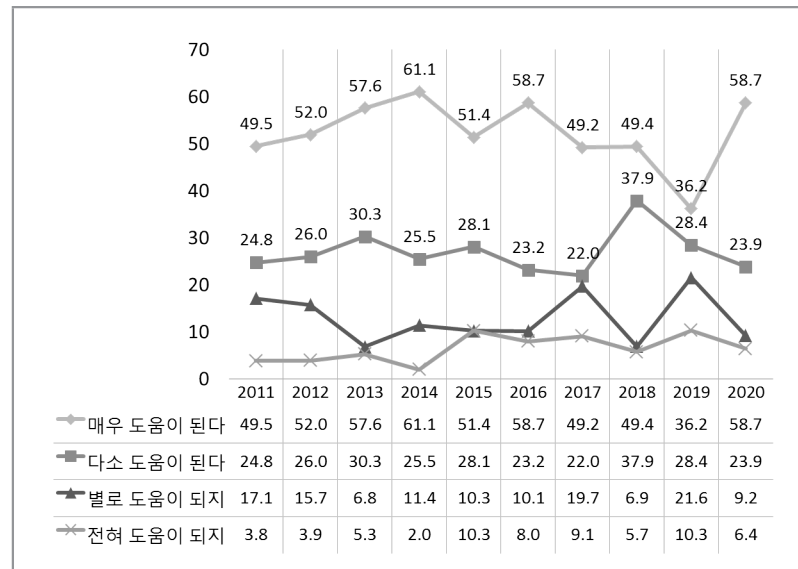
의 단절이 장기화 된 것에 따른 것이자 경제 협력의 물꼬를 틔으로써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것으로 읽힌다.

(4) 정기적인 남북 간 회담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보기로 제시된 정기적인 남북 간 회담에 대한 인식은 ‘매우 도움이 된다’ 58.7%로 과반의 동의를 얻고 있었다. 그 외, ‘다소 도움이 된다’ 23.9%,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9.2%,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6.4%로 나타났다.

(그림 2-18) 정기적인 남북한 회담

(단위: %)



이는 2018년 관계 좋음과 2019년 관계 악화를 모두 겪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남북한 간 관계 개선이 결국 통일로 가는 길임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소결

이 장에서는 2019년 북한 주민의 통일 인식 변화를 살펴보았다. 2019년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길로 명시한 북한이 2020년을 마주하면서 제시한 전략은 ‘정면 돌파전’이었다. 이는 2019년 남북한 공동번영이라는 꿈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취했던 ‘중대한 조치’들이 대북제재라는 현실적 한계들로 인해 동력을 잃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9년 남북한 관계에서 북한 당국이 체감한 실망은 결국 우리 식으로 발전과 번영의 길을 열어나가겠다는 공격 정신으로 귀결되었다.

그렇다면, 2019년의 통일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북한 주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시된 질문은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통일에 대한 기대감’,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 ‘통일정책에 대한 인식’ 등이다. 이번 조사는 2011년부터 진행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9년 북한 주민의 통일 인식을 분석하였다.

첫째로,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에서는 응답자의 93.5%가 통일을 필요하다고 보았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기를 원하는 응답자는 97.2%이다. 많은 항목 중에서 지난해 조사에서는 ‘북한 주민’이 었다면, 올해 조사에서

는 ‘같은 민족’이 통일이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었다. 다만, 통일을 위해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이 제국주의를 경계(26.6%)하고 사회주의 가치를 강조(21.1%)하였다는 점, 통일의 상대인 남한에 대한 이해가 가장 부족(7.3%)하다는 점은 한계가 된다.

둘째로, ‘통일에 대한 기대감’에서는 우선, 통일이 북한에 82.6%, 개인에 68.8%로 매우 이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통일이 되면, 50.0%가 남한에서 살기를 원한 반면, 북한에서 살 것이라는 의견은 10.2%에 머물러 있다. 다만 통일의 방식에서는 어떤 체제든 상관없다는 인식이 35.9%로 우위에 있었다. 통일에 대한 감정을 묻는 질문에서도 기쁨과 희망에 대한 인식에서 ‘매우 그렇다’가 각각 63.3%, 54.1%를 나타냄으로써 북한 주민 입장에서 통일은 긍정적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다만, 통일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조사기간 평균 48.2%가 통일이 불가하다고 생각하였고, 10년 이내가 지난해에 비하여 7%p 상승한 15.6%의 낮은 수치를 보였다.

셋째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에서는 실업문제 > 빈부격차 > 이념갈등 > 지역 갈등 이 각각 65.1% > 49.5% > 39.4% > 31.2% 순으로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왔다. ‘크게 악화된다’는 인식은 이념갈등 > 빈부격차 > 실업문제 > 지역갈등이 10.1% > 4.6% > 2.8% > 1.8%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로, ‘통일정책에 대한 인식’은 경제협력 > 인도적 대북지원 > 남북 간 정상회담 > 사회문화교류가 각각 61.5% > 60.6% > 58.7% > 52.3%의 순으로 ‘매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은 대북지원 > 남북 간 정상회담 > 경제협력 > 사회문화교류가 각각

8.3% > 6.4% > 2.8% > 1.8% 순이다.

이 조사는 남한에 정착한 지 1년 미만의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 주민의 통일인식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북한에 살고 있을 당시의 생각을 물었음에도 답변 과정에 응답자 개인의 심리가 반영된다. 이에 이들이 정착과정에 겪게 되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정서는 통일을 매우 필요로 하는 약간의 필요하고, 매우 원하는 것이 아닌 약간의 원하게 만드는 기제로 작동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 표면화된 여러 갈등 및 사회적 문제가 이를 부추길 수도 있다. 통일에 관한 정책에서도 이해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눈여겨보아야 하는 점은 그들 모두가 갓 북한을 벗어난 북한 주민이었다는 사실과 그들이 통일을 바라보는 인식이라는 점이다. 이에 북한 주민의 통일인식을 살펴보고 분석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 간 사회통합을 해결하기 위한 자료로 의미가 있다.



제3장 **대남인식**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3장 대남인식

| 문인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1. 서론

2018년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후 북한은 남한과의 경제 협력 추진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대북제재라는 현실적 한계로 남한 정부는 경제협력보다 인도적 협력 등 할 수 있는 분야부터 북한과 단계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했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 불만은 고조되기 시작했다. 북한은 2019년 하반기부터 거친 언사를 쏟아내기 시작하다가 결국 2020년 초에는 ‘대적관계’를 선언했다. 6월 중순 북한은 2018년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으로 자리잡아가던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다. 게다가 서해상에서의 남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북한이탈주민의 월북은 남북관계 경색은 물론이고 국민의 대북 인식을 악화시켰다.

2020년 초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사태는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를 비롯해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문을 더욱 굳게 닫았고, 심지어 외부의 어떠한 지원도 거부했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2020년 12월 21일 발표된 세계보건기구의 ‘아시아 지역 코로나19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북한에서 총 1만 960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보건성을 통해 세계보건기구에 통보한 것이다.⁴ 따라서 우리 정부를 비롯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과격적으로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보건위기가 극복되고 굳건하게 손 맞잡길 기원한다”고 발언했다. 열병식에서 북한은 신형 ICBM과 SLBM을 공개하며 선제적 사용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위 조절을 했다. 그러나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과 코로나19의 지속은 한반도의 불확실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2021년 중순 이후에야 결정될 가능성이 크고, 최근 백신이 개발돼 접종이 시작되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핵 문제와 남북관계 중단은 2021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2020년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조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북핵 문제, 남북관계 경색이라는 암울한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두 갈등 집단 간 편견 감소 문제를 논의하는 ‘접촉이론(contact theory)’에 따르면 남북한과 같이 불신과 편견이 깊은 두 국가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만나야 한다. 즉, 남북이 직접 만나 대화도 하고 필요한 사

4] “WHO 북한서 1만960명 코로나 검사...확진자 여전히 0”, TV조선, 2020.12.22.

안에 관해 협력해야 한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도 종종 나타나듯이 갈등의 골이 깊을수록 접촉은 오히려 이를 심화시킬 수 있다. 더군다나 남북한은 단순한 집단이 아니라 하나의 체제를 이루고 살며 적대적인 군사적 대치를 지속하고 있는 국가적 관계로 둘 사이의 접촉은 매우 제한적이다. 접촉이론에 따르면 갈등이 깊은 집단 간 접촉이 긍정적 효과를 가지려면, 서로의 동등한 지위, 공동의 목표, 이에 관한 협력, 이를 지속가능하게 할 법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접촉의 양은 물론이고 질도 높여야 한다.⁵

이 이론에 따르면, 접촉은 직접 접촉뿐만 아니라 간접 접촉도 유의미한 편견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통일·평화교육 혹은 통일·평화문화 조성 등과 같이 북한에 관한 이해, 통일과 평화에 관한 이해와 관심은 대표적인 남북한 간접 접촉이고, 이는 접촉의 양과 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혹자는 우리가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을 왜 알아야 하는지 의문을 표시하기도 한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대북인식과 통일인식 조사에 관해서도 불신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해마다 실시하는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조사는 한반도 통일과 평화 분위기 조성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표적인 간접 접촉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와 통일을 함께 이루어나가야 하는 같은 민족인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어쩌면 분단국가 국민의 숙명인지도 모른다.

이번 조사는 2019년에 북한을 벗어난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조사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전 조사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에서도

2019년의 상황을 중심으로 2020년의 상황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정 시기와 관계없이 응답자의 경험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는 성별과 나이, 학력, 소득수준, 거주 지역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변화를 살펴보았다.

2.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1)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연구진은 북한주민이 남한을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라고 질문했다. 응답자의 63.3%가 남한을 ‘협력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전년대비 13.3%p 증가한 것이다. 반면, 남한을 ‘적대대상’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은 2019년 29.3%에서 2020년 18.3%로 감소했다. 또한 ‘경계대상’이라는 답변도 11.2%에서 7.3% 감소했다. 한편, ‘지원대상’이라는 답변은 6.0%에서 5.5%로 감소했고, ‘경쟁대상’이라는 답변은 2.6%에서 5.5%로 증가했다. 즉, 남한에 관한 북한주민의 긍정적 인식은 2019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반면, 부정적 인식은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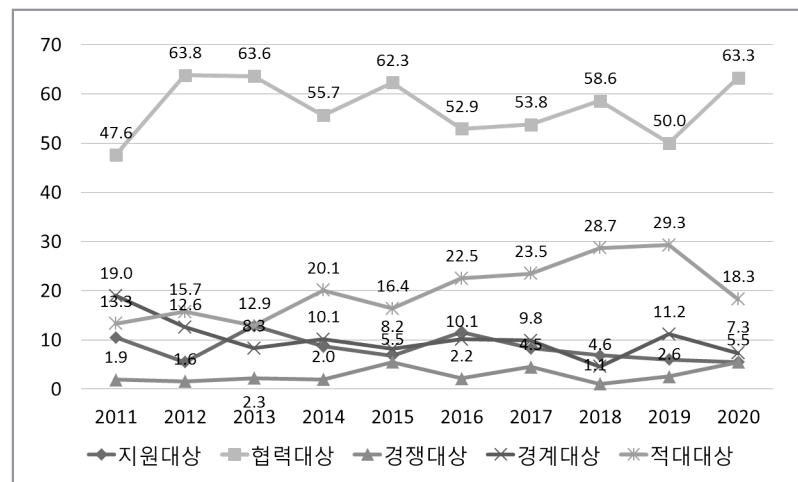
2019년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건 2018년의 상황이 뒤늦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조사에는 2018년 남북관

5] Allport, G. W., The nature prejudice. MA: Addison-Wiley. 1979.

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부정적이었다. 이밖에도 특기할 점은 전체 응답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남한을 ‘경쟁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2018년 1.1%에서 2019년 2.6%, 2020년 5.5%로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그림 3-1〉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단위: %)



(2)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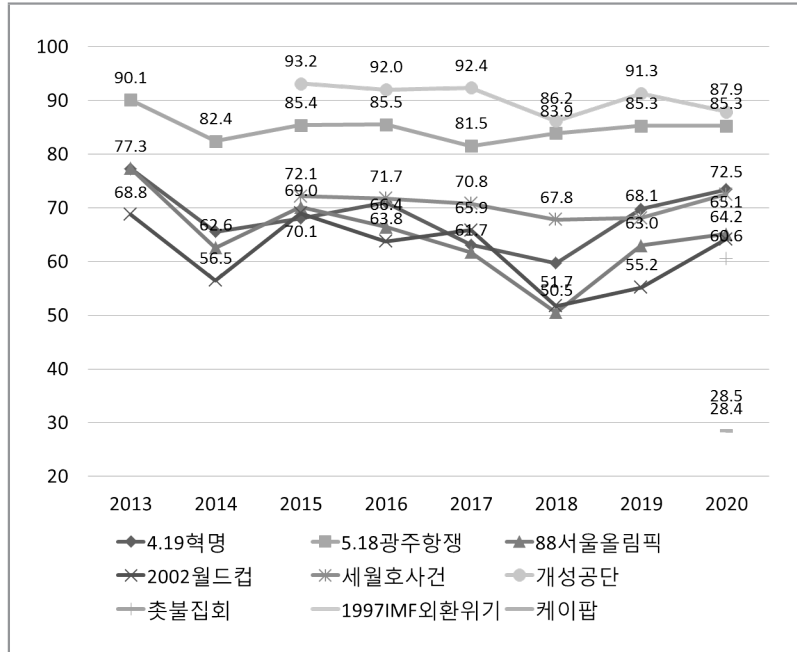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4.19 혁명’, ‘5.18 광주항쟁’, ‘88서울올림픽’, ‘2002월드컵’, ‘세월호 사건’, ‘개성공단’ 등을 알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개성공단(91.3% → 88.1%)’과 ‘5.18광주항쟁(85.3% → 85.3%)’을 제외하고 ‘세월호사건(68.1% → 72.5%)’, ‘2002월드

컵(55.2% → 64.2%)’, ‘88서울올림픽(63.0% → 65.1%)’, ‘4.19혁명(69.8% → 73.4%)’ 등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는 2019년에 비해 대부분 증가하였다. 북한의 학교 교육에서 배우는 것인지 파악되지 않지만, 남한 청소년도 잘 모를 수 있는 사건을 대부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한 지점이다. 참고로 조사대상자 대부분 고등중학교 출신으로 학력이 낮지 않다.

2020년 조사에서는 비교적 최근의 남한 상황과 과거의 중요 경제적 이슈에 관한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촛불집회’, ‘1997IMF외환위기’, ‘케이팝’ 등을 추가하였다. 응답자의 60.6%는 ‘촛불집회’에 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1997IMF외환위기’에 관해서는 28.4%, ‘케이팝’은 28.5%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남한문화(방송, 드라마, 음악)를 경험해 보았다’는 응답률(자주 접함 + 한두 번 접함)이 2019년 91.4%, 2020년 82.5%인 것과 달리 ‘케이팝’에 관한 응답률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2020년 조사 대상자의 연령을 보면 20대 44명, 30대 18명, 40대 14명, 50대 30명, 60대 7명으로 전반적으로 젊은 층이 많다(남성 34.3%, 여성 65.7%).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은 ‘케이팝’이라는 용어를 잘 모르거나 장르에 관한 이질감으로 아직 북한사회에 인기가 없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림 3-2〉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

(단위: %)



3.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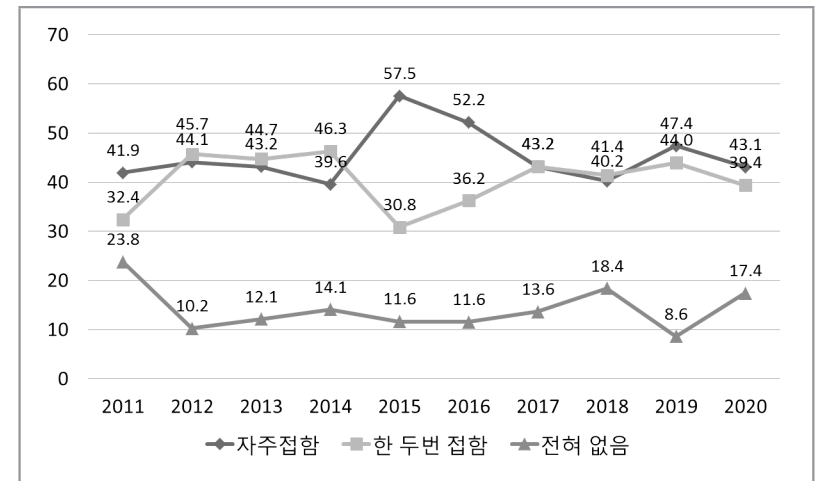
(1)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경험 정도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경험을 조사하기 위해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 결과 2019년과 비교해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경험 정도는 소폭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남한문화를 ‘자주 접했다’는 응답은 2017년 47.4%에서 2020년 43.1%로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남한문화를 ‘한두 번 접했다’라는 응답도 2019년 44.0%에서 2020년 39.4%로 감소했다. 즉, 남한문화를 경험했다는 응답(자주 접함+한두 번 접함)은 2019년 91.4%에서 2020년 82.5%로 8.9%p 감소했다. 한편, ‘남한문화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응답은 2019년 8.6%에서 2020년 17.4%로 급증했다. 강화된 대북제재와 감소된 북중무역이 감소의 원인으로 보인다.

〈그림 3-3〉 남한문화에 대한 경험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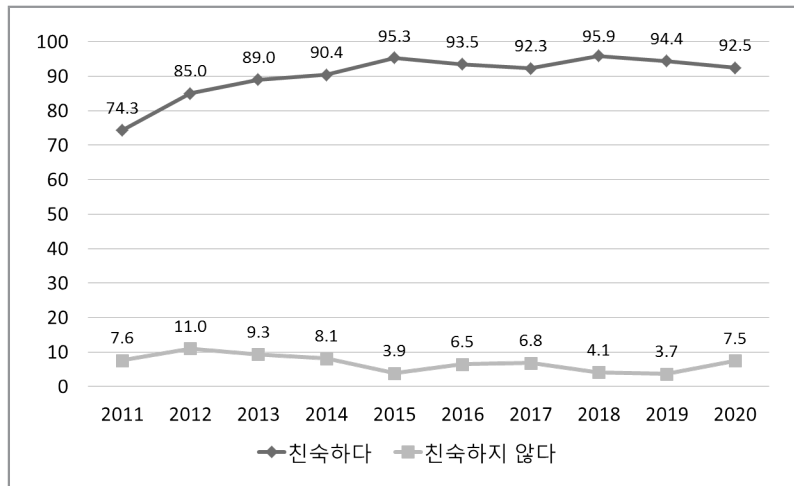


(2)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친숙도

남한문화를 경험해 봤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남한문화의 친숙함’에 관해 물었다. 그 결과 2019년 94.4%에서 2020년 92.5%로 ‘남한문화가 친숙했다(매우+약간)’는 응답률이 소폭 감소했다. 반면, ‘남한문화가 친숙하지 않았다’라는 응답은 2019년 3.7%에서 2020년 7.5%로 소폭 증가했다.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친숙도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되었지만, 친숙하다는 응답률이 90%, 친숙하지 않다는 응답률은 10%미만이다. 즉, 이번 조사에서도 북한주민이 남한문화를 경험했을 때 대부분 친숙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또 다시 드러냈다.

〈그림 3-4〉 남한문화에 대한 친숙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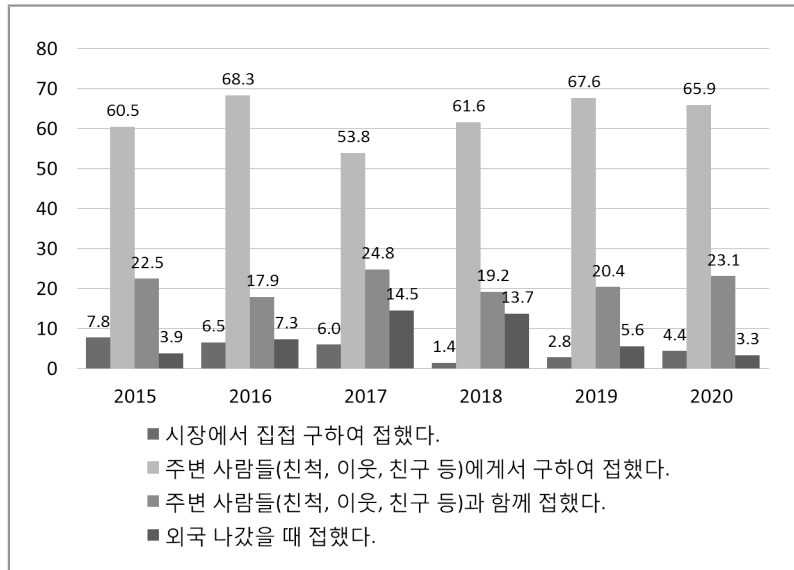


(3) 남한문화 유통경로

높은 남한문화 경험도를 보이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북한주민이 이를 어떤 경로로 접하는지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응답자에게 ‘시장에서 직접 구하여 접했다’, ‘주변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에게서 구하여 접했다’, ‘주변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과 함께 접했다’, ‘외국에 나갔을 때 접했다’라는 4가지 선택지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2020년 조사에서도 남한문화 유통경로 비중은 이전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 2019년 67.6%에서 2020년 65.9%로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주변사람(친척, 이웃, 친구 등)에게서 구해 접했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주변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과 함께 접했다’는 응답은 2019년 20.4%에서 2020년 23.1%로 소폭 증가하였다. ‘시장에서 직접 구해 접했다’는 응답도 2019년 2.8%에서 2020년 4.4%로 증가했고, ‘외국 나갔을 때 접했다’는 응답은 2019년 5.6%에서 2020년 3.3%로 감소했다. 여전히 강화된 사회통제와 대북제재로 주민들은 주변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로부터 은밀하게 남한 관련 자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5〉 남한문화의 유통경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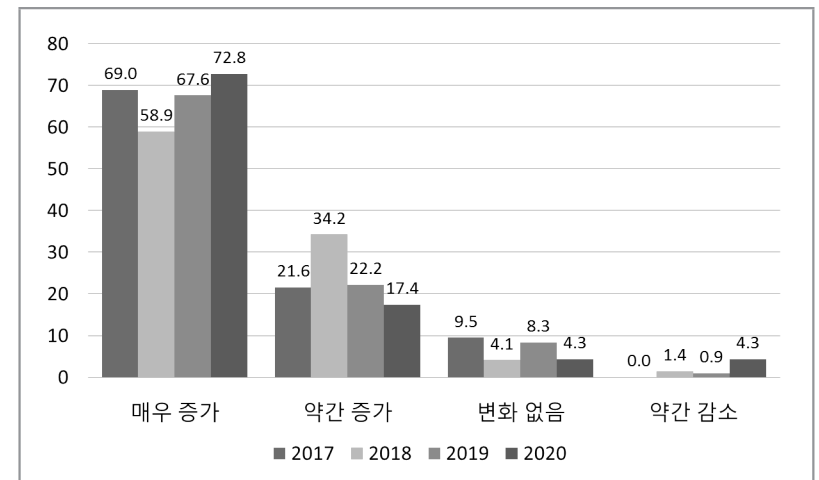
(4) 남한에 대한 북한주민의 호감도 변화

남한문화 친숙도가 높게 나오듯이 북한주민이 남한문화를 접한 후 남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진은 “남한문화를 접한 후 남한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변하였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남한문화를 접한 이후 남한에 관한 호감도가 변했다고 응답(매우 증가+약간 증가)한 북한주민은 2019년 89.9%에서 2020년 90.2%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남한의 호감도가 ‘매우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을 2019년 67.6%에서 2020년 72.8%로 5.2%p 상승했다. 반면, ‘약간 증가했

다’는 응답은 2019년 22.2%에서 2020년 17.4%로 4.8%p 감소했다. ‘변화 없다’는 응답도 2019년 8.3%에서 2020년 4.3%로 4%p 감소했다. 이처럼 약간의 변화는 있으나 응답률이 90%에 이른다 점에서 북한주민 대부분은 남한문화를 경험한 이후 남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이번 조사에서도 알 수 있었다.

〈그림 3-6〉 남한문화 접촉 후 남한에 대한 호감도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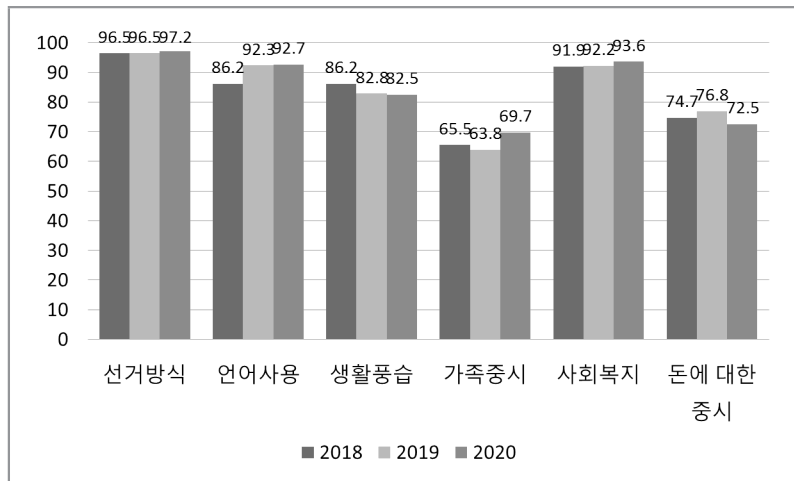
(5) 남북한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

앞서 조사에서 잘 나타나듯이,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는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토대인 주민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남북 교류 협력은 지속되지 못하고 있고, 이는 다시 악순환을 일으켜 남북한의 이질

성을 더욱 견고히 하고 있다. 매년 조사에서 반복되고 있듯이 이번 조사에서도 남북한 간에는 많은 이질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또 한 번 나타났다. 즉 변화는 있으나 남북한 간 커다란 이질성은 2019년도와 비교해 주목할 만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응답자들은 ‘선거방식(96.5% → 97.2%)’을 가장 큰 이질성으로 답변했다.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92.2% → 93.6%)’, 세 번째는 ‘언어사용(92.3% → 92.7%)’, 네 번째는 ‘생활풍습(82.5% → 82.5%)’, 다섯 번째는 ‘돈 중시(76.8% → 72.5%)’,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가족중시(63.8% → 69.7%)’ 순으로 이질성이 큰 것으로 응답했다.

〈그림 3-7〉 남북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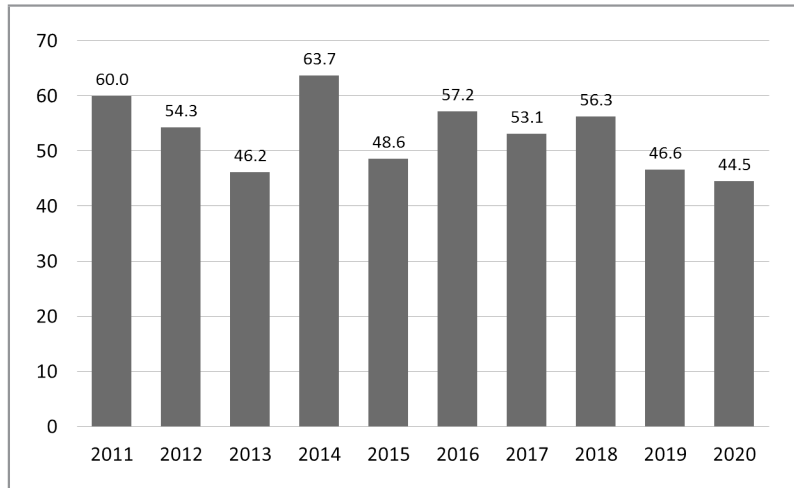
4. 북한주민의 북핵 및 대남 위협 인식

(1)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남한을 ‘적대대상’과 ‘경계대상’으로 보는 응답률이 낮아진 것과 더불어 ‘남한이 북한을 무력으로 침공할 것’이라는 북한주민의 대남 위협 인식도 2019년 46.6%에서 2020년 44.5%로 2.1%p 감소했다. 2019년 조사에서는 ‘적대대상’과 ‘경계대상’으로 보는 응답률이 다소 높아진 것과 달리 대남 위협 인식은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다. 2018의 개선된 남북관계가 2020년에 이르러서야 대남 인식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대남 위협인식이 낮아진 것은 남북관계 경색과 별도로 201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8년의 응답률을 보면, 2017년의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황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2015년 이후로 북한 주민의 대남 위협인식이 40~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이 북한에 무력도발 할 것이라는 인식은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8〉 남한의 대북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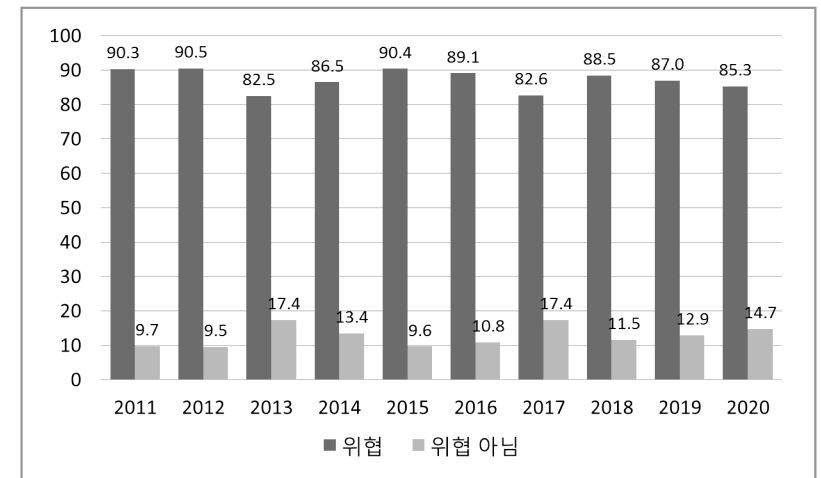
(2) 북한주민의 대남 북핵 위협 인식

기대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지만 2018년과 2019년 북미 간에 있었던 핵협상은 북핵에 관한 북한주민의 인식에도 변화를 이끌었다.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위협이라는 북한주민의 응답은 2019년 87.0%에서 2020년 85.3%로 소폭 감소했다. 2018년 남북관계 개선 상황과 북미 핵 협상 진행에도 불구하고 2019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전년대비 5.4%p 상승한 62.9%가 북한 핵무기가 남한에 ‘매우 위협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2020년 조사에서 ‘매우 위협이다’는 응답률은 전년대비 9.7%p 감소한 53.2%였다. 한편, ‘다소 위협이다’라는 응답률은 2018년 31.0%에서 2019년 24.1%

로 감소했던 것과 달리 2020년에는 32.1%로 8.0%p 증가했다. 반면, ‘위협이 아니다’라는 응답은 2019년 12.9%에서 2020년 14.7%로 1.8%p 증가했다. 변화는 있으나 조사 이래로 여전히 북한주민은 핵무기가 남한에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9〉 북한주민의 대남 북핵 위협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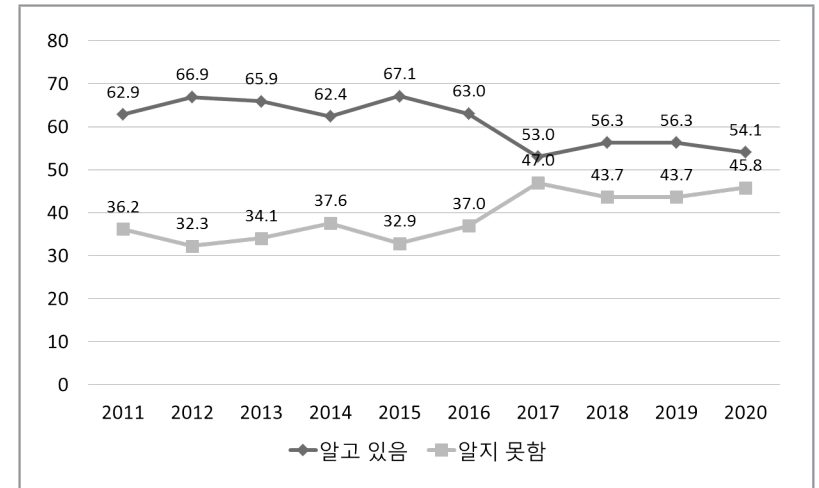
5. 남한의 대북지원 평가

(1) 남한의 대북지원 인지도

2018년 이후 남북 정상이 맺은 두 번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제약이 되었다. 결국 북한은 남북 정상 간 합의 불이행의 불만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표출했다. 이번 조사는 남북 교류협력이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주민 간 인식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게 해주었다. 노무현 정부 이후 남북한 교류협력이 급감했고, 2017년 이후부터는 사실상 추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대북지원을 알고 있다(매우+조금)고 응답한 북한주민의 응답률은 2019년 56.3%에서 2020년 54.1%로 증가했다. 반면, 알지 못한다(별로+전혀)고 응답한 비율은 2019년 43.7%에서 2020년 45.8%로 감소했다.

〈그림 3-10〉 대북지원 인식

(단위: %)



(2)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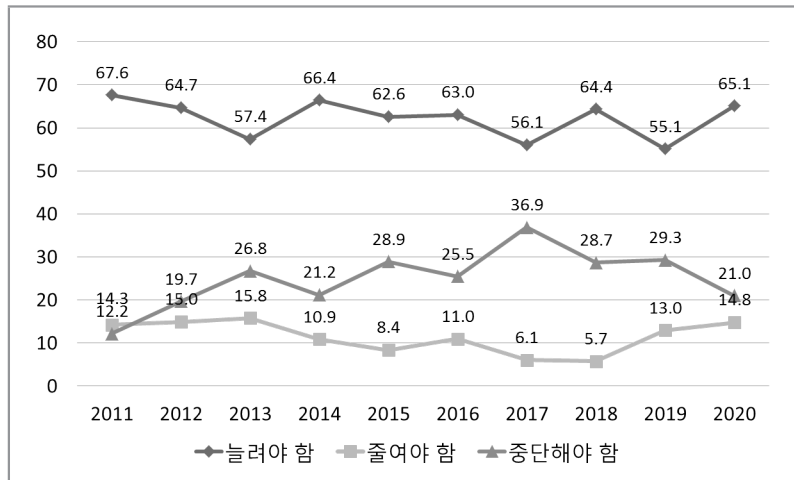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대북지원 인지도가 50%이상이라는 점에서 연구진은 북한주민이 대북지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조사하였다. 남한의 대북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019년 55.1%에서 2020년 65.1%로 10.0%p 증가했다. 한편,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2019년 13.0%에서 2020년 14.8%로 증가했다. 반면,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29.3%에서 2020년 21.0%로 감소했다.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률 증가와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률 감소는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본다는 응답률이 증가한 것과 같은 맥락에

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줄여야 한다'는 응답률이 증가한 것은 남북이 '협력을 해야 하는 관계'이지 '지원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또는 2018년과 2019년의 북한 경제 사정이 외부에 알려진 것만큼 나쁘지 않다는 것을 반영할 것일 수도 있다.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률은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2011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3-11〉 대북지원 규모 평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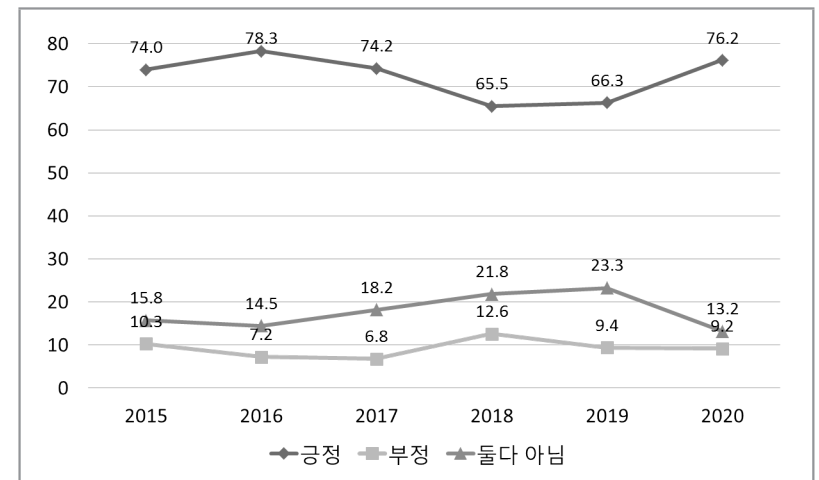


(3)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한 평가

북한주민의 절반 이상이 '남한이 대북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것과 같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응답자의 76.2%가 남한의 대북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대비 9.9%p 증가한 것이다. 반면, 부정적 평가는 9.4%에서 9.2%로 사실상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의견은 남북관계를 협력대상이라고 인식하면서도 사실상의 남북한 경제력 격차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2〉 남한의 대북지원 평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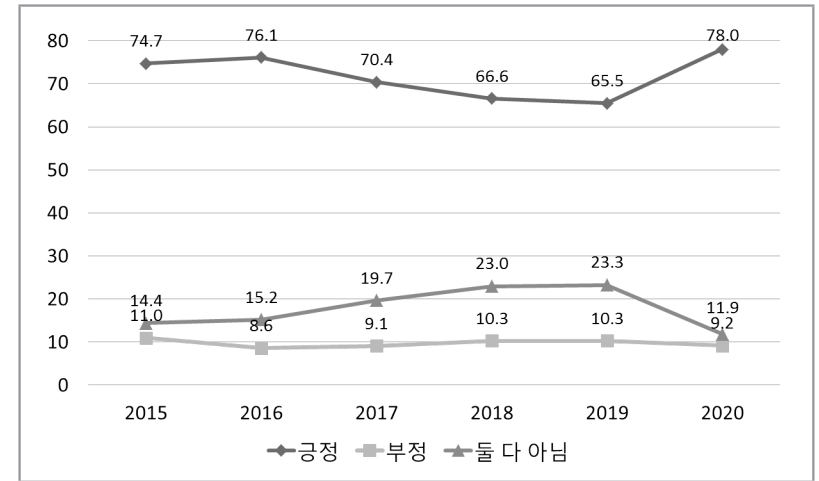


(4) 남한의 대북 경제 투자 평가

북한의 어려운 경제 사정은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북한은 이미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는 극단적인 식량난과 경제난을 경험한 바 있다. 북한 핵문제가 불거지면서 시작된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의 만성화된 경제난이 되었다. 북한 정권은 남북경제협력에 무엇보다 관심을 두고 있고, 2020년에 들어와 격화되기 시작한 대남 비난은 남북경협 불이행이 주된 원인이다. 북한 정권 즉 김정은 위원장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 발전 인식과 같이 조사에 따르면 북한주민 대다수도 남한의 대북 지원과 협력을 원하고 있다. 2020년 조사에서도 이러한 인식은 반복되었다. 남한의 대북 경제 투자에 관한 북한주민의 긍정평가는 2020년 78.0%로 전년대비 12.5%p 증가했고, 이는 2015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부정적 평가는 2019년 10.3%에서 2020년 9.2%로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의 경제난은 남한의 대북 경제 투자의 긍정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 3-13〉 남한의 대북 경제 투자에 대한 평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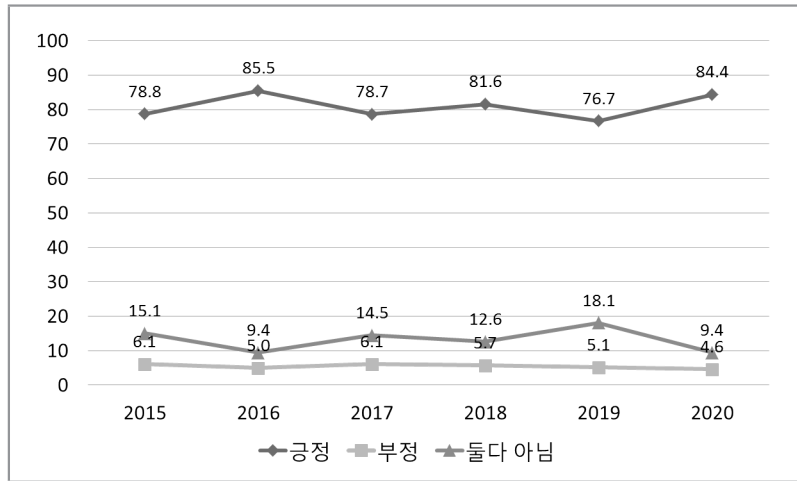


(5) 개성공단에 대한 평가

개성공단은 폐쇄 이후 대북제재로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남북한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한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지는 북한주민에게 개성공단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84.4%가 개성공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전년대비 7.7%p 증가한 것이다. 반면, 부정평가는 2019년 5.1%에서 2020년 4.6%로 감소하였고,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는 평가는 2019년 18.1%에서 2020년 9.4%로 감소하였다.

〈그림 3-14〉 개성공단에 대한 평가

(단위: %)



6. 소결

2020년 조사에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을 살펴 보기 위해 ‘대남인식’, ‘남한문화 인식’, ‘북핵 및 대남위협 인식’, ‘대북지원 평가’ 등으로 분류하였다. 2019년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으로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2018년 남북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2019년 조사에서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전년대비 8.6%p 감소했다. 반면 2019년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전년대비 13.3%p 상승한 62.3%였다. 남한을 적대대상으로 본다는 인

식도 전년대비 11%p 감소한 18.3%였다. 마찬가지로 남한을 경제대상으로 보는 인식도 전년대비 3.9%p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2018년의 남북관계 개선 상황이 뒤늦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작년에 기대했던 것과 반대로 올해 조사에서는 북한주민의 대남 위협인식도 낮아졌다. 전년대비 2.1%p 감소된 44.5%의 북한주민만 남한이 무력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80% 이상의 북한주민은 북한의 핵이 남한에 위협이 된다고 응답했다. 북한주민은 여전히 남북한 사회문화적 이질성이 크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남한문화에 관한 친숙도가 높았다. 특히 북한주민은 남북한 교류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매년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폐쇄에도 북한주민은 개성공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리하면, 이번 조사는 2018년의 남북관계 상황이 뒤늦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월 5일, 북한이 일찍부터 예고한 제8차 당대회가 개최되었다.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코로나19 상황과 지속되고 있는 대북제재, 미국의 정권 교체와 남북관계 중단 상황 등을 반영해 새로운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듯이, 2021년 조사에는 이러한 상황이 반영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어느 특정 행위자가 독점할 수 없다. 정부, 국민, 나아가 국제사회가 합심해야 한다. 우리가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통일정책, 대북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반대편에 살고 있는 회복해야 할 우리 민족의 대남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그들에 관한 편견을 줄이고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관계 개선의 간접 접촉이다.



제4장 **북한실태인식**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4장 북한실태 인식

|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

1. 서론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 북한은 하노이 북미회담의 결렬로 경색된 국제정세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교류가 완전히 단절되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보건의료가 취약한 북한은 코로나19 사태의 국내유입을 우려하여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2020년 1월 30일 전국에 방역본부를 설치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그로 인해 국경이 완전히 봉쇄되었으며 국경을 오가는 인적, 물적 교류가 전면 차단되었다.

북한은 침체되는 경제를 관광으로 활성화하려는 전략을 준비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북한당국은 작년 12월 말 당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대로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자력갱생에 의한 정면돌파전으로 경제발전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2020년 8월 19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6차 전원회의에서 “계획되었던 국가경제의 장성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

도 빚어졌다”고 자인한 바와 같이, 그러한 정책들이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불만과 비판을 받을 상황에 직면하였다.

북한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실패가 정치적 비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러 조치들을 취하였다. 코로나19로 민감해져 있던 북한은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살포에 항의하며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도발을 감행하였다. 북한이 취한 행동이 너무 극단적이어서 경제침체로 고조되는 주민불만의 타겟을 남한으로 돌리려는 전략이 아닌가 의구심을 받기도 하였다.

올해의 조사는 이처럼 북한의 경제침체의 지속과 코로나19로 국경이 완전히 봉쇄된 북한의 내부 정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 조사에 대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2020년 국내에 입국한 지 1년 안팎의 탈북민들로 2019년 북한에 살고 있을 당시의 실태를 물어본 것이어서 올해 상반기의 변화를 직접 반영하는 데까지는 미흡할 수 있다. 그러나 작년 한해 동안과 2020년 전반기에 일어난 최근 변화를 반영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조사 대상인 북한이탈주민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특히 최근에는 양강도 지역주민들이 다수를 차지하여 지역적 편향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 조사에서 총대상자 109명 중 77명이 양강도 출신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하며, 13.8%(15명)은 함경북도 출신이어서 양강도와 함경북도가 84.4%라는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가 북한전체를 대변하기보다 양강도와 함경북도 등 조중국경지대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의 인식이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편향성 때문에 2014년 한 기관이 단동에 나와 있던 주로 평양출신의 북한사람들을 대

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두 조사를 비교해 봐도 몇 항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 편향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전체 주민의식으로 보아도 크게 무리는 없을 듯하다.

주지하다시피 이 연구는 북한연구의 특성상 대상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최대한 북한의 최근 경험을 갖고 있는 1년 이내 탈북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간접조사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북한 실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모두 18개의 질문을 하였으며, 이 내용을 북한주민의 정치의식, 경제의식, 사회통제의식 등 세 범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를 통해 북한 체제와 사회에 대한 주민의 인식 및 태도를 평가하고 과거 조사와의 비교를 통해 추세를 파악하며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2. 북한주민의 정치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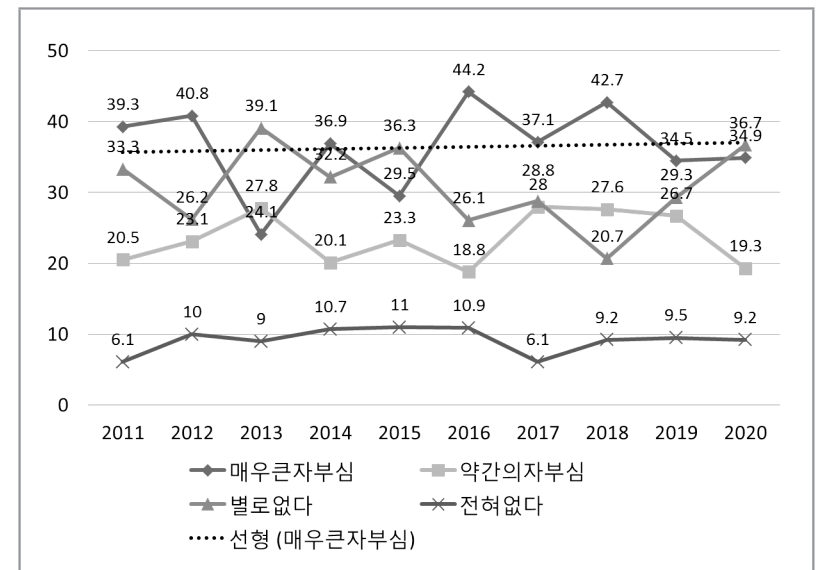
(1)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주체사상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을 조사, 평가하기 위해 연구진은 “북한주민들이 주체사상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으며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약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별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전혀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의 4가지 보기를 제시하였다.

〈그림 4-1〉에 나와 있듯이 2020년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은 54.2%가 ‘있다’(매우 큰 자부심 34.9%+약간의 자부심 19.3%)로 응답했고, 45.9%가 ‘없다’(별로 없다 36.7%+전혀 없다 9.2%)로 응답하여 ‘있다’가 ‘없다’보다 조금 우세하였다. 주체사상 자부심이 ‘별로 없다’는 응답이 36.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매우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가 34.9%, ‘약간 있다’ 19.3%이며, ‘전혀 없다’는 응답은 9.2%로 매우 적었다.

〈그림 4-1〉 주체사상 자부심

(단위: %)



지난해와 비교하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61.2% → 54.2%로 7.0%p 감소했다. 그런데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34.5% → 34.9%로 변화가 없고, ‘전혀 없다’는 사람도 9.5% → 9.2%로 작년과 같

있다. 그러나 ‘약간의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26.5% → 19.3%로 줄어든 반면,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람은 29.3% → 36.7%로 늘었다. 다시 말하면, 사상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크게 변화하지 않은 반면, 사상의식을 약하게 표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큰 변동이 발생한 것이다.

2011~2020년까지 10년의 추이를 보면 완만한 S자를 그리며 2013년 이후 상승했다가 2018년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김정은 집권 이후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조성되었던 2018년까지 주체사상 자부심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그 시기를 정점으로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 위상 강화와 정치선전에도 불구하고 정치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경제발전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대한 불만과 집권 9년차 상황에서 오는 정치적 피로감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주민의 정치의식이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년도의 조사 표본이 150명 정도로 많지 않고 지역적 편중이 심하여 2020년 조사만으로는 변수별 차이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변수별 분석은 지난 10년 조사를 통합하여 진행하였다. 그 결과 주체사상 자부심은 연령 및 직업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 4-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연령이 적을수록 주체사상 자부심이 높고 연령이 많을수록 자부심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체사상 자부심이 ‘있다’는 응답은 20대가 61.9%로 가장 높고, 30대(60.5%) > 40대(58.8%) > 50대(56.2%) > 60대이상(53.0%)의 순으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자부심을 갖고 있는 비율은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김정은 집권초기와 비교하면 세대별 의식변화에 의미 있는 현상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4-1> 연령별 주체사상 자부심(2011~2020)

(단위: 명, %)

주체사상 자부심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전체
자부심 있다	N	254	173	160	104	35	726
	%	61.9	60.5	58.8	56.2	53.0	59.6
자부심 없다	N	156	113	112	81	31	493
	%	38.1	39.5	41.2	43.8	47.0	40.4
합계	N	410	286	272	185	66	1,219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0.025

김정은 집권 초반이라 할 수 있는 2011~2015년 분석에서는 주체사상 자부심이 ‘있다’는 응답이 20대(59.0%) > 30대(56.1%) > 40대(53.5%) < 50대(60.5%) < 60대이상(62.5%) 등으로 40대를 최저점으로 하여 연령이 젊어질수록 자부심이 높아지고, 반대로 연령이 많아져도 자부심이 높아지는 U자형 포물선 모양의 의식지형을 형성하였다. 당시 40대 연령층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세대’로 불리는 집단으로, 극심한 식량난을 겪은 1990년대 중반 이후 100만명이라는 대규모 집단 아사 사태를 목격하며 2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젊은 시기를 보낸 청년들이다. 이들은 주체사상이나 김정은지지 등 북한의 정치사회 의식에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는 반면 남한에 대해서는 높은 호감을 갖고 있는 세대로 간주되었다. 2010년대의 이러한 분석이 김정은 집권 10년 후반기에 오면서 세대 간 의식변화가 진행된 것이다. 즉 젊은층의 사상의식은 강화된 반면 50대 이상의 장년·노년층은 약화된 것이다. 김정일-김정은으로의 정권교체기에 비교적 높

은 사상의식을 보여주었던 50~60대의 장년세대가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 사상의식이 달라진 것이다. '고난의 행군 세대'가 50대 연령층으로 진입하면서 세대별 의식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표 4-2〉 연령별 주체사상 자부심(2011-2015)

(단위: %)

주체사상 자부심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자부심 있다	59.0	56.1	53.5	60.5	62.5
자부심 없다	41.0	43.9	46.5	39.7	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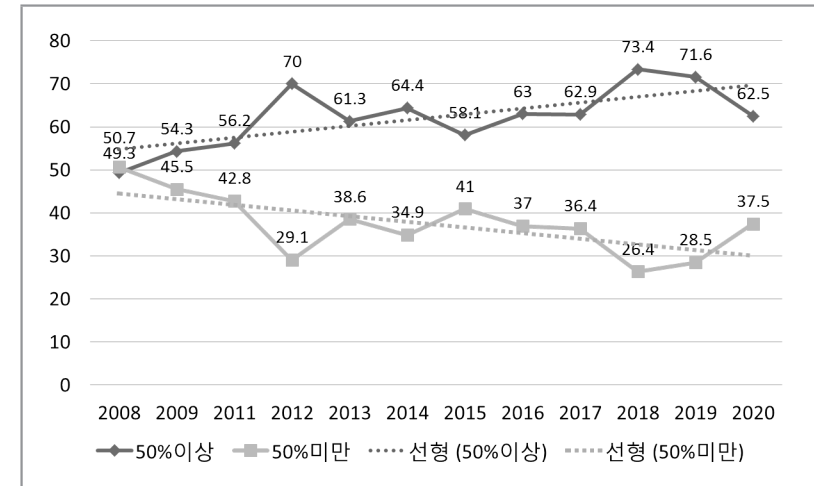
p=0.017

(2)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

북한주민들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에 대한 지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본 조사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했는가?”라는 질문을 하였고 10% 미만에서 90%이상까지로 9개의 보기를 제시하였다. 2020년의 결과를 보면 '90%이상'이라는 응답자가 23.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50%'(15.6%), '60%'(10.1%), '30%'(10.1), '10%미만'(10.1%) 등으로 응답하였다. 50%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아래의 〈그림 4-2〉에서 볼 수 있듯이 2018년 73.4%를 기록한 이후 지난 2년 동안 하락하였다.

〈그림 4-2〉 김정은 지지도

(단위: %)



김정은 집권 전 기간을 통해서 보는 추세는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2018년 73.4%로 정점을 찍은 후 최근 2년 동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지지도가 '90%이상'이라는 응답은 24.1% → 18.1% → 23.9%로 2018년의 지지율은 회복했지만 '80%', '70%', '50%' 등 높은 지지율 응답에서 하락한 반면, '10%미만', '20%' 등 낮은 지지율 응답에서는 증가하여 최근 2년 사이에는 지지도가 낮아졌다. 그러나 지지도가 하락하면서 '90%이상' 응답층은 늘어난 현상을 볼 때 김정은 정권의 지지도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지지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2011~2020년 자료의 변수별 분석을 하였다.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나는 현상은 세대별 지지도의 변화다. 즉 〈표 4-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대(71.1%) > 30대

(68.9%) > 50대(57.2%) > 40대(55.6%) > 60대이상(50.7%)로 연령이 낮을 수록 김정은 지지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40대가 50대보다 김정은 지지도에서 낮은 것도 특이하다.

〈표 4-3〉 연령별 김정은 지지도(2011-2020)

(단위: %)

김정은 지지도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50%이상 지지	71.1	68.9	55.6	57.2	50.7

김정은 지지도에서 40대(55.6%)가 50대(57.2%)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아래의 〈표 4-4〉에 나타난 것처럼 김정은 집권 초반에 전개된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 해당하는 2011~2015년 자료 분석에서는 40대 연령층을 최저점으로 하여 연령이 낮아질수록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연령이 높아져도 지지율이 높아지는 포물선 모양을 그린다. 앞의 주체사상 자부심 부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여기서도 '고난의 행군 세대'로 불리는 40대 연령층이 정치적 비판의식이 높고 대남 호감도가 높은 집단이다. 북한판 '386세대'라 할 수 있는 40대 연령층이 2010년대 전반에는 정치의식에서 차별성이 발견되었는데, 2010년대 후반부로 오면서 그러한 현상은 약화되었다. '고난의 행군 세대'가 50대로 진입하면서 그러한 현상이 약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점에서 앞으로 50대 연령층의 정치의식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4-4〉 연령별 김정은 지지도(2011-2015)

김정은 지지도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50%이상 지지	71.2%	66.2%	55.3%	59.8%	60.2%

김정은 집권 후반기의 가장 큰 변화는 '60대이상' 연령층에서 전반기와 달리 김정은 지지도가 크게 낮아진 것이다. 전반기에는 40대를 최저점으로 포물선을 그렸는데 후반기에는 60대이상의 연령층이 가장 낮은 지지도도를 기록하는 양상으로 바뀌었다. 60대이상의 노년층은 집권초반에 김정은을 지지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지를 철회하는 양상으로 변화한 것이다. 60대이상의 노년층이 김정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것이 10년간 세대별 지지율 변화의 특징이다.

김정은 지지도는 직업군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아래의 〈표 4-5〉에서 볼 수 있듯이 군인의 지지도는 73.8%로 높은 반면, 외화벌이 일군(48.1%)과 교원·의사·기술자 등 전문가(56.6%)와 사무원(58.7%) 직업군에서는 낮다. 군인의 경우에는 '90%이상' 지지도가 32.8%나 될 정도로 매우 높은 지지도도를 보이고 있다. 농민(66.3%)과 노동자(68.7%) 직업군은 중간 정도의 지지도도를 보인다.

〈표 4-5〉 직업별 김정은 지지도(2011-2020)

(단위: %)

김정은 지지도	직업								
	노동자	농민	사무원	전문가*	학생	군인	외화벌이 일군	장사	가정부인
50%이상 지지	68.7	66.3	58.7	56.8	62.6	73.8	48.1	61.0	64.7

*전문가는 교원, 의사, 기술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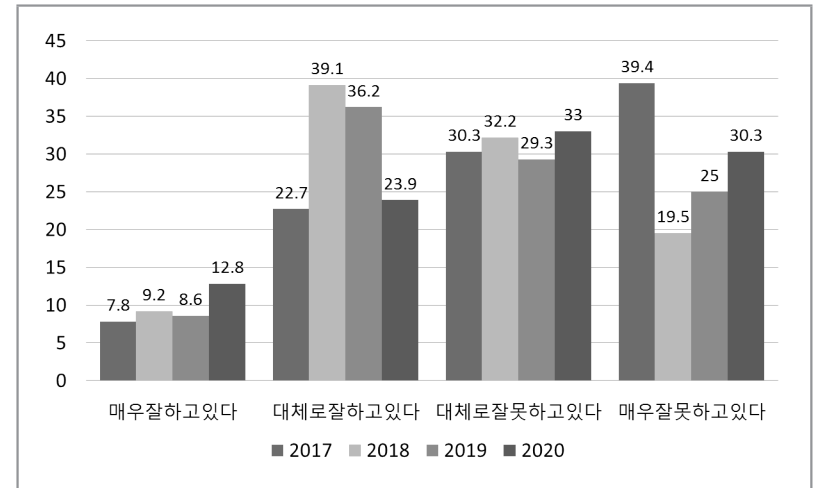
(3) 김정은 직무 평가

김정은 직무 평가 항목은 2017년부터 새로 도입하여 지난 3년 간 조사를 진행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수반으로써 직무를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의 4가지 보기를 제시하였다.

〈그림 4-3〉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20년 ‘잘하고 있다’는 평가(매우 + 대체로)는 36.7%(12.8% + 23.9%)로 ‘못하고 있다’는 평가(대체로 잘못 + 매우 잘못) 63.3%(33.0% + 30.3%)보다 26.6%p 낮았다. ‘잘못하고 있다’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보다 거의 2배가 많았다. 최근 2년의 흐름을 보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48.3% → 44.8% → 36.7%로 2018년 16.4%p 급상승한 후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여러 항목에서 2018년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형성되는데 2020년 하반기에 진행중인 ‘80일전투’의 성과와 2021년 1월 예정되어 있는 제8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과 같은 청사진이 제시되어 이러한 하락추세를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지 주시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 4-3〉 김정은 직무 평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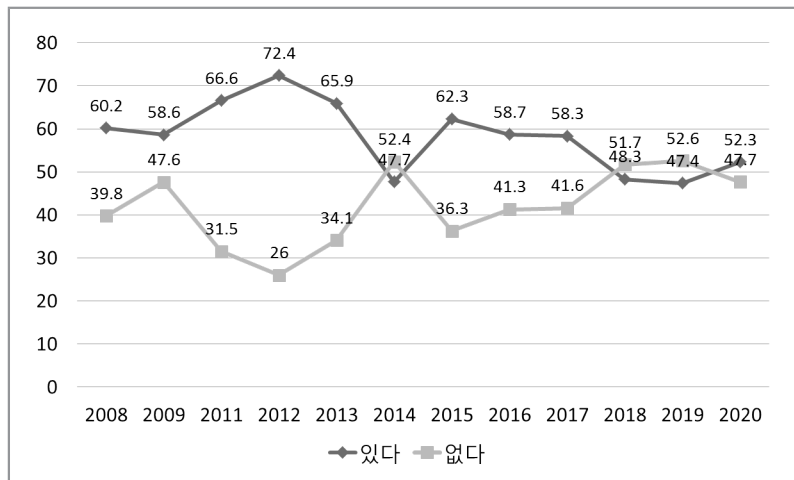
(4) 정부 비판행위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행위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진은 “북한의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 행위(낙서, 뼈라 등)가 얼마나 있었다고 생각하는가?”라 묻고, ‘매우 많다’, ‘약간 있다’, ‘대체로 없다’, ‘전혀 없다’의 4가지 보기를 제시하였다. 2020년 비판행위가 ‘있다’(52.3%)는 인식이 ‘없다’(47.7%)보다 4.6%p 높았다. 비판행위가 ‘없다’는 인식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치사회적 안정 추세에서 최근 1년 사이 비판행위가 소폭 증가하여 불안정 요인이 형성된 양상이다. 아래의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비판행위 응답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비판행위가 ‘약

간 있다'는 응답이 41.4% → 49.5%로 증가하여 소극적 비판에 머물고 있고, '매우 많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2.8%로 매우 적을 뿐 아니라 '전혀 없다'는 평가는 22.4% → 26.6%로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정치적 안정 분위기로 평가된다.

〈그림 4-4〉 정부 비판행위

(단위: %)



이처럼 전반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로는 김정은 집권 이후 주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내걸고 포전담당제와 기업책임관리제 등 농업과 산업 분야에서 자율성을 대폭 허용하여 지방산업 영역에서 시장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김정은 자신이 2020년 8월 19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6차 전원회의에서 “계획되었던 국가경제의 성장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러한 정책들이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함으로써 정부비판행위가 지난 1~2년 사이에 형성되는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실패가 정부비판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통해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에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20년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 기념열병식 공개연설에서 지난 몇 년 동안의 실패경험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고 말하며 이제 는 확실히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명하면서, 8차 당대회를 통해 “그 실현을 위한 방략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게 될 것이며 인민의 행복을 마련해 나가는 우리 당의 투쟁은 이제 새로운 단계에도 이행하게 될 것”이라며 희망과 기대를 갖도록 독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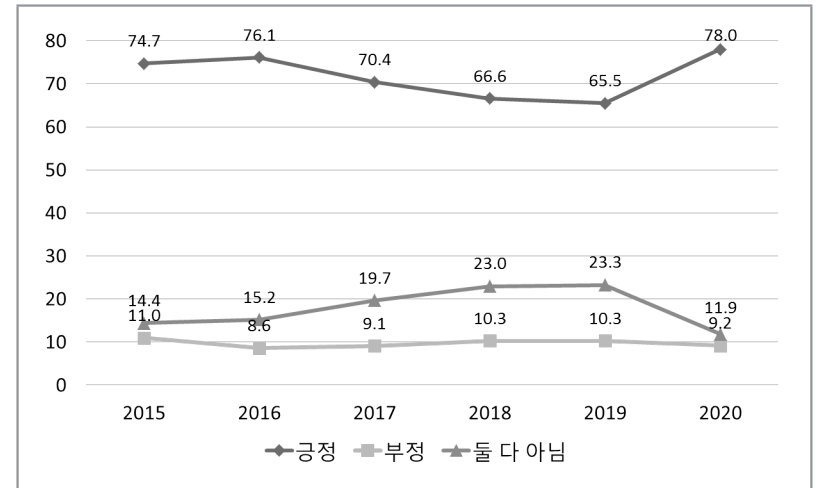
정부에 대한 비판행위는 지역(p=0.000)과 장사경험(p=0.005), 직업(p=0.000) 등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지역적으로는 평안 > 함경 > 양강 > 강원 > 자강의 순으로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에서 높고 양강도, 강원도, 자강도 등의 지역에서는 낮게 나왔다. 장사경험으로는 장사 무경험자보다 유경험자가 정부비판행위를 높게 보았고, 직업적으로는 외화별이 > 사무원 > 장사 > 학생 > 노동자 > 군인 > 농민 순으로 외화별이일군, 사무원, 장사 등의 직업군에서 높았고, 군인과 농민 직업군에서는 낮았다.

(5) 핵무기 보유 평가

“북한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견해에 어떻게 생각했는가?”란 질문에 ‘매우 찬성했다’, ‘다소 찬성했다’,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했다’, ‘매우 반대했다’의 5개 항목을 보기를 제시하였다. 2020년의 경우, ‘찬성’이 43.1%, ‘반대’가 16.6%, ‘반반/그저그렇다’가 40.4%로 찬성이 반대보다 2.5배 많았다. 전반적으로 핵보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유지하였다. 작년과 비교하면, ‘찬성’이 50.0% → 43.1%로 6.9%p 낮아졌고 ‘반대’도 24.1% → 16.6%로 7.5%p 낮아져 찬성과 반대다 동시에 감소되었다. 반면, ‘반반/그저그렇다’는 중간 응답은 25.9% → 40.4%로 급증했다. 찬성의 정도가 낮아졌으나 그렇다고 반대의견이 높아진 것은 아니어서 핵무기 보유에 대해 비판의식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신 그러한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간입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그림 4-5〉 핵무기 보유 평가

(단위: %)



지난 수년간의 변화를 보면 ‘찬성’이 50%대로 ‘반대’보다 약 2.5배가 많은 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2018년을 정점으로 찬성의견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9년에 ‘반대’ 분위기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추론컨대 2018년 6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등으로 핵보유 정당성의 논리가 다소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2019년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고 북한이 자력갱생에 의한 정면돌파를 선언하면서 반대입장을 철회하고 유보적 입장으로 관망하는 경향이 형성되어 향후 찬성의견이 반등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도 연령에 따른 견해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p=0.016). 20~40대는 ‘매우 찬성’ 의견이 각각 32.0%, 31.2%, 33.2%로 높은 반면, 60대 이상은 ‘매우 반대’가 28.7%로 가장 많았다. 50대는 ‘반반/

그저그렇다'는 중간 입장이 31.4%로 가장 많았다. 20~40대의 젊은층에서 핵무기 보유를 선호하는 반면 연령이 많을수록 핵무기 보유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였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다른 변수로는 성별과 당원여부였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찬성의견을 더 높게 피력했고 비당원보다 당원이 더 높은 찬성의견을 피력하였다.

〈표 4-6〉 연령별 핵무기 보유 견해(2011-2020)

(단위: 명, %)

핵무기 보유 견해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매우 찬성했다	N	94	64	62	32	8	260
	%	32.0	31.2	33.2	23.4	21.6	30.0
다소 찬성했다	N	69	35	39	26	4	175
	%	23.5	17.1	20.9	19.0	10.8	20.0
반반/그저그랬다	N	83	59	37	43	9	235
	%	28.2	28.8	19.8	31.4	24.3	27.1
다소 반대했다	N	19	18	17	14	5	75
	%	6.5%	8.8%	9.1%	10.2%	13.5%	8.6%
매우 반대했다	N	29	29	32	22	11	123
	%	9.9%	14.1%	17.1%	16.1%	29.7%	14.2%
합계	N	294	205	187	137	37	868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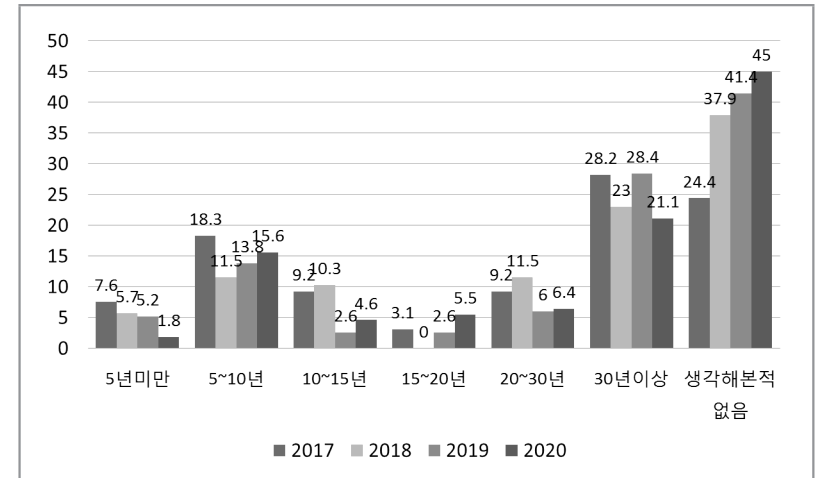
p=0.016

(6) 정권 유지 기간 예상

최근 4년의 변화 추이를 보면, 정권유지 예상 기간을 '생각해본 적 없다'는 응답이 24.4% → 37.9% → 41.4% → 45.0%로 가장 현격한 상승변화를 보였고, '5년 미만'에서는 7.6% → 5.7% → 5.2% → 1.8%로 단기붕괴 가능성은 현저히 하락하였다. 반면 '5~10년'의 중기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는 18.3% → 11.5% → 13.8% → 15.6%로 등락을 거듭하는 등 전반적으로 북한정권의 장기유지를 예상하였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지속되면서 초기의 불안정감이 다소 해소됨과 동시에 시장화의 진전으로 경제생활에 여념이 없다보니 북한정권의 붕괴와 같은 생각은 주민들 사이에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6〉 정권유지 예상 기간

(단위: %)



지난 3년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18년에 장기유지 예상 쪽으로 큰 폭의 변화가 있었고 2019년에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었다. 정권유지 예상 기간을 생각해본 적 없다는 응답이 24.4% → 37.9% → 41.4%로 가장 현격한 상승변화를 보였고, ‘5년 미만’(7.6% → 5.7% → 5.2%)과 ‘5-10년’(18.3% → 11.5% → 13.8%)이라는 단기에상과 ‘10-15년’(9.2% → 10.3% → 2.6%)이라는 중기에상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전반적으로 북한정권의 장기유지를 예상하였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지속되면서 초기의 불안정감이 다소 해소됨과 동시에 시장화의 진전으로 북한주민 스스로가 생존의 길을 모색함으로써 정권에 거는 기대심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북한주민의 경제의식

(1) 필요 월 소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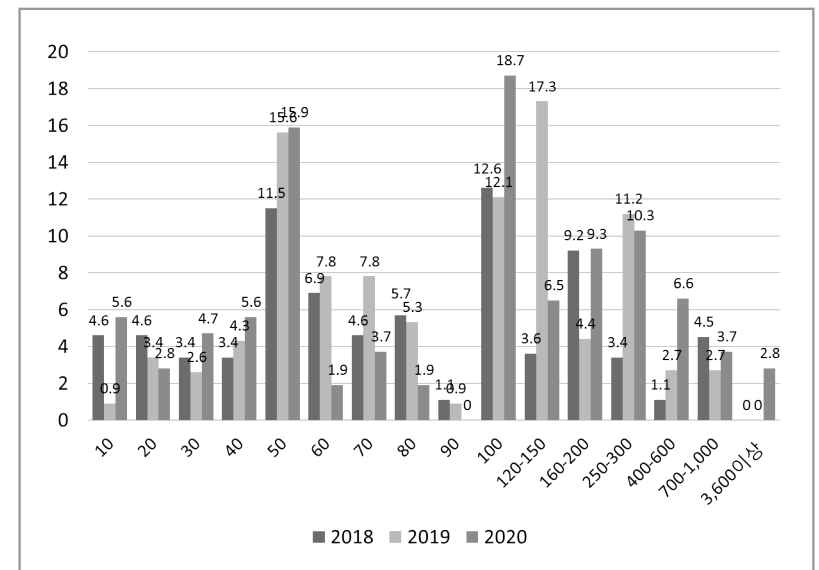
“가족이 만족할만한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월 생활비(월 소득)가 얼마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가?”의 질문에 조사대상인 북한이탈주민의 응답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월 소득 100만원으로 생각하는 응답자가 18.7%로 가장 많았고, 50만원(15.9%), 250~300만원(10.3%) 순으로 많았다. 작년에는 50만원의 응답자가 15.6%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응답자는 12.1%로 두 번째였는데, 금년에는 필요생활비가 100만원이라는 응답

자가 가장 많아졌다. 또 50만원이라는 응답은 작년과 비슷하데 100만원이라는 응답은 12.1% → 18.7%로 경총 뛰었다. 1년 사이에 기대소득이 높아졌다는 것은 생계에 필요한 생활비가 그만큼 더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생활에 필요한 소득은 10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응답이 늘고 있는 반면, 100만원 이상의 응답자들 중에도 400~600만원 및 그 이상의 소득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늘었다. 심지어 3,6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올해 처음으로 2.8%가 형성되었다.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고소득자가 늘어나 소득의 기대수준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7〉 기대 소득 수준

(단위: %, 만원)



이처럼 기대소득 수준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큰데 북한의 경우에는 시장의 가격이 큰 변동이 없고 환율도 1달러 당 8,100원 선으로 안정되어 있다. 2013년 이후 이러한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외화통용 현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⁶ 환율과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필요 소득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으며,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주민들의 기대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직장 내 생산규율

직장 내 생산규율은 북한 기업이 노동자들이 기업이나 공장에서 실제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력과 직장 바깥에 나가 각종 시장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실제 기업 및 공장 가동율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항목이다. “직장에서 생산규율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는가?”라는 연구진의 질문에는 ‘거의 대부분 지켜지고 있다’, ‘대체로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대체로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거의 대부분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의 4가지 항목의 보기가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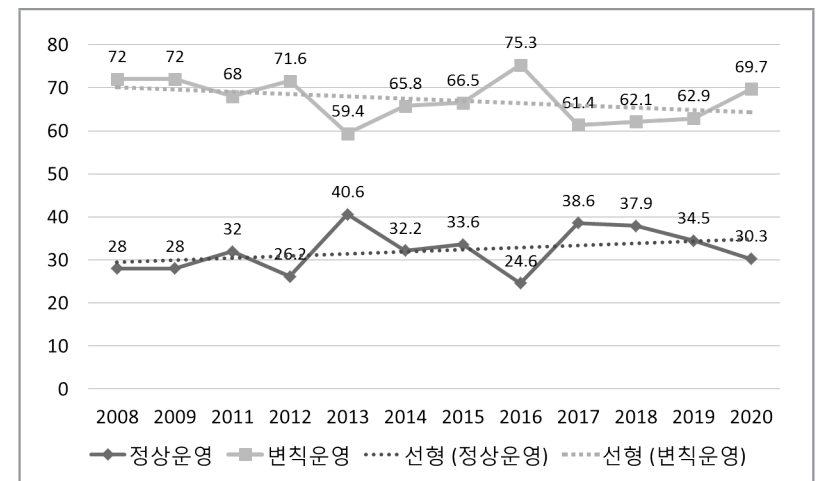
그림 <4-8>는 직장에서 생산규율을 ‘지킨다’는 항목이 ‘변칙적으로 운영된다’에 비하여 낮다. 대부분 ‘지켜지고 있다’가 30.3%(4.6%+25.7%)인 반면,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69.7%(33.0%+36.7%)로 나타났다. 생

⁶ 이 김규철, “김정은 시대 북한의 거시경제 추세, 단절인가 지속인가?,” 『KDI북한경제리뷰』(2019.9), p. 22.

산규율이 지켜진다는 의미는 직장의 노동자들이 직장 안에서 생산에 참여하는 비율을 말하므로 변칙적으로 운영된다는 의미는 그 인원만큼 직장 바깥에서 작업을 수행하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소득증대를 위해 직장 바깥에서 시장활동에 필요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노동의 유연성 증대에 따른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생산규율이 지켜지는 비율을 직장과 공장의 가동률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런 관점에서 2020년 생산가동률은 30%라는 의미이며 샘플오류를 감안하여 해석하면 30~50%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8> 직장 내 생산규율

(단위: %)



시계열로 보면 2017년 정상운영의 비율이 상승한 후 하락추세에 있으며 2016년 7차 당대회를 대비하여 생산규율이 강화된 후 이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7년 이후 소폭으로 변칙운영이 커지고 있다. 3년

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정상운영과 변칙운영이 3 대 7 혹은 4 대 6 정도로 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가 어느 정도 정착된 것 같다. 직장 내 생산규율에 대한 평가는 교육(p=0.001), 장사경험(p=0.000), 남한친척유무(p=0.000), 직업(p=0.000), 연령(p=0.013)에 따라 응답의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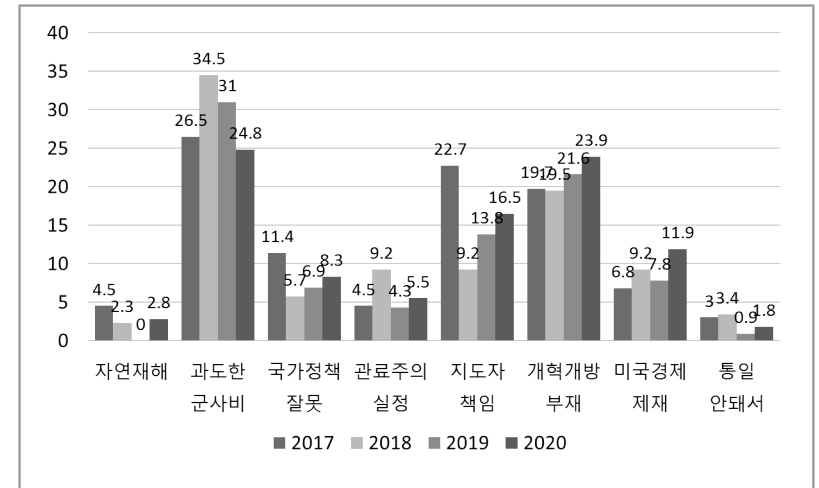
(3) 경제 악화 원인

경제 악화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진은 “북한의 경제가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했는가?” 의 질문에 ‘자연 재해로 식량생산이 안되어’, ‘과다한 군사비 지출 때문에’, ‘국가의 정책이 잘못되어서’, ‘간부들의 관료주의 때문에’, ‘지도자(김정일, 김정은) 때문에’,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서’,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에’, ‘통일이 되지 않아서’, ‘기타’의 9개 항목으로 보기를 제시하였다.

올해의 조사결과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군사비지출’이 24.8%로 가장 많았으나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서’도 23.9%로 많았고 ‘지도자 책임’은 16.5%는 그 다음으로 많았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북한의 경제가 어렵게 된 원인을 군사비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현실을 가장 많이 꼽았으나, ‘과다한 군사비’ 이유는 줄어든 반면,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꾸준히 늘었다. 2년간 군사비지출은 34.5% → 31.0% → 24.8%로 줄었고, 지도자 책임은 9.2% → 13.8% → 16.5%로 증가하였다. 2018년을 기점으로 군사비 지출 이유는 감소하고 지도자 책임과 개혁개방 부재 때문에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상승하고 있다.

〈그림 4-9〉 경제 악화 원인

(단위: %)



흥미로운 대목은 ‘미국의 경제제재’ 항목인데, 한편으로 미국의 대북 제재 때문이라는 이유가 생각보다 적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에는 그럼에도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의 경제제재가 11.9%로 높은 편이 아니며 지난 10년 기간 동안 10% 미만에 머물렀다는 것은 매우 특이하다. 북한당국이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를 미국의 제재 때문이라고 열을 올려 선전하고 있고 실제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강력히 요구할 만큼 북한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의외의 결과다. 그것은 주민들이 미국의 대북제재에도 끄떡없이 경제를 유지해 왔고 또 지탱할 수 있다는 북한당국의 선전에 오랫동안 의식화되어 미국의 대북제재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의 대북제재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의식이 6.8% → 9.2% → 7.8% → 11.9%로 늘고 있는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6년부터 미국의 대북제재가 행정명령에서 법으로 시행되었고 강도 높게 이루어지면서 정권차원만이 아니라 일반주민들도 생활현장에서 대북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제악화의 원인에 대한 인식은 직업(p=0.000)과 교육(p=0.000)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경제악화의 원인이 개혁개방 때문이라는 응답을 보면 사무원과 장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높고, 과도한 군사비 때문이라는 인식은 군인과 학생, 사무원, 전문가 직군에서 높다. 관료주의 때문이라는 응답은 농민에서 높고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이라는 응답은 군인과 외화벌이 일꾼의 직군에서 높다. 또 과도한 군사비 지출 때문이라는 응답은 인민학교 > 전문대 > 고등중 > 대학 순으로 인민학교 졸업자에서 높고 대학졸업자 집단에서 낮으며, 지도자 때문이라는 응답은 대학 > 고등중 > 전문대 > 인민학교 순으로, 개혁개방 부재 때문이라는 응답은 대학 > 전문대 > 고등중 > 인민학교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지도자 때문이라거나 개혁개방 부재 때문이라는 비판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경제체제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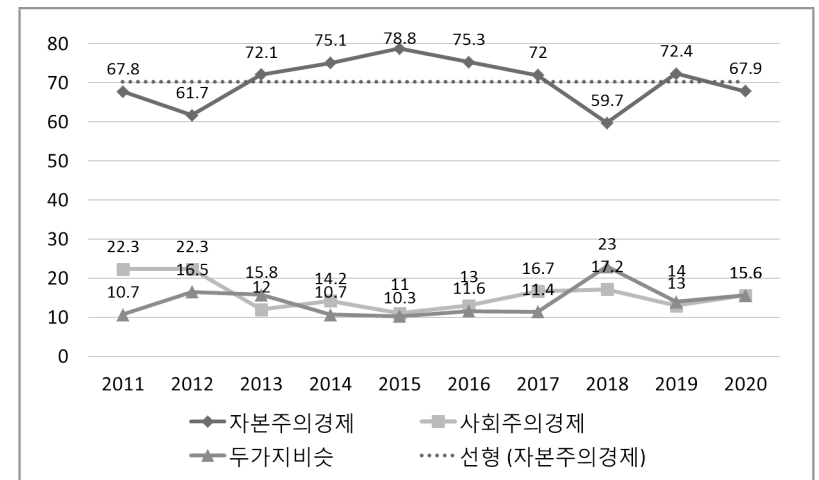
“사회주의 경제(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시장경제, 개인소유경제) 중 어느 것을 더 지지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사회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

지했다’, ‘사회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했다’, ‘두 가지 모두를 비슷하게 지지했다’, ‘자본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했다’, ‘자본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했다’의 다섯 가지 보기가 제시되었다.

우선, ‘자본주의 경제를 지지한다’가 ‘사회주의 경제를 지지한다’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2020년의 경우, 자본주의 경제를 지지한다는 67.9%로 사회주의 경제를 지지한다 15.6%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는 시장화의 진전으로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작년과 비교하여 보면 사회주의 경제 지지 응답은 13.0% → 15.6%로 소폭 증가하였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지지는 2015년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 반등한 후 재차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4-10〉 경제체제 선호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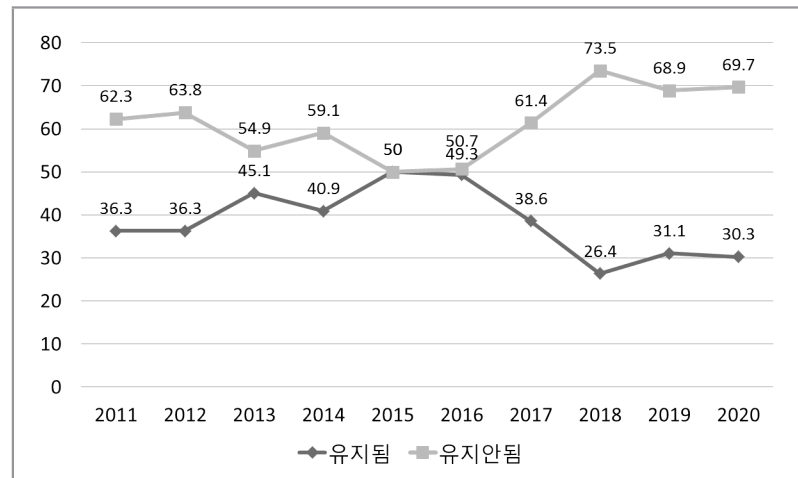
4. 북한주민의 사회통제에 대한 인식

(1) 사회통제 유지

“공안기관에 의한 사회통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했는가?”의 질문에는 응답자들에게 ‘매우 잘 유지되고 있다’, ‘대체로 잘 유지되었다’, ‘별로 잘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전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의 네 문항으로 보기를 제시했다. 조사결과, 공안기관에 의한 사회통제 정도는 ‘유지되고 있다’ 30.3%, ‘유지되지 않고 있다’ 69.7%로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2배 이상 많았으며,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반적으로 사회통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인식은 2015~2016년 50.0%로 상승을 하였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11〉 사회통제 유지

(단위: %)



사회통제의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 집권 이후 제7차 당대회가 있던 2016년까지 통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가 2016년 이후 통제가 급격히 이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지역차원에서 주민들의 경제생활에 시장원리가 적용되어 시장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사회통제가 완화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혹은 그러한 시장 활동이 일상화되어 실제 주민들의 생활에서 기존의 사회통제가 잘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 2020년 10월 당창건 75주년을 계기로 ‘80일전투’에 돌입하여 동원체제가 작동하고 있고, 또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 준비를 위해 주민동원과 통제를 강화하면 사회통제 인식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생활총화 출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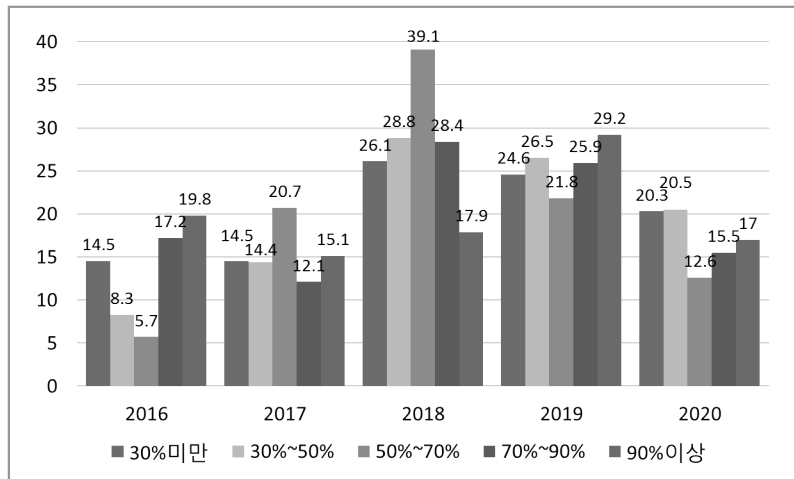
생활총화는 단순히 ‘주간 생활을 총화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각종 강연회, 학습회 등 국가주도의 교육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총화 출석률은 국가의 의도를 주민에게 해설하고 정부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고 주민을 결속시키기 위한 각종 정치행사의 참여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직장 내 생산규율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직장 내 생산 활동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북한주민들의 주간 생활총화 출석률은 어느 정도였는가?”란 질문에 ‘70%이상’이라는 응답은 90%이상 17%, 70~90% 29.2%를 합하여 44.9%이며, ‘50~70%’로 응답한 17.9%까지 포함하면 ‘50%이상’으로 응답한 비

율은 64.2%이다. 지난 1년 간 '50~70%'는 39.1% → 28.4% → 19.3%로 19.8%p 감소한 반면, '70~90%'은 21.8% → 25.9% → 28.4%, '90%이상'은 12.6% → 15.5% → 16.5%로 증가하였다. '30%미만'도 5.7% → 17.2% → 20.2%로 급상승하여 생활총화 동원에서 이원화 현상이 나타났다. 즉 생활총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석한 사람들이 많아짐과 동시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졌다는 얘기다. 한편으로는 조직생활을 강화하여 참여 가능한 사람들의 생활총화가 활발해진 반면, 장사 등 여러 필요한 활동으로 생활총화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음을 보여준다. 생활총화 출석률(p=0.007)은 당원 > 비당원 > 후보당원의 순으로 비당원보다는 당원의 출석률이 더 높게 나왔다.

〈그림 4-12〉 생활총화 출석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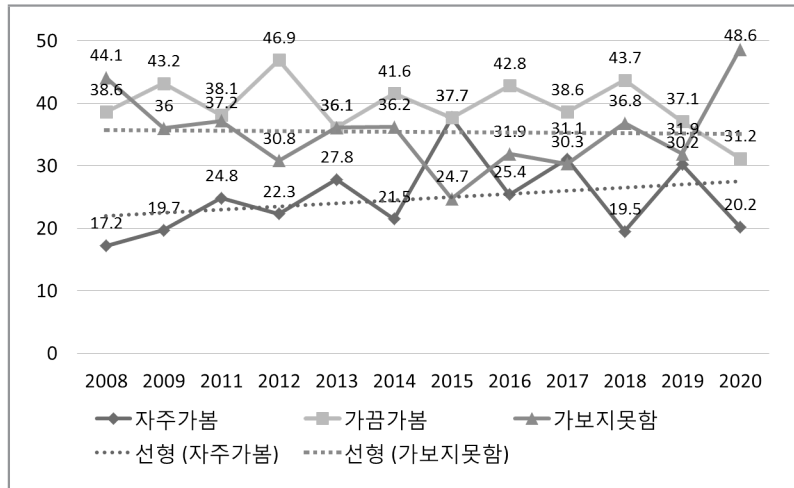
(3) 지리적 이동

주민들의 지리적 유동성을 알아보기 위해 “얼마나 자주 다른 지역(다른 군, 시, 도, 외국)에 가 보셨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 2020년에 지역 간 방문 횟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에 거의 가보지 못했다”는 응답이 지난 1년 사이에 31.9% → 48.1%로 크게 늘어난 반면, “자주 가보았다”와 “가끔 가보았다”는 응답은 30.2% → 20.8%, 37.1% → 31.1%로 각각 줄었다. 그 결과 주민유동성은 67.3% → 51.6%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4-13〉에서 볼 수 있듯이 2015년 이후 ‘거의 가보지 못했다’는 응답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지역 간 이동이 계속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간 이동을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음에도 다른 지역에 ‘전혀 가보지 못했다’는 응답이 31.9% → 48.9%로 높아진 것을 해석하기 쉽지 않다. 하나는 지역 내 시장이 활성화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지역 내에서 장사를 하고 상품을 충분히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북한경제가 지난 1~2년간 성장하지 않았고 주민들의 실질소득도 감소한 상황이어서 그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은가 생각된다. 다른 하나는 각종 정치행사와 건설사업, 농촌동원 등으로 주민이동이 실질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주민들의 생활총화 참여율이 높아진 현상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림 4-13〉 타 지역 방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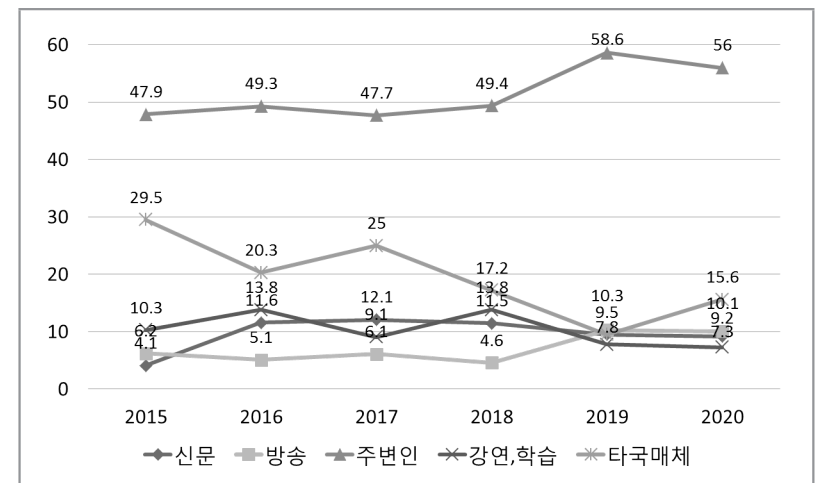
다른 지역 방문 경험은 교육수준(p=0.000)과 당원여부(p=0.000), 장사경험, 친인척 유무, 연령 등의 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자주 가보았다’는 응답은 대학(41.9%) > 전문대(26.7%) > 고등중(23.9%) > 인민학교(21.7%)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타지역 이동경험이 많고, 당원여부에 따라서는 후보당원(50.0%) > 당원(41.2%) > 비당원(23.7%) 순으로 비당원보다는 당원이, 당원보다는 후보당원이 타지역 이동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외부소식 접촉 경로

“외부소식을 주로 어디서 들었는가?”의 질문에 조선신문(로동신문), ‘조선방송’, ‘주변사람(친척, 이웃, 친구 등), ‘강연, 학습’, ‘남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매체(방송, 통신, 뼈라 등)’의 항목이 보기로 제시되었고, ‘주변인’을 통한 외부접촉이 56.0%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주민들이 친척, 이웃, 친구 등을 통해 바깥세상을 알아가고 있는 반면, 신문·방송 등을 통한 접촉은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그림 4-14〉 외부소식 접촉 경로

(단위: %)



‘주변인’을 통한 외부소식 접촉은 지난 1년 동안 58.6%에서 56.0%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북한의 신문과 방송을 통해 외부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19.3%로 많이 제한되어 있으며 ‘강연 및 학습’을 통한 접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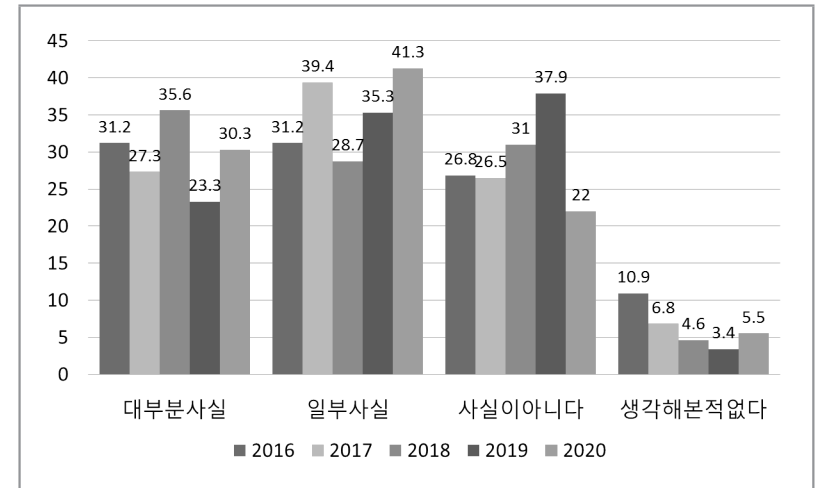
7.3%로 많지 않다. 타국매체는 주로 남한의 방송이나 빼라 등을 통한 소식의 접촉인데, 타국매체를 통해 외국소식을 접촉했다는 응답이 9.5% → 15.6%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타국매체 접촉은 2015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0년 남한 시민단체의 대북전단살포 문제로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1년간 남한방송 및 빼라 등의 매체 접촉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5) 언론에 대한 신뢰도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의 보도가 얼마나 사실이라고 생각했는가?”란 질문에 응답자들은 ‘대부분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일부만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생각해 본 적 없다’의 4가지 보기 중에서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2019년의 경우, ‘대부분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23.3%, ‘일부만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35.3%로 총 58.6%가 신문이나 방송의 보도를 어느 정도 사실로 생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는 사람도 37.9%로 많았다.

〈그림 4-15〉 언론에 대한 신뢰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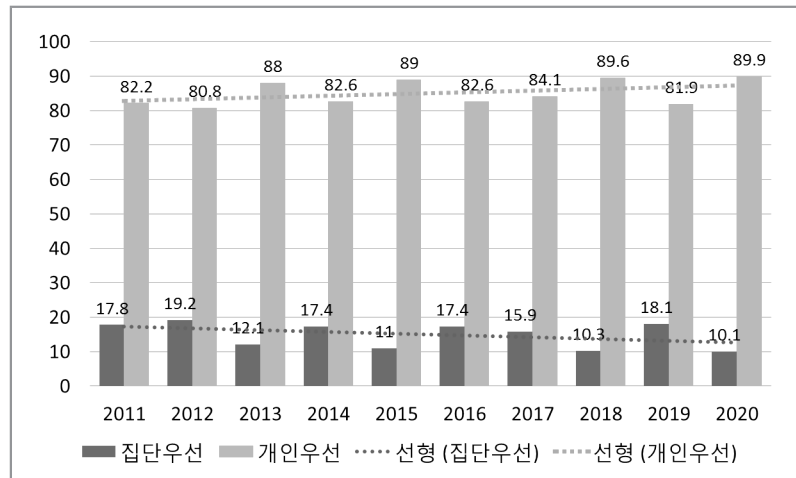
지난 1년 동안을 비교해 보면, 구체적으로 ‘대부분 사실’이라고 믿는 인식은 2019년 23.3%에서 2020년 30.3%로 증가했고 ‘일부 사실’이라고 믿는 인식도 35.3%에서 41.3%로 상승하였다. 신문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을 사실이라고 믿는 인식의 정도가 한층 강화된 것이다. 반면,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 인식은 37.9%에서 22.0%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북중정상 회담을 비롯하여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북러정상회담 등의 대외 관계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하고 또 코로나19 등 세계보건의료 현황을 많이 보도함으로써 북한의 신문과 방송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6) 집단과 개인 우선순위

“일상생활에서 집단과 나(또는 가족) 중에서 무엇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는가?”의 질문에는 ‘집단이 훨씬 더 우선이다’, ‘집단이 조금 더 우선이다’, ‘나(또는 가족)이 훨씬 더 우선이다’, ‘나(또는 가족)이 조금 더 우선이다’의 4가지 보기가 제시되었다. 먼저, ‘개인’을 중시하는 태도는 2019년 81.9%에서 2020년 89.9%로 높아졌고, ‘집단’을 중시하는 태도는 18.1%에서 2020년 10.1%로 떨어졌다. 8 대 2 혹은 9 대 1 정도로 개인주의가 집단주의보다 우세한 추세 속에서 지난 1년 동안 개인주의가 조금 더 강화된 경향을 보였다. 지난 1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개인주의 경향이 우세하였다.

〈그림 4-16〉 집단과 개인 우선순위

(단위: %)



이는 북한이 집단주의를 계속 강조하고 생활총화 참여 등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과는 별개로 개인을 중시하는 가치관과 태도는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현실은 1992년까지 북한헌법에 명시했던 ‘집단주의’를 1998년 개정헌법에서 삭제하고 완화된 문장으로 수정하였다. 즉 1992년 헌법 82조에 있던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다”라는 문장을 삭제하고, 뒷부분에 서술되어 있던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라는 부분만 남겨두었다. 물론 헌법 63조에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라는 조항은 여전히 명시하고 있어서 집단주의를 폐기한 것은 아니나, 집단주의가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라는 부분을 삭제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집단주의가 약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는 2009년 개정헌법에서 ‘공산주의’를 삭제함으로써 또 한 번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이처럼 집단주의와 관련된 이러한 변화를 시도한 것은 그만큼 집단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5. 소결

2020년 북한주민 의식 지형은 김정은 집권 이후 안정되어 가던 추세
가 2018년을 기점으로 꺾이는 현상이 지속되었다. 정치외식에서는 주체사
상 자부심과 김정은 지지도, 김정은 직무평가, 핵무기 보유평가 등이 하락
하고 정부비판행위가 많아졌다. 경제외식은 시장 활성화에 따라 생산규율
이 약화되고 개혁개방 기대심리가 고조되었다. 필요 월 생활비는 100만원
정도로 늘어났으며 50만원 이하와 200만원 이상에서 동시에 증가하여 기
대소득의 이원화가 진행되었다. 소득증대를 위해 직장 바깥 시장 활동에
필요한 노동력 참여 및 노동유연성 증대로 직장 내 생산규율이 약화되었
고 기업생산 가동률 50%에서 30%까지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외식
에서는 통제가 전년과 비슷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주민유동성이 감소하고
총화출석율이 증가하였으며 대내보도 신뢰가 증가하였다.

2018년을 기점으로 북한주민의 의식지형이 달라진 이유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2017년에 조성된 한반도 위기에 영향을 받았을 가
능성이다. 일반적으로 대외적 위기가 고조되면 대내결속이 강화되는 경향
이 있는 바, 한반도의 전쟁위기로 치달았던 2017년의 상황에서 북한주민
들의 정치사회 의식과 정권지지가 최고조로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정치사회 의식에서 이완되는 흐
름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는 북한 내부의 경제상황이 정치사회 의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
성이다. 사실 북한주민들은 미국의 대북제재나 전쟁위협에 남한만큼 민감
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대외적 위기 요인보다는 내부 경제상황이 더 직

접적으로 의식변화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집권 이후 주민의
경제생활 향상을 목표로 희망과 기대감을 고조시켰고 2016년 5월 36년만
에 개최한 제7차 당대회를 계기로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을 발표하면서
주민들의 기대는 한층 고조되었다. 그 희망과 기대가 그 다음해인 2017년
까지 이어졌으나 내부자원의 고갈과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2018년부터 가
라앉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향이 2019년에 반영되어 현재의 추세
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변화가 개혁개방의 기대심리를 고조시
키는 한편, 정치적 비판의식을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주변각국
과 정상회담을 통해 대외 위상을 강화하고 정치선전에 적극 나서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풀지 못하는 경제문제 때문에 집권 9년차의 피로감
을 북한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체사상에 대해 매우 큰 자
부심을 갖는 강성파의 비중이 달라지지 않고 정치적 비판도 소극적 행위
에 머물며 건설프로젝트 동원 등으로 실질적인 사회통제 효과가 작용하여
전반적으로 정치사회적 안정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주민의 의식은 연령과 직업에 따른 차이가 확연하게 존재하였다.
젊은층일수록 주체사상 자부심이 강하고 김정은 지지도가 높아 젊은층일
수록 정치사상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집권 초반과 비교하
면 후반에 올수록 60대이상 노년층의 사상의식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되었
다. 직업별로는 군인·노동자·농민 군에서 높고, 사무원·전문가·외화
별이 일군에서 낮았으며 상인·학생은 중간을 형성하였다. 그 외에도 지
역과 교육, 당원여부, 장사여부, 남한내 친인척유무, 성별 등의 변수는 부
분적으로 관련성이 있었으나 주민의식 전반에 뚜렷한 차이로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조사는 김정은 집권 9년차의 시점에서 정치외식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개혁개방외식이 커졌으나 사회통제의 실질적 강화로 정치사회적 안정 기조를 유지하였다. 이런 추세로 본다면 2021년에도 김정은 집권 10년차에서 오는 피로감으로 올해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2021년 1월 개최된 8차 당대회를 계기로 반전의 계기가 형성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했던 경제계획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음을 자인했으나, 당창건 75주년 연설에서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잘 알게 되었다며 자신감을 표명하였다. 따라서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며 주민설득을 시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경제발전 청사진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제5장 주변국
관계인식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5장 주변국 관계인식⁷

|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1. 서론

2019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악화되었다. 2019년 2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후, 양측은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하여 노력했다. 양국 정상간 친서 교환,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회동, 실무회담 유지 제의 등으로 파국을 막으려 했다. 접점을 모색하기 위한 양측의 노력이 역설적으로 양측간 입장 차이를 확연하게 드러냈고, 북한은 10월 5일 실무회담 결렬을 선언했다.⁸ 북한은 미국의 입장에 따라 크리스마스 선물이 달라질 수 있다고 위협하기까지 했다.⁹ 북한이 험한 언사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북미관계는 악화되었다. 위기 국면으로까지 진행되지 않았지만,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점차 자리를 잃었다.

7] 이 글은 참고(조동준, 2020, “제5장 주변국 관계 인식,” 김학재 외, 『북한주민 통일외식 2019』,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틀을 유지하면서 2020년 조사결과를 추가한다.

8] 김윤중 2019.

9] Berlinger 2019; Isozaki 2020.

2019년 남북관계도 답보 상태였다. 2018년 남북평화 협력기원 남측 예술단의 공연 제목인 “봄이 온다”가 암시하듯이, 2018년은 남북관계에서 봄이 온 듯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고, 3차례 남북정상회담, 남북군사합의가 연이어 진행되었다. 반면, 2019년 2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자, 남북관계는 교착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북한이 2018년 남북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지만, 한국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하여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 한국이 우회 길을 제시했지만, 북한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로를 향한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남북관계를 덮었다.

2019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변화가 북한 주민의 주변국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변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통일평화연구원은 2019년 후반부터 2020년 2월 사이 북한을 떠나 제3국에서 짧은 체류기간을 거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주변국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¹⁰ 탈북 이후 새로운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피하기 위하여 “귀하가 북한에 살고계실 때”라는 조건을 명시한 문항에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북한 주민이 가지는 주변국에 대한 인식을 추적했다. 주변국 인식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있을 때 주변국에 대하여 가졌던 친밀감, 위협감,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 등으로 구성되었다.

10] 북한을 떠난 후 제3국에서 짧은 체류기간을 거친 후 한국에 입국하는 사례를 통상 “직행”으로 표현한다. “직행”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후 외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짧아 외부 정보에 노출되는 정도가 작다. 북한 주민의 인식을 직접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 “직행”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은 북한주민의 의식에 가장 근접하다고 평가된다.

2. 한국과 중국으로 양분되는 북한 주민의 마음

북한 주민은 주변국 중 어떤 국가에게 친밀감을 느낄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하여, 통일평화연구원은 최근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에게 북한에 거주했을 때 주변국에 대하여 가졌던 친밀감을 조사하였다. 조사문항은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꼈습니까?”였고 선택지는 “미국, 일본, 남한, 중국, 러시아”였다. 응답자가 북한 주변에 있는 국가 중 한 국가만을 선택해야하기 때문에, 문항 특성상 2차적 친밀감을 파악할 수 없다. 북한 주민이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중국, 북한의 과거 동맹국인 구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에 대하여 전통적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북한의 개방과 한류 유입으로 인하여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증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표 5-1〉 가장 친밀하게 느끼는 주변국

(단위: %, 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미국	1.5	1.4	2.1	0.0	0.0	2.3	0.9	1.9
일본	0.0	0.0	0.7	0.7	0.0	4.6	0.9	0.9
한국	13.1	16.2	22.9	15.0	22.7	13.8	22.1	20.4
중국	83.1	79.7	72.9	76.8	71.2	66.7	70.8	65.7
러시아	2.3	2.7	1.4	6.5	6.1	12.6	5.3	11.1
합계(명)	132	149	138	132	87	87	116	109

최근 북한을 이탈한 주민 중 북한에 거주했을 때 주변국 중 중국을 가

장 가깝게 느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5-1〉가 보여주듯이,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거주했을 때 중국에 대하여 가졌던 친밀감은 다른 국가에 대한 친밀감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북한 정권의 수립 이후 중국의 대북한 지원, 특히 냉전 이후 북한 정권의 위기를 중국의 도움으로 버티었던 경험이 북한 주민의 마음에 아직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대중 친밀감이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했다(70.8%에서 65.7%, -5.1%p). 2019년 북미관계의 교착 이후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유지하면서 북중관계에서 긴장관계가 조성되었는데, 이런 현상이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에 미친 영향이 금번 조사에 반영되었다고 추정된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북한 주민의 마음이 움직이는 현상이 금번 조사에서 다시 확인된다. 중국에 대한 친밀감이 하락한 수준만큼 러시아에 대한 친밀감이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5.3%에서 11.1%, +5.8%p). 북한이 러시아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제재를 우회하는 현상이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에 반영되었다고 추정된다.¹¹⁾

북한에 거주할 때 한국에 대한 친밀감을 가졌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전년도에 비하여 하락했다(22.1%에서 20.4%, -1.7%p). 민족적 유대감이 일부 북한 주민의 마음에 아직 자리를 잡고 있지만, 2019년 악화된 남북관계가 한국에 대한 친밀감을 소폭 끌어내렸다고 추정된다.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 이후 2018년까지 한국을 향한 북한이탈주민의 친밀감과 중국을 향한 친밀감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2019년 조사부터 양국을 향한 친밀감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는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양국을

11]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2020, 4-9

향한 친밀감의 변화 방향이 함께 드러나고 있다고 추정된다.

성별이 주변국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현상이 지속된다. 2011년부터 2015년, 2018년, 2019년 조사에서는 여성의 대중 친밀감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2016년, 2017년, 2020년 조사에서는 남성의 대중 친밀감이 높게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주변국을 향한 친밀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꾸준히 성별 차이가 있는 듯 보여 성별 차이에 관심을 두었지만, 이후 조사는 일관된 현상을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에서 성별 차이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지 못하고 성별 친밀감의 순위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과 성별 차이는 관계가 없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된다.¹²

〈표 5-2〉 성별 간 중국과 한국에 대한 친밀감

(단위: %)

		중국	한국	기타	합계(명)
2014	남성	79.6	12.2	8.2	50
	여성	79.8	18.2	2.0	99
2015	남성	63.6	29.1	7.2	57
	여성	78.7	19.1	2.2	89
2016	남성	83.0	13.2	3.8	53
	여성	72.9	17.6	9.4	85

12) 2011년 조사 이후 북한이탈주민 중 남성이 여성보다 미국 또는 일본에 대하여 친밀감을 가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지만, 미국 또는 일본에 대하여 친밀감을 가지는 사례는 매우 적다(남성 응답자 453명 중 8명이 미국에 대하여, 6명이 일본에 대하여 친밀감을 가졌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여성 응답자 672명 중 7명이 미국에 대하여, 2명이 일본에 대하여 친밀감을 가졌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상태로는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에서 성별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2017	남성	72.9	21.4	5.7	70
	여성	70.5	24.6	4.9	61
2018	남성	76.7	16.7	6.6	30
	여성	83.3	16.7	0.0	42
2019	남성	70.0	22.5	7.5	42
	여성	72.6	21.9	5.5	73
2020	남성	67.6	16.2	16.2	37
	여성	64.8	22.5	12.7	71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수준이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에 관련성을 가질까? 북한에서 교육이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에 미치는 경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북한에서 교육이 강한 정치사회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주변국 중 북한 정권에 적대적인 국가에 대한 친밀감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남북관계가 나쁠 때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감소하고, 북중관계가 나쁠 때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중국에 대한 친밀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북한에서 받은 교육 수준이 북한이탈주민의 지적 능력과 관련이 있다면, 즉, 교육이 지적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가정하면, 북한에서 받은 교육이 외부 세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지고, 이는 한국에 대한 친밀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러 지표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상기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교육 수준은 한국에 대한 친밀감과 약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에 정착한 사람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에 대하여 더 친밀감을 가진다는 과거 조사 결과가 이번 해 조사에서도 확인되

있다.¹³ 2018년 조사까지는 고등중학 이하 학력자가 전문학교 졸업자보다 한국에 대하여 더 친밀감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는 한국에 대한 친밀감과 교육 수준이 정합관계를 보였다.

〈표 5-3〉 학력별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1(연도별) (단위: %, 명)

	2015			2016			2017		
	대학교	전문 학교	고등 중학	대학교	전문 학교	고등 중학	대학교	전문 학교	고등 중학
미국	0.0	0.0	3.4	0.0	0.0	0.0	0.0	0.0	0.0
일본	0.0	4.2	0.0	0.0	0.0	0.0	0.0	0.0	0.0
한국	27.6	20.8	23.0	27.8	0.0	16.6	40.0	13.0	24.2
중국	69.0	75.0	73.6	72.2	93.8	75.5	60.0	87.0	69.5
러시아	3.4	0.0	0.0	0.0	6.3	7.9	0.0	0.0	6.3
합계(명)	29	24	87	18	16	102	10	23	95

	2018			2019			2020		
	대학교	전문 학교	고등 중학	대학교	전문 학교	고등 중학	대학교	전문 학교	고등 중학
미국	40.0	0.0	0.0	0.0	0.0	1.3	0.0	5.9	1.3
일본	0.0	16.7	3.2	0.0	0.0	1.3	0.0	0.0	1.3
한국	20.0	8.3	12.7	37.5	30.8	17.7	9.1	29.4	18.2
중국	40.0	58.3	73.0	62.5	65.4	73.4	72.7	58.8	67.5
러시아	0.0	16.7	11.1	0.0	3.8	6.3	18.2	5.9	11.7
합계(명)	5	12	63	8	26	82	11	17	77

이 결과는 북한에서 교육 수준이 정치사회화의 결과를 반영한다기보다는 개별적 지적 능력을 더 반영한다고 추정할 수 있게 한다. 만약 북한에

13] 김병로 외 2017, p.132.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2014년 조사에서 예외적으로 북한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고등중학교 졸업자보다 한국에 더 친밀감을 가졌었다고 응답했다.

서 교육이 정치사회화의 결과를 반영한다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에 친밀감을 가지는 경향이 낮아져야 한다. 그런데, 북한에서 대학 교육을 받고 북한을 이탈한 주민은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하여 더 친밀감을 가진다.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세계의 변화를 상대적으로 더 객관적으로 이해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표 5-4〉 학력별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2(2011-2020)¹⁴ (단위: %, 명)

학력		對韓 친밀감 없었음	對韓 친밀감 있었음	계
대학교 졸업	N	102	34	136
	%	75.0	25.0	100.0
전문학교 졸업	N	164	29	193
	%	85.0	15.0	100.0
고등중학 이하	N	253	536	789
	%	32.1	67.9	100.0

북한에 거주할 당시 정치적 성향과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은 어떤 연관성을 보일까? 2016년 조선노동당의 당원 규모를 약 346만 명, 북한 인구를 25,368만 명으로 추산하면,¹⁵ 북한에서 조선노동당원은 전체 북한 사람 중 13.6%에 해당될 것으로 추산된다. 먼저, 조선노동당 가입이 정치적

14] 한국에 대한 친밀감과 교육 수준 간 관계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진다($\chi^2 = 4.7045, p\text{-value} = 0.095$). 반면, 중국에 대한 친밀감과 교육 수준 간 관계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않는다($\chi^2 = 2.7069, p\text{-value} = 0.258$).

15] 조선노동당 당원의 규모에 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 2016년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에 "각급 당 대표회에 선거된 3467명의 결의권 대표자와 200명의 발언권 대표자"가 참가했다는 공식 보고와 당원 천 명당 대의원 1명을 선출하는 관행[3차 당대회(1956) 대의원 916명/당원 106만 명, 4차 당대회(1961) 대의원 1657명/당원 131만 천 명, 5차 당대회(1970) 대의원 1734명/당원 160만 명]으로 조선노동당 당원은 약 346만 명으로 추정된다[김진철, "북 당대회 이모저모," 한겨레(2016년 5월 8일)]

의견과 활동을 반영한다면, 북한에서 조선노동당 당원은 북한에게 적대적인 국가에게 적대감을 가지며 북한에게 우호적인 국가에는 친밀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노동당에 의하여 지도되는 체제인 북한에서 노동당 당원은 북한 정권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는 의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가능성이 낮지만, 조선노동당이 인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충원한다면 당원 경력이 중국의 현실에 대한 이해로 이어져 대중 친밀감의 저하, 대한 친밀감의 상승과 연결될 수도 있다.

2011년 조사 이후 결과를 종합하면, 조선노동당 가입 여부와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은 무관한 듯 보인다. 2016-2017년 조사와 2019-2020년 조사에서는 조선노동당에 가입했던 북한이탈주민이 중국에 대하여 더 친밀감을 가지며 한국에 대하여 친밀감을 덜 가지는 듯 보였지만, 조사 연도에 따라 조선노동당 당원과 비당원간 주변국에 대한 선호가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2011년 이후 조사자료 전체를 종합하여 보면, 한국과 중국에 대한 조선노동당 당원과 비당원간 친밀감의 정도 차이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지 못한다.¹⁶ 조선노동당 당적을 가진 북한이탈주민 중 미국, 일본, 러시아에 대하여 친밀감을 가졌다고 응답한 경우가 5인을 넘지 않지 않기에,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토할 수도 없다. 이런 현상을 종합하면, 조선노동당 가입 여부와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16] 이영태, "김정은 북한 7차 노동당대회, 사회주의 새로운 이정표," 뉴스핌(2016년 5월 7일). 조선노동당 당원 여부와 중국에 대한 친밀감간 교차분석 결과 Pearson chi2 계수가 0.2748이고(p-value = 0.600), 조선노동당 당원 여부와 한국에 대한 친밀감간 교차분석 결과 Pearson chi2 계수가 0.8263이다(p-value = 0.363). 이 결과에 기반하면, 조선노동당 당원이 중국에게 더 친밀감을 느끼는 반면 한국에게 덜 친밀감을 느낀다는 기존 연구는 소수 표본으로 인하여 일어난 현상으로 추정된다(김병로 외 2017, 133).

〈표 5-5〉 당원 여부에 따른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

(단위: %, 명)

	2016		2017		2018		2019		2020	
	당원	비당원	당원	비당원	당원	비당원	당원	비당원	당원	비당원
미국	0.0	0.0	0.0	0.0	7.7	1.4	0.0	1.0	6.7	1.1
일본	0.0	0.9	0.0	0.0	15.4	2.7	0.0	1.0	0.0	1.1
한국	7.7	17.9	20.0	23.5	23.1	12.3	21.4	22.4	6.7	22.0
중국	92.3	73.2	80.0	70.0	46.2	69.8	71.4	70.4	73.3	64.8
러시아	0.0	8.0	0.0	6.5	7.7	13.7	7.1	5.1	13.3	11.0
합계(명)	26	112	25	106	12	73	14	101	15	92

주) 후보당원을 당원으로 처리함.

3. 북한 위협인식의 재귀

2019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는 요동쳤다. 2019년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에서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떠오르는 듯했다. 북미간 입장차이가 크기에 성급한 기대를 경고하는 분석은 소수였다. 반면,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판문점 회동, 10월 북미실무회담의 결렬, ‘크리스마스 선물’을 둘러싼 북한의 위협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는 과거로 회귀하는 듯했다. 2020년 초반 북한이 다시 자력갱생을 화두로 끌어낼 만큼 북한 내부에서도 큰 충격이 있었다.

2019년 요동친 국제관계가 북한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통일평화연구원은 최근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귀

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미국, 일본, 남한, 중국, 러시아”를 선택지로 줌으로써, 2019년 요동쳤던 국제관계가 북한 주민들이 인식한 위협감에 미친 영향을 추적하고자 했다.

〈표 5-6〉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단위: %, 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미국	72.0	73.8	65.7	84.1	77.5	84.5	78.3	83.8
일본	6.8	9.7	12.6	3.6	5.4	0.0	5.2	7.6
한국	1.5	2.1	1.4	2.9	1.6	2.4	2.6	1.0
중국	19.7	14.5	19.6	8.0	15.5	13.1	13.9	6.6
러시아	0.0	0.0	0.7	1.5	0.0	0.0	0.0	1.0
합계(명)	132	149	146	138	132	87	116	109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2월 사이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 중 절대 다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장 위협한다고 생각했다고 응답했다. 2018년 한반도 유화국면으로 인하여 약화되었던 미국발 위협감이 원상태로 돌아갔다(78.3%에서 83.8%, +5.0%). 이런 변화는 한반도 위기의 정도에 따라 미국발 위협감이 변화한다는 기존 연구에 부합한다.¹⁷ 2019년 교착국면이 시작되자, 북한 당국은 정치 학습 과정을 거쳐 북한 주민에게 미국발 위협감을 유지했다.¹⁸ 이런 과정을 거쳐

17] 김병로 외 2017, 135-136.

18] 미국발 위협감과 일본발 위협감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북미관계가 좋을 때 일부 북한 주민이 일본을 위협국가로 대답하는 경향이 보인다(정동준 외 2019, 132-133).

북한의 전통적 위협감이 복원되었다.

2019년 한반도 교착국면은 한국발 위협감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011년 조사 이후 한국발 위협감은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의 군사력을 무시하는 북한 정권의 선전으로 북한 주민이 한국에 대하여 위협감을 가지지 않는다고 추정된다. 또한, 한국 정부를 미국의 허수아비로 이해하는 정치 선전의 결과 북한 주민은 한국을 독자적인 행위 주체로 인식하지 않는 듯하다.

중국발 위협감은 전년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소했다. 응답자 중 6.6%만이 중국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저치로, 심지어 일본발 위협감보다도 낮다. 2019년 북미 갈등이 재현되면서 북한 주민의 관심이 미국에 쏠렸고, 2018년 북중관계의 복원이 중국발 위협감을 낮추는데 기여했다고 추정된다. 중국발 위협감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북한의 대중의 인식이 위협인식의 감소로 이어지는 듯 보인다.

성별 차이가 위협감 인식과 약하게 연관된다. 2016년 조사를 제외하면,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중국에게 더 위협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중국발 위협감 간 교차분석의 결과 Pearson chi2(1)가 13.2214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진다(p-value = 0.000). 남성이 중국에 대하여 더 위협감을 가지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반면, 다른 4개 국발 위협감은 성별 차이와 무관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미국발 위협감을 더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발 위협감과 성별 차이간 교차분석 결과 Pearson chi2(1) 계수가 8.1675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진다(p-value

= 0.004).¹⁹⁾ 일본, 러시아, 한국에 대해 느끼는 위협감과 성별 교차 분석은 모두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지 못한다.

〈표 5-7〉 성별 간 미국과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

(단위: %, 명)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합계(명)
2014	남성	77.1	8.3	0.0	14.6	0.0	50
	여성	72.2	10.3	3.1	14.4	0.0	99
2015	남성	53.6	16.1	0.0	30.4	0.0	57
	여성	73.6	10.3	2.3	12.6	1.1	89
2016	남성	90.6	0.0	1.9	5.7	1.9	53
	여성	80.0	5.9	3.5	9.4	1.2	85
2017	남성	75.4	5.8	1.4	17.4	0.0	70
	여성	80.0	5.0	1.7	13.3	0.0	62
2018	남성	77.8	0.0	0.0	22.2	0.0	38
	여성	89.6	0.0	4.2	6.3	0.0	49
2019	남성	66.7	7.1	2.4	23.8	0.0	42
	여성	84.9	4.1	2.7	8.2	0.0	74
2020	남성	75.7	8.1	2.7	10.8	2.7	37
	여성	87.6	7.9	0.0	4.6	0.0	68

19) 미군 성범죄를 부각하는 북한의 정치 선전이 여성으로 하여금 미국발 위협감이 더 가지게 되었다는 가설을 제기할 수 있다. 일부 탈북 여성은 필자의 의견에 동의했다.

〈표 5-8〉 학력별 주변국에 대한 위협 인식

(단위: %, 명)

	2015			2016			2017		
	대학교	전문 학교	고등 중학	대학교	전문 학교	고등 중학	대학교	전문 학교	고등 중학
미국	46.4	75.0	69.2	77.8	75.0	86.5	60.0	73.9	80.2
일본	25.0	4.2	11.0	0.0	12.5	2.9	0.0	8.7	5.2
한국	0.0	4.2	1.1	5.6	6.3	1.9	0.0	0.0	2.1
중국	28.6	16.7	17.6	11.1	6.3	7.7	40.0	17.4	12.5
러시아	0.0	0.0	1.1	5.6	0.0	1.0	0.0	0.0	0.0
합계(명)	28	24	93	18	16	104	10	23	99

	2018			2019			2020		
	대학교	전문 학교	고등 중학	대학교	전문 학교	고등 중학	대학교	전문 학교	고등 중학
미국	0.0	91.7	89.6	62.5	69.2	82.7	81.8	80.0	85.7
일본	0.0	0.0	0.0	12.5	7.7	3.7	9.1	13.3	5.2
한국	0.0	0.0	3.0	0.0	7.7	1.2	0.0	0.0	1.3
중국	100.0	8.3	7.5	25.0	15.4	12.3	9.1	6.7	6.5
러시아	0.0	0.0	0.0	0.0	0.0	0.0	0.0	0.0	1.3
합계(명)	5	12	70	8	26	82	11	17	78

교육 수준이 주변국에 대한 북한 주민의 위협 인식과 약하게 관련되어 있다. 2014년 조사와 2016년 조사를 제외하면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탈한 주민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중국에 대하여 더 위협감을 가지는 반면 미국에 대하여 위협감을 덜 가진다. 즉, 학력이 높아질수록 미국발 위협감이 줄고 중국발 위협감이 커진다. 학력과 미국 위협감 간 교차분석 결과 Pearson chi2(2)가 10.5039으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고(p-value =

0.005), 학력과 중국 위협감 간 교차분석 결과 Pearson chi2(2)가 7.1576으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진다(p-value = 0.028). 이런 분석 결과는 북한에서 받은 교육 수준이 정치사회화의 영향보다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반영한다고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조선노동당 당원과 비당원 간 주변국으로부터 받는 위협감 차이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북한 인구의 13.6%를 포함하는 조선노동당 당원의 성향을 이해하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2020년 조사만 보면, 당원이 비당원보다 미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약한 위협감을 가지는 반면 중국으로부터 더 강한 위협감을 가지는 듯 보인다. 하지만, 2011년 조사 이후 당원과 비당원간 순위가 지속적으로 바뀌는 현상이 관측되기 때문에, 아직 명확한 경향성을 확인하기 어렵다.²⁰

〈표 5-9〉 당원 여부에 따른 주변국에 대한 위협인식

(단위: %, 명)

	2016		2017		2018		2019		2020	
	당원	비당원	당원	비당원	당원	비당원	당원	비당원	당원	비당원
미국	88.5	83.0	84.0	75.7	75.0	85.6	64.3	80.0	80.0	84.1
일본	7.7	2.7	4.0	5.8	0.0	0.0	0.0	6.0	6.7	8.0
한국	0.0	3.6	4.0	1.0	0.0	2.9	7.1	2.0	0.0	1.1
중국	3.8	8.9	8.0	17.5	25.0	11.4	28.6	12.0	13.3	5.7
러시아	0.0	1.8	0.0	0.0	0.0	0.0	0.0	0.0	0.0	1.1
합계(명)	26	112	25	106	12	73	14	101	15	92

주) 응답자 중 후보당원을 당원으로 처리함.

20] 북한에서 위기를 겪고 난 후 다음 해 이탈한 조선노동당 당원이 미국발 위협감을 더 가지는 듯 경향이 보였는데(정동준 외 2019, 121), 관측수가 증가하면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진다. 2013년, 2015년, 2017년 위기 직후 조사에서 미국발 위협감이 예외적으로 매우 높다.

4.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의 역할에 관한 북한 주민의 마음

한민족의 통일은 한민족 내부의 과제인 동시에 주변국의 이해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민족의 통일에 필요한 내적 동력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주변국의 협조가 통일 과정에서부터 최종 지점까지 확보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의 역할에 관해 갖는 감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일평화연구원은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2월 사이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에게 주변국이 통일 과정에서 취할 행동과 관련된 인식을 조사하였다.

〈표 5-10〉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 희망 정도

(단위: %, 명)

주변국	통일 희망 정도	북한주민의 인식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미국	원함	33.1	21.1	33.1	18.8	23.5	24.1	20.5	20.6	
	원하지 않음	66.9	78.9	66.9	81.2	76.5	75.9	79.5	79.4	
중국	원함	14.4	14.9	14.4	17.4	14.4	18.4	20.2	16.8	
	원하지 않음	85.6	85.1	85.6	82.6	85.6	81.6	79.8	83.2	
일본	원함	8.3	6.8	8.3	10.9	10.0	13.8	5.3	7.5	
	원하지 않음	91.7	93.2	91.7	89.1	90.0	86.2	94.7	92.5	
러시아	원함	26.6	30.1	26.6	34.8	23.5	40.3	21.6	26.4	
	원하지 않음	73.4	69.9	73.4	65.2	76.5	59.7	78.4	73.6	
합계(명)		143	146	143	138	132	87	116	109	

2020년 조사 결과는 이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두 가지 유사점을 보인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거주 당시 모든 주변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은 러시아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우호적이라고 인식했지만, 고작 26.4%의 응답자만이 러시아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둘째, 일본이 한반도의 통일을 가장 원하지 않는 국가라고 생각했었고, 중국을 2순위, 미국을 3순위로 꼽았다. 이 순위는 변동이 없이 유지된다.

2020년 조사 결과는 두 측면에서 이전 조사와 차이를 보인다. 첫째, 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예년 수준으로 복귀했다. 2019년 조사는 2018년 한반도 유화국면을 경험하고 탈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미세하지만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예전에 비해 감소했었다. 반면, 2020년 조사에는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3.2%로 증가했다. 둘째, 한반도 통일에 있어 러시아의 역할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인식이 평균으로 회귀했다. 2019년 조사에서 러시아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한다는 응답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었는데, 2020년 조사에는 26.4%로 전체 평균에 근접한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국의 협력 필요성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북한이 통일하는데 한반도 주변국들 중 어느 나라의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고, 5개 선택지(“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어느 나라의 도움도 필요없다”)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이전 조사와 비교하면 세 가지 특징이 확인된다. 첫째, 2020년 조사 결과는 2018년 이전 조사 결과와 비슷하다. 2018년 유

화국면이 반영된 2019년 조사 결과가 예외적이었다는 점이 2020년 조사에서 확인된다. 둘째, 미중간 음의 상관관계가 다시 확인된다.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비중이 증가했다. 셋째, “어느 나라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응답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내외 안정세를 유지한다. 북한 정권의 자립 시도가 북한 주민에게 일정 정도 지지를 얻고 있는 듯 보인다.

〈표 5-11〉 통일을 위한 협조 필요성

(단위: %, 명)

	2016		2017		2018		2019		2020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중국	60	43.8	52	39.4	35	40.2	39	34.8	41	38.7
미국	17	12.4	19	14.4	18	20.7	30	26.8	23	21.7
러시아	16	11.7	11	8.3	6	6.9	6	5.4	7	6.6
일본	0	0.0	0	0.0	1	1.1	1	0.9	0	0.0
없음	44	32.1	50	37.9	27	31.0	36	32.1	35	33.0
합계(명)	138	100.0	132	100.0	87	100.0	116	100.0	106	100.0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번영에 어떤 주변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와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2016년 조사부터 추가하고,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중 하나를 답으로 선택하게 했다. 2016년 조사에는 중국이 1위(47.1%)였지만 2017년 조사 이후 한국이 1위가 되었다.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점차 약화되는 추세로 보인다. 2019년 조사에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

답 비율이 10% 가까이 증가했는데, 2020년 조사에서도 비슷한 수치가 나타났다. 2018년 한반도 유화국면을 지나면서 북한 주민 중 일부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졌고, 2018년 유화국면의 영향이 유지되는 듯 보인다.

〈표 5-12〉 북한의 발전을 위하여 우호 관계가 필요한 국가 (단위: %, 명)

	2016		2017		2018		2019		2020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미국	6	4.3	8	6.1	4	4.6	16	13.9	15	14.0
일본	1	0.7	2	1.5	0	0.0	1	0.9	0	0.0
한국	60	43.5	74	56.1	44	50.6	50	43.5	54	50.5
중국	65	47.1	45	34.1	38	43.7	45	39.1	35	32.7
러시아	6	4.3	3	2.3	1	1.1	3	2.6	3	2.8
합계(명)	138	100.0	132	100.0	87	100.0	116	100.0	109	100.0

5. 소결

2020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와 이전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2018년 한반도 유화국면이 가져온 주변국에 대한 친밀/위협감의 변화가 원상으로 회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에 대한 위협감이 증가한 반면, 친밀감은 감소했다. 북미관계가 2018년 이전 상태로 복귀하면서, 주변국에 대한 북한이탈

주민의 인식 또한 과거로 복귀했다. 2018년 유화국면의 영향은 사라진 듯 하다.

이전 조사에서 흥밋거리 수준에 그쳤던 두 가지 현상에 대한 심층 조사의 필요성이 보인다. 첫째, 교육 수준이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 또는 위협감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북한에서 받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한국과 미국에 대한 친밀감이 높아지는 반면, 북한에서 받은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중국에 대한 친밀감이 높아진다. 위협감 부분에서는 친밀감의 이면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북한의 교육이 정치사회화의 기제로 북한 정권의 선전을 전달하지만, 판단능력과 이해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북한에서도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주변국 상황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추정된다. 북한의 교육수준과 정치인식간 관계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미국에 대하여 가지는 위협감이 높다. 관측수가 충분히 축적되면서, 미국에 대한 위협감에서 성별 차이가 드러났다. 반면, 주변국 중 다른 국가에 대해 가지는 위협감에서는 성별 차이가 없다. 왜 미국에게만 성별 차이가 나타날까? 이 질문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Berlinger, Joshua. "North Korea warns US to prepare for 'Christmas gift,' but no one's sure what to expect." CNN(2019.12.5.).

Isozaki, Atsuhito. "The Lesson of North Korea's 'Christmas Gift.'" The Diplomat(2020.2.11.).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Final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submitted pursuant to resolution 2464 (2019)" (S/2020/151).

김병로 외. 2017. 북한주민 통일의식 조사 2016.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김윤중. "북미 실무협상 결렬...北 "미국 빈손으로 나와", 美 "좋은 대화" 반박." 동아일보(2019년 10월 6일).

김진철. "북 당대회 이모저모." 한겨레(2016년 5월 8일).

이영태. "김정은 북한 7차 노동당대회, 사회주의 새로운 이정표." 뉴스핌(2016년 5월 7일).

정동준 외. 2019. 북한주민 통일의식 조사 2018.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조동준. 2020. "제 5장 주변국 관계인식." 김학재 외.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9.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제6장 남한적응실태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6장 남한적응실태

| 천경효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조교수

1. 서론

2020년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떼어놓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한 해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같은 단어들이 어느새 익숙한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다양한 활동영역에서 대면보다 비대면이 일상적인 형태로 자리 잡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상황이 일상이 되는 형국에서, 이러한 변화가 사회취약계층의 고용과 생계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또한 계속하여 지적되고 있다.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게 체감되는 코로나 상황은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난민들에게서 정점을 찍는 듯하다. 매체와 기고문을 통해 캠프에 수용되어 있거나 정착해 있는 난민들의 열악한 생활조건과 보건위생은 단편적이거나 알려지는 것에 비해, 한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향하는 여정 중에 있는 난민과 이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그 실상이 가늠조차 힘든 상황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주로 북중 국경을 넘은 후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태국, 미얀마 등의 동남아국가를 거쳐 남한으로 입국하는 경로를 활용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국가마다 빗장을 단단히 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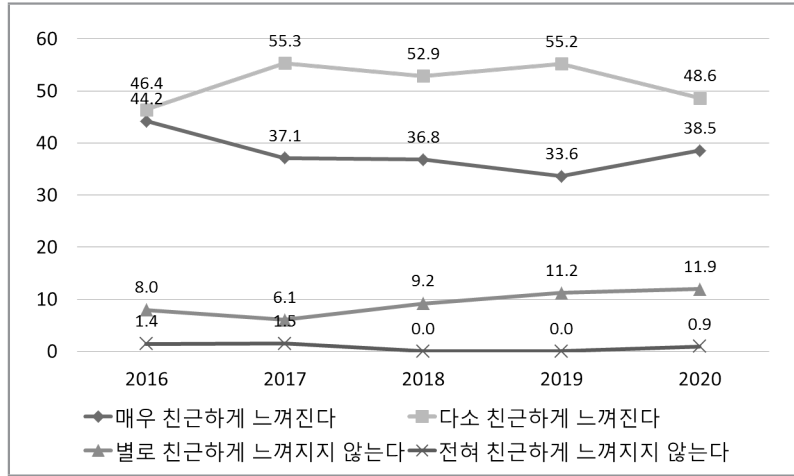
잠그면서 출입국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2016년 하반기에 3만 명을 넘기고 이후 매년 천 명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해 오던 남한 입국 북한이탈주민 숫자는 2020년 코로나 상황을 맞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조사시점에서 1년 이전에 북한을 떠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주민 통일이식조사의 특성 상, 본 장에서 다루는 2020년 조사의 경우, 아직까지 대상자의 숫자나 구성에서 코로나 상황의 여파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으며, 2021년 조사부터 코로나 상황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친근감과 포용성: 정서적 반응과 현실적 경험 사이

남한주민에게 느끼는 친근감에 대한 긍정적 반응은 최근 5년간 조사 중 최저치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반응도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지난 5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2017년을 기점으로 긍정반응은 2018년 89.7%, 2019년 88.8%, 2020년 87.1%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정반응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남한주민의 포용성에 대한 질문 역시 2019년에는 긍정응답이 79.3%였던 데 비해 2020년에는 70.6%로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더불어 부정응답도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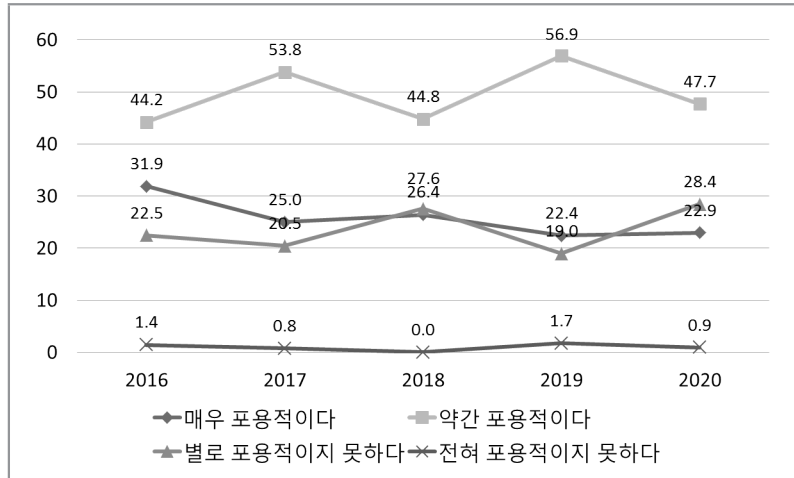
〈그림 6-1〉 남한주민 친근감

(단위: %)



〈그림 6-2〉 남한주민 포용성

(단위: %)



2016년 이래 남한주민에게 느끼는 친근감과 포용성에 대한 응답을 교차분석하고 있다. 이는 친근감은 추상적인 감정적인 부분으로, 남한주민의 포용성은 구체적인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을 교차분석하여 친근감에서는 긍정을 보이거나 포용성에서는 부정을 보이는 응답(매우/다소 친근함-전혀/별로 포용적이지 않다)에 주목한다. 이러한 조합의 응답들은 감정적으로는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에서 친근하게 여겼으나 실제 생활을 통해 경험한 포용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의 지표로 이해하고 매년 그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

〈표 6-1〉 남한주민 친근감과 포용성 교차표(2019)

(단위: %, 명)

	매우 포용적	다소 포용적	별로 포용적이지 않음	전혀 포용적이지 않음	합계
매우 친근	48.7	46.2	2.6	2.6	100.0
다소 친근	9.4	68.8	21.9	0.0	100.0
별로 친근하지 않음	7.7	30.8	53.8	7.7	100.0
전혀 친근하지 않음	0.0	0.0	0.0	0.0	0.0
합계(명)	26	66	22	2	116

〈표 6-2〉 남한주민 친근감과 포용성 교차표(2020)

(단위: %, 명)

	매우 포용적	다소 포용적	별로 포용적이지 않음	전혀 포용적이지 않음	합계
매우 친근	48.6	35.7	14.3	2.4	100.0
다소 친근	7.5	58.5	34.0	0.0	100.0
별로 친근하지 않음	7.7	38.5	53.8	0.0	100.0
전혀 친근하지 않음	0.0	100.0	0.0	0.0	100.0
합계(N)	25	52	31	1	109

친근감과 포용성의 교차표에서 해당수치를 측정해보면, 2019년 27.1%에서 2020년 50.7%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조사 결과를 볼 때, 친근감과 포용성에 대한 인식은 동반하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에게 느끼는 정서적인 거리는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친근감을 느낀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상호작용에서 배제당하거나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경우는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한주민 역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갖는 감정이나 태도가 직접적인 상호작용의 유무에 따라 반비례하는 양상이 관찰된 바가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상호접촉이 적을수록 이해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과 반대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양측 모두 서로 상대를 접해보지 않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다는 것이다.²¹ 이는 실제로 상대를 만난 경험이 오히려 서로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다면 남북한 주민이 서로 만나는 경험으로부터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다. 즉, 어떠한 상황에서 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그 성격은 어떠한지, 상호작용은 일회성인지 지속적인지, 그로인한 부정적 효과는 단기적인지 장기적인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남북한 주민 간의 접촉이 긍정적 감정의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1] 유인진과 송영훈의 논문(2013)에 따르면, 2000년에 한 여론조사기관이 서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직접 접촉한 경험이 없는 남한주민의 경우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유인진, 송영훈 2013: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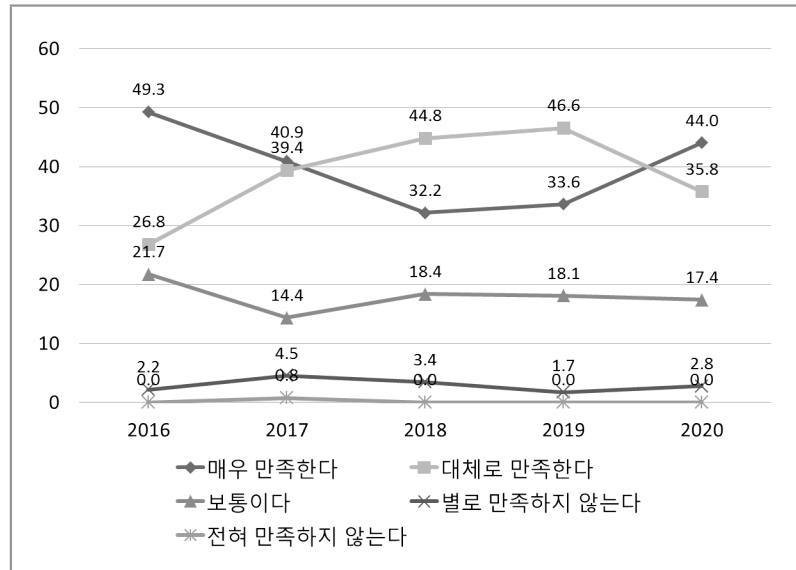
상호작용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사이에서 인식되는 정서적 거리는 양측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음이 여러 조사에서 관찰되고 있다. 한 예로,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시행한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의 2010년과 2020년의 결과를 비교해보았을 때, 북한이탈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식한다는 남한주민의 답변은 27.2%에서 9.5%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의식을 묻는 조사에서 이러한 부정적 반응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조사결과에 대한 1차적 분석이라면,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3. 남한생활에의 만족도와 후회도

남한생활 만족도는 올해 조사에서 매우 만족 44%, 대체로 만족 35.8%, 보통 17.4%,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2.8%로, 긍정적인 답변이 전체 79.8%로 나타나 전년도의 같은 응답 80%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6-3〉 남한생활 만족도

(단위: %)



만족도에 대한 강한 긍정과 약한 긍정을 합한 응답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80% 내외로 유지되고는 있으나, 미세하게나마 수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으며 올해 수치가 최근 5년간 가장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남한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충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아주 소폭으로 꾸준히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계속 그 경향성을 관찰해야할 필요성을 제시해준다. 남한생활의 만족도를 묻는 2019년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의 문항에 대한 긍정응답은 74.2%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의 결과가 이와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의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수조사를 표방하는

반면, 후자는 탈북 1년 미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남한생활의 체험 기간이 오히려 만족도에서 후한 점수를 주게끔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남한생활의 만족도와 더불어,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83%, 그렇다는 응답이 16%로 나타나 최근 3년간의 결과 중 후회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최고치를 보였다. 남한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하는 정도를 교차분석하였을 때,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한다고 응답한 18명 중 13명은 남한생활에 보통 이상의 만족도(보통, 다소 만족, 매우 만족)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년도에 이어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하는 것과 남한생활 자체에 대한 만족도 사이에는 직접적 연관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6-3〉 남한생활 만족도와 후회도 교차표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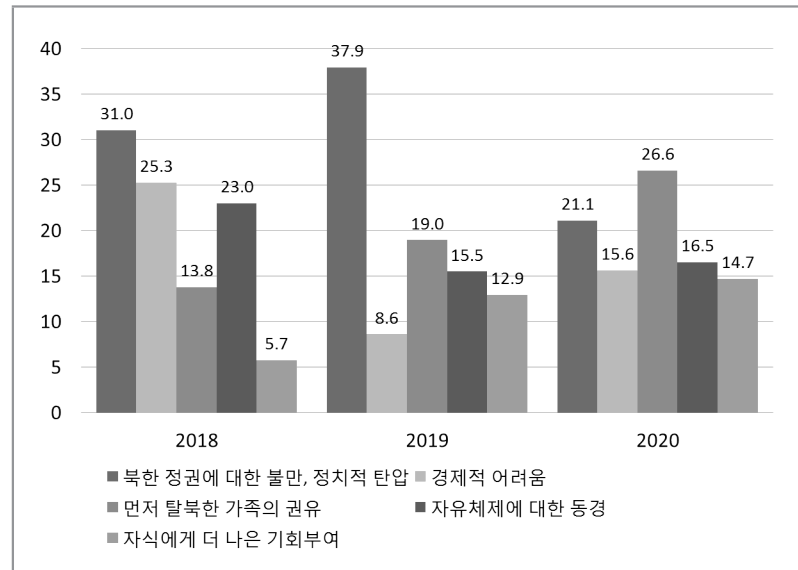
	매우 후회	약간 후회	별로 후회 안함	전혀 후회 안함	합계
매우 만족	0.0	2.1	10.4	87.5	100.0
대체로 만족	2.6	15.4	35.	43.6	100.0
보통	0.0	47.4	42.1	10.5	100.0
별로 만족 안함	0.0	33.3	33.3	33.3	100.0
합계(명)	1	17	28	62	109

4. 탈북결심 요인과 남한입국후 국민정체성

탈북결심의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정권에 대한 불만이 37.9%에서 21.1%로 큰 폭으로 감소한 점이 올해 결과에서 눈에 띈다. 기존에 탈북한 가족의 권유라는 응답은 전년 19%에서 26.6%로 크게 증가하며 올해 해당 문항에 대한 답변 중 1순위를 차지하였다.

〈그림 6-4〉 탈북결심 요인

(단위: %)



올해 조사대상자들 중 기존에 탈북한 가족이나 친척이 남한에 있는 비율은 전년도 조사대상자들과 비교하여 거의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조건에서 가족의 권유가 탈북요인의 1순위로 지목되

었다는 점은 기존 탈북인들이 북한 내 가족들과 송금 등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입국한 후 기존 탈북 가족 및 친인척들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안전망이나 네트워크 구축의 성격과 양상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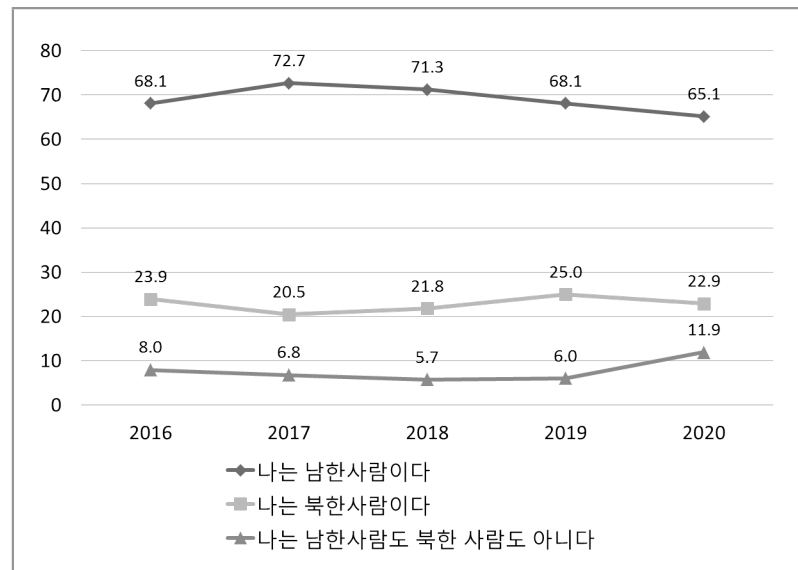
탈북을 결심하게 된 다른 요인들 중 경제적 어려움은 지난해 8.6%에서 올해 15.6%로 상당히 증가하였다. 자유체제에의 동경은 15.5%에서 16.5%로 전년대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식의 미래에 대한 고려는 12.9%에서 14.7%로 최근 3년간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남북하나재단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서도 경제적 이유가 정치적 이유를 앞지르고 있는 것을 참조하여 올해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탈북이 정치적 불만족에서 비롯되기 보다는 경제적 이유 및 기타 기회에 대한 기대에 기반한 이주의 형태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 가하는 조심스러운 분석을 해 볼 수 있다. 경제적 이유라는 것도 단순히 먹고 살기 힘든 현재의 처지를 벗어나기 위함 보다는, 자신과 가족에게 넓은 차원에서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미래지향적 기대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고 앞으로의 추세를 면밀히 관찰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의 성격을 정치적 난민보다는 경제적 이주민으로 파악하여 접근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격을 보다 복합적으로 파악해야할 필요는 다음의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남한에 입국한 후 본인을 남한사람으로 인식하는가, 아니면 북한사람으로 인식하는가에 대한 질문

에 남한사람이라는 응답은 2019년 68.1%에서 2020년 65.1%로 감소하였고, 북한사람이라는 응답은 25%에서 22.9%로 감소하였다. 양쪽 모두 그 감소의 폭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 더 주목할만한 점은, “나는 남한 사람도 북한 사람도 아니다”라는 선택지를 고른 응답자가 올해 11.9%로 나타나며, 2011년 해당 문항이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에 포함된 이래 처음으로 두 자리 숫자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탈북 1년 미만인 응답자 집단의 특성을 생각할 때, 남한 사람이라는 자기규정이 매우 높게 나타나던 기존의 양상에 비해 그 어느 쪽도 아니라는 응답이 증가한 것은 그 자체로도 매우 흥미로우며, 앞으로 해당 선택지에 대한 응답 추세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그림 6-5〉 국민 정체성

(단위: %)



탈북 후 남한에 입국하여 어느 정도 정착생활을 하다가 다시 제 3국가에서 이주하는 이른바 “탈남” 현상과, 이러한 탈남탈북자들이 제 3세계 국가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을 남한 아니면 북한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 한정지어 생각하는 것은 더 이상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분석틀일 수 있다. 북한, 남한, 그리고 제3국가 사이를 오가며 송금과 통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초국가적 삶에 대한 관심은 전 지구적인 이주민 연구의 맥락에서도 의미있는 노력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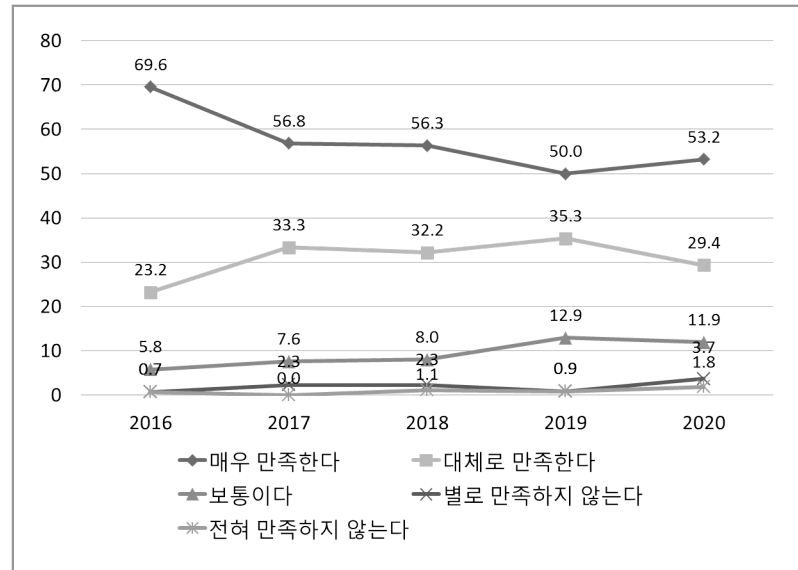
5. 적응과정에서의 도움과 어려움: 정부정책과 민간단체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올해 82.6%로 나타나 2016년 이래 지속적으로 보여온 만족도의 감소세 중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반면, 지원정책에 대한 불만족도는 올해 5.5%로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불만족도가 높아지는 추세는 확인이 되나, 지원정책의 어떠한 부분에서 불만족을 느끼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인지는 별도의 추가질문이 있어야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지원정책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당장의 대책을 필요로 하는 상황은 아니나, 연간 축적되고 있는 본 조사의 결과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입장에서, 급격한 하락은 아니더라도 꾸준한 하락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밝혀내고자 하는

시도는 계속될 필요가 있다.

〈그림 6-6〉 지원정책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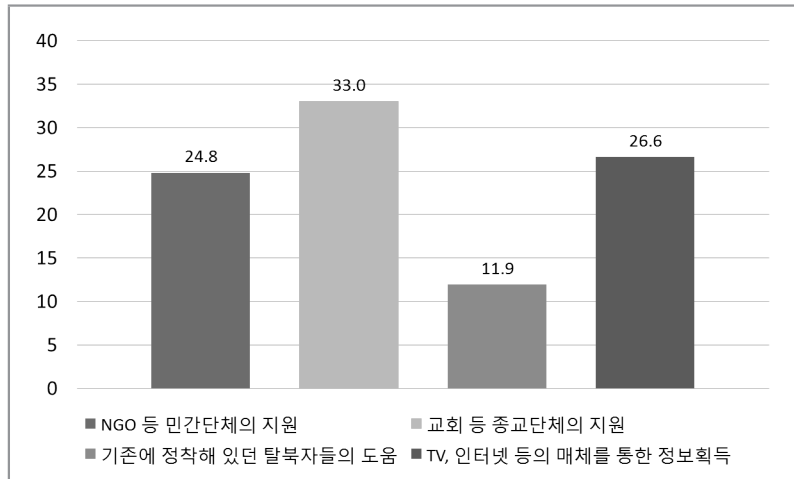
한정된 조사대상자에 대한 설문지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의 유사한 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참조하는 것을 불가피한 선택이다. 2019년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를 참조하면 “더 나은 남한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1순위 응답은 취업과 창업지원(27.8%), 2순위는 의료지원(17.4%), 3순위는 교육지원(13.7%)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원하는 경제적 지원이 단순한 정착지원금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발판을 마련하는 취업과 창업에 대한 지원

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탈북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갈 유지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방안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수요가 크다는 점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며, 이러한 수요를 담아낼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입안 및 시행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데 있어, 정부이외에 가장 도움이 된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종교단체의 지원이 33.3%,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한 정보획득이 26.6%, NGO등 민간단체의 지원이 24.8%로 나타났다. 역시 연관된 정보를 위해 2019년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를 참조하면,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사회단체는 종교단체가 49.7%로 나타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종교단체를 통해 정착생활에 도움을 얻고 있다는 응답을 하고 있는 점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특히 종교단체와의 연관성은 남한생활 정착 이전에 이미 탈북의 상황에서부터 시작되는 점이 많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림 6-7〉 정부지원 제외, 적응에 도움을 준 요인(2020)

(단위: %)



반면, 기존에 정착해 있던 탈북자들로부터 정착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은 2018년 20.7%, 2019년 19.8%, 2020년 11.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중 북한이탈주민이 운영하는 단체에 가입하였는지 그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7.4%가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것은 이러한 추세를 설명하는 하나의 맥락을 제공한다. 북한이탈주민이 운영하는 단체에 가입되어 있다고 응답한 12.6%의 조사대상자들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밝힌 경우는 46.7%, 소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은 41.8%, 전혀 활동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1.5%로 드러나 가입되어 있더라도 활발하게 참여하여 활동하는 비율이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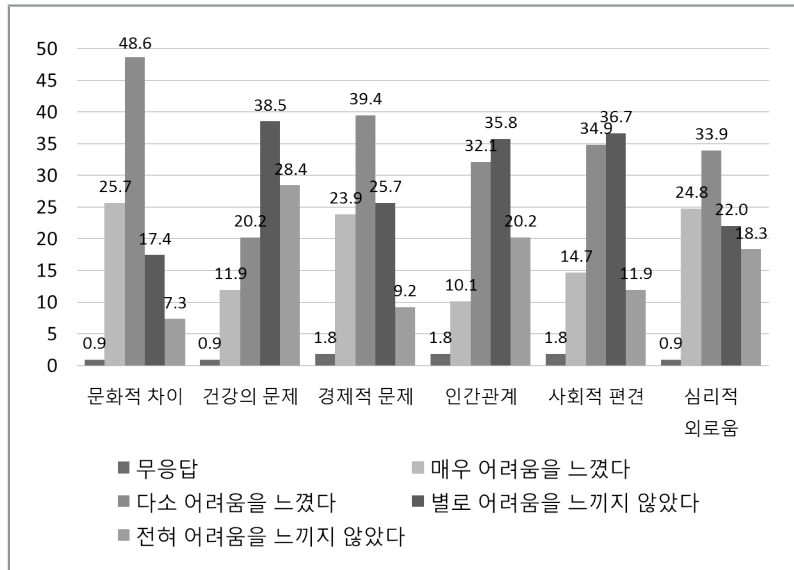
대부분의 남한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방

송 등의 매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인식을 형성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뉴스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단체의 정치색 강한 활동이나 강한 의견표현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수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는 점은 충분히 짐작가능하다. 미디어의 조명을 받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정치색을 띠는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종종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가시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자 커뮤니티에의 참여도와 결속력이 강하다는 인상을 받기 쉽다. 하지만 위의 조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이러한 모습이 전체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남한사회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순위를 매기도록 하는 질문은 2017년에 추가되어 올해로 4년째 조사에 포함되어 오고 있다. 지난 4년간의 조사결과에서는 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어려움이 부동의 1순위와 2순위로 일관되게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연속성 이외에, 올해 조사결과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건강문제를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선택하는 비율이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사회적 편견이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응답은 전년도와 유사하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큰 차이 없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6-8〉 적응에 어려움을 준 요인(2020)

(단위: %)



적응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의 1순위로 꼽히는 문화적 차이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들이 생각하는 문화적 차이와 남한주민들이 생각하는 문화적 차이의 범주와 성격이 동일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삶의 양식의 총체로서의 문화라는 개념이 그러하거나 문화적 차이라는 표현 역시 너무나 많은 것을 포괄하기 때문에, 적절한 맥락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석적 도구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과연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들은 각각 어떠한 상대방의 삶의 양식을 문화적 차이라는 이름으로 인식하는 것인지에 대한 밀도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적 차이 그 자체가 아니라 그와 연관되어 있는 부정적 사회적 낙인 효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할 때, 적응을 어렵게 하

는 가장 큰 요인으로서의 문화적 차이의 실체를 가늠하고 문제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기틀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6. 소결

올해 남한적응실태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전반적으로 이전 연도의 결과들과 유사한 양상을 유지하면서도 탈북의 원인에서 경제적 이유와 기존 탈북가족 및 친인척의 권유, 자식세대의 미래에 대한 고려 부분이 높게 나타나는 점이 눈에 띈다.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던 요인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스스로의 이러한 평가를 통해 볼 때, 탈북이라는 행동에 대한 결정이 단순한 현재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순간적 선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탈북 가족 및 친인척의 권유에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은 탈북한 북한주민들과 북한에 남아있는 이들의 가족들 사이에 충분한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의사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스스로의 국민정체성을 남한사람 북한사람 그 어느 쪽도 아니라고 부정하는 응답이 높아진 것은, 북한이탈주민을 연구하고 이해함에 있어 그들이 갖는 중층의 정체성과 복합적인 성격이 보다 조명 받아야 함을 상기시킨다. 북한이탈주민을 정치적 망명자나 경제적 난민으로만 보는 평면적인 시각이나, 이들이 남한 아니면 북한 중에 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이분법적 구도로는 탈북의 동기와 과정에 관여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감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연구를 위해 초국가적 시각과 다양한 학문적 관심을 융합한 맥락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제7장 결장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7장 결장

2020년은 코로나 19 감염병의 확산이 전세계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 한해였다. 남북관계 역시 큰 영향을 받았고, 직접적인 교류나 만남이 불가능하여 외교적 접촉도 많은 제약을 받았다. 북한은 2019년에 남북한 관계 개선이 진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으로 2020년을 '정면 돌파' 전략을 내걸고 북한식 발전과 번영의 길을 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올해 북한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지 못하며 제제가 지속되었고,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사람들의 이동이 통제되었으며, 홍수와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는 3중고를 겪었다. 이런 상황은 북한 주민들의 통일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북한주민들의 통일의식은 2011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기대와 지지는 여전히 남한 주민들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며, 다수의 사람들이 남북 간의 협력과 교류,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이 필요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남한 주민을 협력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남한 문화를 자주 접했고, 절반 이상의 주민들이 핵무기 보유를 찬성하고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 다음으로 남한을 친밀하게 생각하고, 미국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을 가한다고 생각한다. 남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친근감을 느끼고 있으며, 절반 이상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일정한 흐름은 매년 남북관계가 개선되거나 국제관계에 특별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북한 내부의 변화 상황, 한국 사회에서의 경험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고, 또한 한국으로 들어오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동기와 경로에 따라 조건지워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실현되지 못한 2020년에는 어떤 요인들로 인해 북한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발생했을까?

먼저 통일의식의 경우,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으나 올해에는 약간 감소했다. 통일이 가져올 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높게 유지되고 있으나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전반적인 수준은 매우 높지만, 지금까지 조사한 이래 통일에 대한 지지와 기대의 수준이 2년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는 앞으로도 눈여겨 봐야할 것이다.

남한에 대한 인식의 경우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오히려 전년 대비 상당히 증가했고(62.3%) 남한을 적대 대상으로 보는 인식도 매우 감소했다(18.3%). 남북관계에 2018년 수준으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접촉이 단절된 상황에서 긍정적 이미지가 좋아진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올해의 조사 결과만으로 일반화 하긴 어렵지만, 상호 교류가 이어지더라도 상호 인식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교류가 서로 긍정적인 경험이 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며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북한 사회 내부의 실태에 대한 인식이다. 북한사회의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은 2013년 이후 상

승했다가 2018년을 기점으로 다소 하락하고 있다. 여기엔 세대차이가 있는데 연령이 적을수록 자부심이 높고 연령이 많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에 대한 지지는 전체 기간을 보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2018년을 정점으로 다소 하락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직무평가나 핵무기 보유에 대한 평가가 다소 낮아지고 정부 비판행위가 많아졌다. 한편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심리가 고조되고 생산 규율이 다소 약화되었다. 그럼에도 사회통제가 강화되어 정치사회적 안정 기조가 유지되었다. 남북관계 개선과 활발한 외교적 노력들이 북한 정권에 대한 지지나 체제의 자부심을 높이기도 하는 요인이라는 점,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심리는 점차 높아지고 있고, 그럼에도 정치적 안정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변국 인식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변화와 단기적 변화가 있다. 북한주민들은 2020년 조사에서도 여전히 중국을 가장 친밀하게 느끼고 있었으나 2013년을 정점으로(83.1%) 다소 낮아져 올해는 65.7%가 중국을 가장 친밀하게 인식했다. 다음으로 친밀하게 느끼는 나라는 한국이며, 올해의 응답률은 2019년의 22.1%보다 약간 낮아진 20.4%였다. 북한에 대한 제제와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악화되는 한편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중국 외의 국가들, 특히 한국과 러시아에 대한 친밀감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을 미치는 국가로 미국(83.8%)을 꼽았고, 다음은 일본(7.6%)과 중국(6.7%)순이었다. 2013년만 해도 북한은 미국(72%)과 중국(19%)에게 위협을 느꼈지만, 2020년에는 미국(83.8%)을 가장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여기엔 학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학력이 높아질수록 미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줄고, 중

국에 대한 위협감은 컸다는 점이 흥미로운 점이다.

북한주민들이 남한 사람들에게 느끼는 친근감과 남한 사회 적용에 대한 만족도는 기본적으로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올해는 북한주민들이 남한 주민들에게 느끼는 친근감이 최근 5년간 조사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탈북의 이유로 가족의 권유와 자식세대의 미래에 대한 고려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한국으로 입국하는 북한주민들의 이주 패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스스로 남한사람도 북한사람도 아니라는 응답이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분법적인 판단 기준보다 이들의 중층적 정체성과 복합적 성격을 이해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코로나 19의 전지구적 확산과 남북관계의 단절, 북한의 3중고리는 어려움을 고려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의식과 인식은 오히려 기존과 유사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던 통일에 대한 기대가 다소 약화되고, 북한 체제의 자부심과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감소하고, 북한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느끼는 친밀감과 포용감이 동시에 감소했다는 것은 비록 작은 영향이지만 남북관계의 단절과 북한과 남한 사회 내부의 어려움들이 서로 악순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미약하게나마 감지할 수 있게 해준다.

2021년에는 코로나 위기가 종식되고 미국의 바이든 정부로의 교체에 따른 비핵화-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협상의 재개 여부, 남북 간 교류협력의 변화가 북한주민들의 통일 의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2018-2019년의 평화프로세스가 넘어서지 못했던 불신과 상호 입장

차이를 넘어서 성공적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기대와 북한 체제에 대한 지지와 자부심, 그리고 한국사회와 남한 주민들에 대한 친밀감이 동시에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지난 2년간 이어진 기대와 친밀감의 감소가 지속될지 북한주민에 대한 의식조사는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할 것이다.

부록

집계표 2020

설문지 2020

통일의 필요성

문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 하지 않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80.7%(88)	12.8%(14)	5.5%(6)	0.9%(1)	0.0%(0)	0.0%(0)	0.0%(0)
성별	남자	81.1	10.8	5.4	2.7	0.0	0.0	0.0
	여자	80.6	13.9	5.6	0.0	0.0	0.0	0.0
연령대	10대	75.0	25.0	0.0	0.0	0.0	0.0	0.0
	20대	64.7	20.6	11.8	2.9	0.0	0.0	0.0
	30대	83.3	11.1	5.6	0.0	0.0	0.0	0.0
	40대	92.9	7.1	0.0	0.0	0.0	0.0	0.0
	50대	90.0	6.7	3.3	0.0	0.0	0.0	0.0
	60대	100.0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92.9	7.1	0.0	0.0	0.0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0.0
	비당원	79.3	13.0	6.5	1.1	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88.4	7.2	4.3	0.0	0.0	0.0	0.0
	없다	67.5	22.5	7.5	2.5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50.0	30.0	20.0	0.0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85.9	9.4	4.7	0.0	0.0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79.4	14.7	2.9	2.9	0.0	0.0	0.0
남한친척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있다	84.1	11.6	2.9	1.4	0.0	0.0	0.0
	없다	75.0	15.0	10.0	0.0	0.0	0.0	0.0
결혼상태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68.8	20.8	8.3	2.1	0.0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91.3	4.3	4.3	0.0	0.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88.2	5.9	5.9	0.0	0.0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90.0	10.0	0.0	0.0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90.0	10.0	0.0	0.0	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주민 통일인식

문2) 귀하는 북한주민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기를 얼마나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약간 원한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78.9%(86)	18.3%(20)	0.0%(0)	1.8%(2)	0.0%(0)	0.0%(0)
성별	남자	73.0	18.9	0.0	5.4	2.7	0.0
	여자	81.9	18.1	0.0	0.0	0.0	0.0
연령대	10대	75.0	25.0	0.0	0.0	0.0	0.0
	20대	61.8	32.4	0.0	2.9	2.9	0.0
	30대	72.2	27.8	0.0	0.0	0.0	0.0
	40대	100.0	0.0	0.0	0.0	0.0	0.0
	50대	93.3	6.7	0.0	0.0	0.0	0.0
	60대	85.7	0.0	0.0	14.3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100.0	0.0	0.0	0.0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77.2	19.6	0.0	2.2	1.1	0.0
	무응답	50.0	5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89.9	10.1	0.0	0.0	0.0	0.0
	없다	60.0	32.5	0.0	5.0	2.5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70.0	30.0	0.0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82.8	15.6	0.0	0.0	1.6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73.5	20.6	0.0	5.9	0.0	0.0
남한친척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82.6	14.5	0.0	2.9	0.0	0.0
	없다	72.5	25.0	0.0	0.0	2.5	0.0
결혼상태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62.5	33.3	0.0	2.1	2.1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87.0	8.7	0.0	4.3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94.1	5.9	0.0	0.0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90.0	10.0	0.0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10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통일이유

문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민족 이니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 해 주기 위해	남북 간에 전쟁 위험을 없애기 위해	북한 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북한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기타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45.0%(49)	5.5%(6)	4.6%(5)	24.8%(27)	11.0%(12)	4.6%(5)	0.0%(0)	0.0%(0)
성별	남자	48.6	2.7	2.7	24.3	8.1	8.1	0.0	5.4
	여자	43.1	6.9	5.6	25.0	12.5	2.8	0.0	4.2
연령대	10대	50.0	0.0	0.0	25.0	0.0	25.0	0.0	0.0
	20대	50.0	8.8	2.9	20.6	11.8	2.9	0.0	2.9
	30대	27.8	5.6	0.0	38.9	5.6	16.7	0.0	5.6
	40대	42.9	7.1	0.0	28.6	21.4	0.0	0.0	0.0
	50대	50.0	3.3	10.0	16.7	10.0	0.0	0.0	10.0
	60대	42.9	0.0	14.3	28.6	14.3	0.0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42.9	0.0	7.1	28.6	7.1	7.1	0.0	7.1
	후보당원	100.0	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44.6	6.5	4.3	25.0	10.9	4.3	0.0	4.3
	무응답	50.0	0.0	0.0	0.0	5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40.6	5.8	5.8	23.2	13.0	4.3	0.0	7.2
	없다	52.5	5.0	2.5	27.5	7.5	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40.0	0.0	0.0	20.0	30.0	0.0	0.0	1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42.2	6.3	6.3	28.1	7.8	3.1	0.0	6.3
	거의 접할 수 없었다	52.9	5.9	2.9	20.6	8.8	8.8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44.9	8.7	4.3	24.6	10.1	1.4	0.0	5.8
	없다	45.0	0.0	5.0	25.0	12.5	10.0	0.0	2.5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50.0	4.2	4.2	25.0	8.3	6.3	0.0	2.1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30.4	4.3	4.3	30.4	13.0	8.7	0.0	8.7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52.9	0.0	0.0	23.5	17.6	0.0	0.0	5.9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50.0	10.0	0.0	10.0	20.0	0.0	0.0	1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30.0	20.0	20.0	30.0	0.0	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통일시기

문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 하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5.5%(6)	15.6%(17)	7.3%(8)	8.3%(9)	8.3%(9)	55.0%(60)	0.0%(0)	0.0%(0)
성별	남자	5.4	10.8	16.2	5.4	10.8	51.4	0.0	0.0
	여자	5.6	18.1	2.8	9.7	6.9	56.9	0.0	0.0
연령대	10대	25.0	0.0	25.0	0.0	0.0	50.0	0.0	0.0
	20대	2.9	17.6	8.8	11.8	11.8	47.1	0.0	0.0
	30대	5.6	11.1	16.7	0.0	11.1	55.6	0.0	0.0
	40대	7.1	21.4	0.0	14.3	7.1	50.0	0.0	0.0
	50대	6.7	10.0	0.0	6.7	3.3	73.3	0.0	0.0
	60대	0.0	42.9	0.0	0.0	14.3	42.9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14.3	7.1	7.1	7.1	7.1	57.1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4.3	15.2	7.6	8.7	8.7	55.4	0.0	0.0
	무응답	0.0	50.0	0.0	0.0	0.0	5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5.8	14.5	7.2	7.2	7.2	58.0	0.0	0.0
	없다	5.0	17.5	7.5	10.0	10.0	5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10.0	0.0	10.0	20.0	6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6.3	15.6	9.4	4.7	4.7	59.4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5.9	14.7	5.9	14.7	11.8	47.1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8.7	14.5	5.8	4.3	11.6	55.1	0.0	0.0
	없다	0.0	17.5	10.0	15.0	2.5	5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4.2	14.6	10.4	10.4	8.3	52.1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13.0	8.7	8.7	4.3	8.7	56.5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5.9	29.4	0.0	0.0	5.9	58.8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0.0	30.0	10.0	10.0	0.0	5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0.0	0.0	20.0	20.0	6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통일 집단 이익

문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북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82.6%(90)	13.8%(15)	3.7%(4)	0.0%(0)	0.0%(0)	0.0%(0)
성별	남자	75.7	18.9	5.4	0.0	0.0	0.0
	여자	86.1	11.1	2.8	0.0	0.0	0.0
연령대	10대	100.0	0.0	0.0	0.0	0.0	0.0
	20대	61.8	35.3	2.9	0.0	0.0	0.0
	30대	77.8	11.1	11.1	0.0	0.0	0.0
	40대	100.0	0.0	0.0	0.0	0.0	0.0
	50대	96.7	3.3	0.0	0.0	0.0	0.0
	60대	100.0	0.0	0.0	0.0	0.0	0.0
당원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당원	92.9	7.1	0.0	0.0	0.0	0.0
	후보당원	100.0	0.0	0.0	0.0	0.0	0.0
	비당원	81.5	15.2	3.3	0.0	0.0	0.0
	무응답	50.0	0.0	50.0	0.0	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84.1	13.0	2.9	0.0	0.0	0.0
	없다	80.0	15.0	5.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70.0	30.0	0.0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79.7	17.2	3.1	0.0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91.2	2.9	5.9	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84.1	13.0	2.9	0.0	0.0	0.0
	없다	80.0	15.0	5.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66.7	25.0	8.3	0.0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95.7	4.3	0.0	0.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100.0	0.0	0.0	0.0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100.0	0.0	0.0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80.0	20.0	0.0	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통일 개인 이익

문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 복응답
		68.8%(75)	24.8%(27)	5.5%(6)	0.0%(0)	0.9%(1)	0.0%(0)
성별	남자	67.6	24.3	5.4	0.0	2.7	0.0
	여자	69.4	25.0	5.6	0.0	0.0	0.0
연령대	10대	100.0	0.0	0.0	0.0	0.0	0.0
	20대	35.3	52.9	8.8	0.0	2.9	0.0
	30대	66.7	27.8	5.6	0.0	0.0	0.0
	40대	100.0	0.0	0.0	0.0	0.0	0.0
	50대	86.7	10.0	3.3	0.0	0.0	0.0
	60대	85.7	14.3	0.0	0.0	0.0	0.0
당원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당원	92.9	7.1	0.0	0.0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66.3	27.2	5.4	0.0	1.1	0.0
	무응답	50.0	0.0	50.0	0.0	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78.3	18.8	2.9	0.0	0.0	0.0
	없다	52.5	35.0	10.0	0.0	2.5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40.0	40.0	20.0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75.0	20.3	3.1	0.0	1.6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64.7	29.4	5.9	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72.5	23.2	4.3	0.0	0.0	0.0
	없다	62.5	27.5	7.5	0.0	2.5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47.9	39.6	10.4	0.0	2.1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87.0	13.0	0.0	0.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82.4	17.6	0.0	0.0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90.0	0.0	10.0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80.0	20.0	0.0	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빈부격차

문7)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북한의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49.5%(54)	23.9%(26)	13.8%(15)	6.4%(7)	4.6%(5)	1.8%(2)	0.0%(0)
성별	남자	56.8	16.2	16.2	8.1	2.7	0.0	0.0
	여자	45.8	27.8	12.5	5.6	5.6	2.8	0.0
연령대	10대	25.0	50.0	0.0	25.0	0.0	0.0	0.0
	20대	35.3	29.4	20.6	8.8	5.9	0.0	0.0
	30대	44.4	27.8	22.2	0.0	5.6	0.0	0.0
	40대	64.3	28.6	0.0	0.0	7.1	0.0	0.0
	50대	53.3	16.7	13.3	6.7	3.3	6.7	0.0
	60대	100.0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78.6	14.3	0.0	0.0	7.1	0.0	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0.0
	비당원	45.7	26.1	15.2	6.5	4.3	2.2	0.0
	무응답	50.0	0.0	5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50.7	20.3	14.5	4.3	7.2	2.9	0.0
	없다	47.5	30.0	12.5	1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30.0	50.0	20.0	0.0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50.0	18.8	14.1	7.8	6.3	3.1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52.9	26.5	11.8	5.9	2.9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49.3	21.7	15.9	4.3	5.8	2.9	0.0
	없다	50.0	27.5	10.0	10.0	2.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35.4	29.2	18.8	10.4	4.2	2.1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60.9	17.4	17.4	0.0	4.3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58.8	11.8	11.8	11.8	5.9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70.0	10.0	0.0	0.0	10.0	1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50.0	50.0	0.0	0.0	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실업문제

문8)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북한의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65.1%(71)	22.9%(25)	7.3%(8)	0.9%(1)	2.8%(3)	0.0%(0)	0.9%(1)
성별	남자	64.9	16.2	10.8	2.7	2.7	0.0	2.7
	여자	65.3	26.4	5.6	0.0	2.8	0.0	0.0
연령대	10대	50.0	25.0	0.0	0.0	25.0	0.0	0.0
	20대	58.8	32.4	5.9	2.9	0.0	0.0	0.0
	30대	66.7	22.2	5.6	0.0	5.6	0.0	0.0
	40대	85.7	14.3	0.0	0.0	0.0	0.0	0.0
	50대	60.0	20.0	13.3	0.0	3.3	0.0	3.3
	60대	85.7	14.3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78.6	14.3	0.0	0.0	0.0	0.0	7.1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0.0
	비당원	64.1	23.9	7.6	1.1	3.3	0.0	0.0
	무응답	50.0	0.0	5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69.6	15.9	8.7	0.0	4.3	0.0	1.4
	없다	57.5	35.0	5.0	2.5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60.0	30.0	10.0	0.0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65.6	21.9	4.7	1.6	4.7	0.0	1.6
	거의 접할 수 없었다	64.7	23.5	11.8	0.0	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63.8	21.7	10.1	0.0	2.9	0.0	1.4
	없다	67.5	25.0	2.5	2.5	2.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56.3	31.3	8.3	2.1	2.1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78.3	4.3	13.0	0.0	0.0	0.0	4.3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76.5	11.8	5.9	0.0	5.9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70.0	20.0	0.0	0.0	1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60.0	4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지역갈등

문9)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북한의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30.3%(33)	31.2%(34)	19.3%(21)	14.7%(16)	1.8%(2)	1.8%(2)	0.9%(1)
성별	남자	27.0	27.0	24.3	18.9	0.0	0.0	2.7
	여자	31.9	33.3	16.7	12.5	2.8	2.8	0.0
연령대	10대	25.0	25.0	25.0	25.0	0.0	0.0	0.0
	20대	23.5	38.2	20.6	14.7	2.9	0.0	0.0
	30대	27.8	33.3	16.7	16.7	5.6	0.0	0.0
	40대	35.7	35.7	14.3	14.3	0.0	0.0	0.0
	50대	33.3	23.3	23.3	10.0	0.0	6.7	3.3
	60대	57.1	14.3	0.0	28.6	0.0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35.7	28.6	21.4	7.1	0.0	0.0	7.1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0.0
	비당원	29.3	32.6	19.6	14.1	2.2	2.2	0.0
	무응답	50.0	0.0	0.0	5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30.4	27.5	17.4	17.4	2.9	2.9	1.4
	없다	30.0	37.5	22.5	1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20.0	50.0	30.0	0.0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28.1	31.3	17.2	17.2	1.6	3.1	1.6
	거의 접할 수 없었다	35.3	26.5	20.6	14.7	2.9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29.0	29.0	24.6	11.6	1.4	2.9	1.4
	없다	32.5	35.0	10.0	20.0	2.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7.1	33.3	18.8	16.7	2.1	2.1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39.1	30.4	13.0	13.0	0.0	0.0	4.3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35.3	35.3	17.6	11.8	0.0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20.0	40.0	10.0	10.0	10.0	1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30.0	10.0	40.0	20.0	0.0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이념갈등

문10)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북한의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39.4%(43)	22.9%(25)	11.0%(12)	14.7%(16)	10.1%(11)	1.8%(2)	0.0%(0)
성별	남자	40.5	16.2	16.2	13.5	13.5	0.0	0.0
	여자	38.9	26.4	8.3	15.3	8.3	2.8	0.0
연령대	10대	25.0	25.0	0.0	50.0	0.0	0.0	0.0
	20대	29.4	35.3	11.8	11.8	11.8	0.0	0.0
	30대	27.8	22.2	11.1	22.2	16.7	0.0	0.0
	40대	50.0	28.6	7.1	7.1	7.1	0.0	0.0
	50대	50.0	13.3	13.3	13.3	3.3	6.7	0.0
	60대	71.4	0.0	0.0	0.0	28.6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64.3	0.0	14.3	7.1	14.3	0.0	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0.0
	비당원	35.9	27.2	10.9	14.1	9.8	2.2	0.0
	무응답	50.0	0.0	0.0	5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43.5	17.4	13.0	13.0	10.1	2.9	0.0
	없다	32.5	32.5	7.5	17.5	1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40.0	30.0	30.0	0.0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37.5	25.0	7.8	12.5	14.1	3.1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41.2	17.6	11.8	23.5	5.9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37.7	21.7	13.0	13.0	11.6	2.9	0.0
	없다	42.5	25.0	7.5	17.5	7.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31.3	29.2	10.4	16.7	10.4	2.1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52.2	17.4	13.0	8.7	8.7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52.9	17.6	11.8	5.9	11.8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30.0	20.0	20.0	10.0	10.0	1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40.0	20.0	0.0	30.0	10.0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대북지원

문1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60.6%(66)	19.3%(21)	11.0%(12)	8.3%(9)	0.9%(1)	0.0%(0)
성별	남자	51.4	21.6	16.2	10.8	0.0	0.0
	여자	65.3	18.1	8.3	6.9	1.4	0.0
연령대	10대	50.0	25.0	0.0	25.0	0.0	0.0
	20대	55.9	23.5	14.7	5.9	0.0	0.0
	30대	44.4	33.3	11.1	11.1	0.0	0.0
	40대	71.4	14.3	0.0	14.3	0.0	0.0
	50대	70.0	10.0	10.0	6.7	3.3	0.0
	60대	71.4	14.3	14.3	0.0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57.1	7.1	7.1	28.6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62.0	19.6	12.0	5.4	1.1	0.0
	무응답	50.0	5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60.9	17.4	10.1	10.1	1.4	0.0
	없다	60.0	22.5	12.5	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30.0	30.0	10.0	3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60.9	18.8	12.5	6.3	1.6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67.6	17.6	8.8	5.9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66.7	14.5	10.1	7.2	1.4	0.0
	없다	50.0	27.5	12.5	1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56.3	22.9	12.5	6.3	2.1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47.8	30.4	13.0	8.7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76.5	0.0	11.8	11.8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60.0	20.0	0.0	2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80.0	10.0	10.0	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사회문화교류

문12)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52.3%(57)	29.4%(32)	14.7%(16)	1.8%(2)	1.8%(2)	0.0%(0)
성별	남자	48.6	24.3	24.3	2.7	0.0	0.0
	여자	54.2	31.9	9.7	1.4	2.8	0.0
연령대	10대	50.0	50.0	0.0	0.0	0.0	0.0
	20대	38.2	32.4	26.5	2.9	0.0	0.0
	30대	55.6	27.8	16.7	0.0	0.0	0.0
	40대	57.1	21.4	14.3	7.1	0.0	0.0
	50대	60.0	30.0	3.3	0.0	6.7	0.0
	60대	71.4	28.6	0.0	0.0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57.1	21.4	14.3	7.1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52.2	29.3	15.2	1.1	2.2	0.0
	무응답	50.0	5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56.5	30.4	8.7	1.4	2.9	0.0
	없다	45.0	27.5	25.0	2.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20.0	50.0	20.0	1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53.1	26.6	15.6	1.6	3.1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58.8	29.4	11.8	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58.0	24.6	11.6	2.9	2.9	0.0
	없다	42.5	37.5	2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39.6	35.4	20.8	2.1	2.1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56.5	26.1	13.0	4.3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64.7	35.3	0.0	0.0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70.0	10.0	10.0	0.0	1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60.0	20.0	20.0	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경제협력

문13)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61.5%(67)	23.9%(26)	11.0%(12)	2.8%(3)	0.9%(1)	0.0%(0)
성별	남자	40.5	35.1	18.9	5.4	0.0	0.0
	여자	72.2	18.1	6.9	1.4	1.4	0.0
연령대	10대	75.0	25.0	0.0	0.0	0.0	0.0
	20대	61.8	20.6	14.7	2.9	0.0	0.0
	30대	50.0	44.4	5.6	0.0	0.0	0.0
	40대	78.6	14.3	0.0	7.1	0.0	0.0
	50대	60.0	23.3	10.0	3.3	3.3	0.0
	60대	57.1	14.3	28.6	0.0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50.0	21.4	14.3	14.3	0.0	0.0
	후보당원	100.0	0.0	0.0	0.0	0.0	0.0
	비당원	63.0	23.9	10.9	1.1	1.1	0.0
	무응답	50.0	5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있다	60.9	26.1	8.7	2.9	1.4	0.0
	없다	62.5	20.0	15.0	2.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50.0	20.0	20.0	1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54.7	29.7	10.9	3.1	1.6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접할 수 없었다	76.5	14.7	8.8	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63.8	18.8	13.0	2.9	1.4	0.0
	없다	57.5	32.5	7.5	2.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64.6	22.9	10.4	2.1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52.2	21.7	21.7	4.3	8.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76.5	11.8	11.8	0.0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50.0	30.0	0.0	10.0	1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50.0	50.0	0.0	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북회담

문14)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58.7%(64)	23.9%(26)	9.2%(10)	6.4%(7)	1.8%(2)	0.0%(0)
성별	남자	45.9	27.0	16.2	10.8	0.0	0.0
	여자	65.3	22.2	5.6	4.2	2.8	0.0
연령대	10대	100.0	0.0	0.0	0.0	0.0	0.0
	20대	58.8	26.5	8.8	5.9	0.0	0.0
	30대	44.4	33.3	11.1	11.1	0.0	0.0
	40대	78.6	7.1	14.3	0.0	0.0	0.0
	50대	50.0	30.0	3.3	10.0	6.7	0.0
	60대	71.4	14.3	14.3	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64.3	7.1	7.1	21.4	0.0	0.0
	후보당원	100.0	0.0	0.0	0.0	0.0	0.0
	비당원	58.7	25.0	9.8	4.3	2.2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있다	58.0	20.3	10.1	8.7	2.9	0.0
	없다	60.0	30.0	7.5	2.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50.0	20.0	10.0	2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53.1	28.1	7.8	7.8	3.1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접할 수 없었다	73.5	14.7	11.8	0.0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58.0	23.2	10.1	5.8	2.9	0.0
	없다	60.0	25.0	7.5	7.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62.5	25.0	6.3	4.2	2.1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56.5	17.4	17.4	8.7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64.7	23.5	5.9	5.9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50.0	10.0	10.0	20.0	1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40.0	50.0	10.0	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통일방식

문1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절충 하여 통일한다	통일 이후에도 북한과 남한의 두 체제가 각각 유지된다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	통일이 이뤄지기 만 하면 어떤 체제든 상관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3.7%(4)	23.9%(26)	7.3%(8)	29.4%(32)	35.8%(39)	0.0%(0)	0.0%(0)
성별	남자	2.7	29.7	10.8	27.0	29.7	0.0	0.0
	여자	4.2	20.8	5.6	30.6	38.9	0.0	0.0
연령대	10대	0.0	25.0	25.0	25.0	25.0	0.0	0.0
	20대	0.0	26.5	14.7	23.5	35.3	0.0	0.0
	30대	11.1	16.7	5.6	22.2	44.4	0.0	0.0
	40대	0.0	21.4	0.0	50.0	28.6	0.0	0.0
	50대	6.7	16.7	3.3	30.0	43.3	0.0	0.0
	60대	0.0	57.1	0.0	28.6	14.3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7.1	14.3	0.0	35.7	42.9	0.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3.3	23.9	8.7	29.3	34.8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0.0
정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있다	5.8	23.2	4.3	34.8	31.9	0.0	0.0
	없다	0.0	25.0	12.5	20.0	42.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20.0	30.0	30.0	2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4.7	21.9	4.7	37.5	31.3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9	26.5	5.9	14.7	50.0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있다	4.3	21.7	7.2	30.4	36.2	0.0	0.0
	없다	2.5	27.5	7.5	27.5	3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1	25.0	14.6	20.8	37.5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0.0	8.7	0.0	39.1	52.2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0.0	41.2	5.9	29.4	23.5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0.0	30.0	0.0	70.0	0.0	0.0	0.0
결혼상태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30.0	20.0	0.0	10.0	4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통일 후 거주 지역

문16) 귀하는 통일이 되면 어느 지역에서 거주할 생각이십니까?

		북한에서 살 것이다	남한에서 살 것이다	남쪽이든 북쪽이든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것이다	외국에 나가 살 것이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10.1%(11)	49.5%(54)	34.9%(38)	3.7%(4)	0.0%(0)	0.9%(1)
성별	남자	13.5	45.9	37.8	2.7	0.0	0.0
	여자	8.5	52.1	33.8	4.2	0.0	1.4
연령대	10대	0.0	100.0	0.0	0.0	0.0	0.0
	20대	14.7	47.1	32.4	2.9	0.0	2.9
	30대	0.0	41.2	52.9	5.9	0.0	0.0
	40대	7.1	42.9	42.9	7.1	0.0	0.0
	50대	10.0	50.0	36.7	3.3	0.0	0.0
	60대	28.6	71.4	0.0	0.0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21.4	35.7	42.9	0.0	0.0	0.0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0.0
	비당원	8.8	52.7	34.1	3.3	0.0	1.1
	무응답	0.0	50.0	0.0	50.0	0.0	0.0
정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11.6	44.9	39.1	4.3	0.0	0.0
	없다	7.7	59.0	28.2	2.6	0.0	2.6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20.0	40.0	40.0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2.5	46.9	32.8	6.3	0.0	1.6
	거의 접할 수 없었다	3.0	57.6	39.4	0.0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8.7	60.9	27.5	1.4	0.0	1.4
	없다	12.8	30.8	48.7	7.7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10.6	53.2	29.8	4.3	0.0	2.1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8.7	60.9	30.4	0.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11.8	47.1	35.3	5.9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20.0	40.0	30.0	10.0	0.0	0.0
결혼상태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30.0	70.0	0.0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통일에 대한 내용

문17)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가장 많이 들었던 통일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국주의 교양	남한에 대한 이해	남조선 해방	사회주의 및 주체사상의 가치	남북한 민족의식 함양	통일의 이익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26.6%(29)	7.3%(8)	13.8%(15)	21.1%(23)	11.9%(13)	16.5%(18)	0.0%(0)	2.8%(3)
성별	남자	29.7	2.7	24.3	16.2	8.1	16.2	0.0	2.7
	여자	25.0	9.7	8.3	23.6	13.9	16.7	0.0	2.8
연령대	10대	25.0	0.0	0.0	50.0	0.0	25.0	0.0	0.0
	20대	32.4	5.9	11.8	14.7	8.8	26.5	0.0	2.9
	30대	27.8	0.0	22.2	33.3	11.1	5.6	0.0	0.0
	40대	7.1	21.4	21.4	42.9	7.1	0.0	0.0	0.0
	50대	26.7	6.7	3.3	13.3	23.3	20.0	0.0	6.7
	60대	14.3	14.3	42.9	0.0	0.0	14.3	0.0	14.3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35.7	0.0	28.6	14.3	7.1	14.3	0.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0.0	0.0	0.0
	비당원	26.1	8.7	12.0	21.7	12.0	17.4	0.0	2.2
	무응답	0.0	0.0	0.0	50.0	0.0	0.0	0.0	5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26.1	7.2	20.3	18.8	11.6	13.0	0.0	2.9
	없다	27.5	7.5	2.5	25.0	12.5	22.5	0.0	2.5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40.0	0.0	20.0	20.0	10.0	1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31.3	9.4	15.6	14.1	12.5	15.6	0.0	1.6
	거의 접할 수 없었다	14.7	5.9	8.8	35.3	11.8	20.6	0.0	2.9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10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29.0	5.8	14.5	20.3	8.7	17.4	0.0	4.3
	없다	22.5	10.0	12.5	22.5	17.5	1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9.2	6.3	10.4	22.9	10.4	20.8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21.7	4.3	26.1	21.7	13.0	13.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11.8	11.8	11.8	17.6	11.8	17.6	0.0	17.6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50.0	20.0	10.0	0.0	20.0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20.0	0.0	10.0	40.0	10.0	2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對남한인식

문1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도와주어야 할 자원이 대상이다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선의를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대상이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5.5%(6)	63.3%(69)	5.5%(6)	7.3%(8)	18.3%(20)	0.0%(0)	0.0%(0)
성별	남자	2.7	56.8	8.1	8.1	24.3	0.0	0.0
	여자	6.9	66.7	4.2	6.9	15.3	0.0	0.0
연령대	10대	0.0	75.0	25.0	0.0	0.0	0.0	0.0
	20대	2.9	58.8	8.8	11.8	17.6	0.0	0.0
	30대	0.0	50.0	5.6	11.1	33.3	0.0	0.0
	40대	7.1	57.1	7.1	7.1	21.4	0.0	0.0
	50대	13.3	73.3	0.0	3.3	10.0	0.0	0.0
	60대	0.0	71.4	0.0	0.0	28.6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0.0	42.9	0.0	7.1	50.0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0.0
	비당원	6.5	65.2	6.5	7.6	14.1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4.3	58.0	5.8	8.7	23.2	0.0	0.0
	없다	7.5	72.5	5.0	5.0	1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50.0	10.0	10.0	3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7.8	62.5	3.1	9.4	17.2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9	67.6	8.8	2.9	17.6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5.8	66.7	5.8	8.7	13.0	0.0	0.0
	없다	5.0	57.5	5.0	5.0	27.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6.3	62.5	8.3	6.3	16.7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0.0	56.5	4.3	4.3	34.8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5.9	82.4	0.0	5.9	5.9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10.0	50.0	0.0	20.0	2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10.0	60.0	10.0	10.0	10.0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4.19 혁명

문19)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9.2%(10)	37.6%(41)	26.6%(29)	24.8%(27)	1.8%(2)	0.0%(0)
성별	남자	10.8	45.9	18.9	24.3	0.0	0.0
	여자	8.3	33.3	30.6	25.0	2.8	0.0
연령대	10대	0.0	25.0	50.0	25.0	0.0	0.0
	20대	2.9	26.5	38.2	32.4	0.0	0.0
	30대	5.6	55.6	16.7	22.2	0.0	0.0
	40대	21.4	42.9	21.4	14.3	0.0	0.0
	50대	16.7	30.0	20.0	26.7	6.7	0.0
	60대	0.0	71.4	28.6	0.0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당원	당원	21.4	42.9	14.3	21.4	0.0	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7.6	37.0	28.3	25.0	2.2	0.0
	무응답	0.0	50.0	5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1.6	40.6	26.1	18.8	2.9	0.0
	없다	5.0	32.5	27.5	3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40.0	40.0	2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0.9	42.2	21.9	21.9	3.1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8.8	29.4	29.4	32.4	0.0	0.0
남한친척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7.2	33.3	30.4	26.1	2.9	0.0
	없다	12.5	45.0	20.0	22.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4.2	35.4	31.3	27.1	2.1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13.0	39.1	26.1	21.7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11.8	35.3	23.5	23.5	5.9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30.0	50.0	10.0	1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40.0	20.0	40.0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5.18 항쟁

문20)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25.7%(28)	43.1%(47)	16.5%(18)	13.8%(15)	0.9%(1)	0.0%(0)
성별	남자	27.0	45.9	8.1	18.9	0.0	0.0
	여자	25.0	41.7	20.8	11.1	1.4	0.0
연령대	10대	0.0	50.0	25.0	25.0	0.0	0.0
	20대	8.8	50.0	17.6	23.5	0.0	0.0
	30대	27.8	44.4	11.1	16.7	0.0	0.0
	40대	50.0	35.7	14.3	0.0	0.0	0.0
	50대	36.7	33.3	20.0	6.7	3.3	0.0
	60대	28.6	57.1	14.3	0.0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당원	당원	50.0	35.7	7.1	7.1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22.8	43.5	17.4	15.2	1.1	0.0
	무응답	0.0	50.0	5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31.9	40.6	17.4	8.7	1.4	0.0
	없다	15.0	47.5	15.0	22.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0.0	70.0	20.0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29.7	46.9	12.5	9.4	1.6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3.5	29.4	20.6	26.5	0.0	0.0
남한친척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18.8	43.5	18.8	17.4	1.4	0.0
	없다	37.5	42.5	12.5	7.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8.3	52.1	16.7	20.8	2.1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34.8	43.5	17.4	4.3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47.1	23.5	23.5	5.9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60.0	30.0	0.0	1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20.0	50.0	10.0	20.0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88 서울 올림픽

문2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11.0%(12)	22.0%(24)	32.1%(35)	30.3%(33)	2.8%(3)	1.8%(2)
성별	남자	16.2	24.3	24.3	32.4	2.7	0.0
	여자	8.3	20.8	36.1	29.2	2.8	0.0
연령대	10대	0.0	0.0	75.0	25.0	0.0	0.0
	20대	2.9	23.5	26.5	47.1	0.0	0.0
	30대	11.1	16.7	44.4	22.2	5.6	0.0
	40대	14.3	21.4	28.6	35.7	0.0	0.0
	50대	20.0	30.0	23.3	20.0	3.3	3.3
	60대	14.3	14.3	42.9	0.0	14.3	14.3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당원	당원	28.6	14.3	21.4	28.6	7.1	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8.7	22.8	33.7	30.4	2.2	2.2
	무응답	0.0	50.0	5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3.0	29.0	30.4	20.3	4.3	2.9
	없다	7.5	10.0	35.0	47.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0.0	40.0	40.0	1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4.1	21.9	31.3	25.0	4.7	3.1
	거의 접할 수 없었다	5.9	17.6	29.4	47.1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7.2	18.8	34.8	33.3	2.9	2.9
	없다	17.5	27.5	27.5	25.0	2.5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1	16.7	29.2	47.9	2.1	2.1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17.4	21.7	34.8	17.4	4.3	4.3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23.5	29.4	41.2	5.9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30.0	30.0	20.0	10.0	1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30.0	40.0	30.0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2002 월드컵

문2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7.3%(8)	21.1%(23)	35.8%(39)	33.9%(37)	1.8%(2)	0.0%(0)
성별	남자	16.2	21.6	32.4	29.7	0.0	0.0
	여자	2.8	20.8	37.5	36.1	2.8	0.0
연령대	10대	25.0	0.0	50.0	25.0	0.0	0.0
	20대	2.9	26.5	38.2	32.4	0.0	0.0
	30대	5.6	33.3	27.8	27.8	5.6	0.0
	40대	14.3	21.4	35.7	28.6	0.0	0.0
	50대	10.0	16.7	26.7	43.3	3.3	0.0
	60대	0.0	0.0	71.4	28.6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당원	당원	21.4	28.6	14.3	35.7	0.0	0.0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0.0
	비당원	5.4	19.6	39.1	33.7	2.2	0.0
	무응답	0.0	50.0	0.0	5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0.1	23.2	31.9	31.9	2.9	0.0
	없다	2.5	17.5	42.5	37.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0.0	20.0	50.0	2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9.4	25.0	31.3	31.3	3.1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9	14.7	41.2	41.2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5.8	15.9	37.7	39.1	1.4	0.0
	없다	10.0	30.0	32.5	25.0	2.5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4.2	25.0	33.3	35.4	2.1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13.0	17.4	47.8	21.7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11.8	5.9	35.3	47.1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10.0	40.0	20.0	20.0	1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20.0	40.0	40.0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세월호 사건

문2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26.6%(29)	29.4%(32)	16.5%(18)	25.7%(28)	1.8%(2)	0.0%(0)
성별	남자	32.4	29.7	16.2	21.6	0.0	0.0
	여자	23.6	29.2	16.7	27.8	2.8	0.0
연령대	10대	0.0	25.0	25.0	50.0	0.0	0.0
	20대	17.6	38.2	17.6	26.5	0.0	0.0
	30대	33.3	33.3	16.7	11.1	5.6	0.0
	40대	57.1	14.3	7.1	21.4	0.0	0.0
	50대	30.0	23.3	20.0	23.3	3.3	0.0
	60대	0.0	42.9	14.3	42.9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당원	당원	50.0	14.3	21.4	14.3	0.0	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23.9	31.5	16.3	26.1	2.2	0.0
	무응답	0.0	50.0	0.0	5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30.4	27.5	14.5	26.1	1.4	0.0
	없다	20.0	32.5	20.0	25.0	2.5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0.0	70.0	20.0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31.3	31.3	15.6	20.3	1.6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3.5	14.7	17.6	41.2	2.9	0.0
남한친척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20.3	29.0	20.3	29.0	1.4	0.0
	없다	37.5	30.0	10.0	20.0	2.5	0.0
결혼상태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14.6	33.3	16.7	31.3	4.2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34.8	30.4	17.4	17.4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35.3	35.3	11.8	17.6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60.0	10.0	10.0	2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20.0	20.0	30.0	30.0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개성공업지구 운영

문2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25.7%(28)	42.2%(46)	20.2%(22)	10.2%(11)	0.9%(1)	0.0%(0)
성별	남자	27.0	40.5	21.6	10.8	0.0	0.0
	여자	25.0	43.1	19.4	9.7	1.4	1.4
연령대	10대	0.0	50.0	25.0	25.0	0.0	0.0
	20대	20.6	32.4	32.4	14.7	0.0	0.0
	30대	33.3	38.9	16.7	5.6	5.6	0.0
	40대	35.7	50.0	14.3	0.0	0.0	0.0
	50대	26.7	50.0	10.0	10.0	0.0	3.3
	60대	28.6	42.9	28.6	0.0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당원	당원	57.1	28.6	7.1	7.1	0.0	0.0
	후보당원	100.0	0.0	0.0	0.0	0.0	0.0
	비당원	20.7	44.6	21.7	10.9	1.1	1.1
	무응답	0.0	50.0	5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31.9	44.9	15.9	5.8	1.4	0.0
	없다	15.0	37.5	27.5	17.5	0.0	2.5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30.0	60.0	0.0	1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25.0	43.8	23.4	4.7	1.6	1.6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6.5	35.3	17.6	20.6	0.0	0.0
남한친척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24.6	40.6	18.8	14.5	0.0	1.4
	없다	27.5	45.0	22.5	2.5	2.5	0.0
결혼상태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16.7	41.7	27.1	14.6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30.4	39.1	17.4	13.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41.2	41.2	11.8	0.0	0.0	5.9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40.0	50.0	0.0	0.0	1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20.0	50.0	3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촛불집회

문2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16.5%(18)	24.8%(27)	19.3%(21)	35.8%(39)	2.8%(3)	0.0%(0)
성별	남자	21.6	21.6	21.6	35.1	0.0	0.0
	여자	13.9	26.4	18.1	36.1	4.2	1.4
연령대	10대	0.0	25.0	25.0	50.0	0.0	0.0
	20대	20.6	26.5	14.7	38.2	0.0	0.0
	30대	16.7	22.2	27.8	27.8	5.6	0.0
	40대	28.6	21.4	7.1	42.9	0.0	0.0
	50대	13.3	26.7	20.0	33.3	3.3	3.3
	60대	0.0	28.6	28.6	28.6	14.3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당원	당원	28.6	21.4	7.1	42.9	0.0	0.0
	후보당원	100.0	0.0	0.0	0.0	0.0	0.0
	비당원	14.1	26.1	20.7	34.8	3.3	1.1
	무응답	0.0	0.0	50.0	50.0	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18.8	23.2	15.9	36.2	4.3	1.4
	없다	12.5	27.5	25.0	3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0.0	40.0	10.0	30.0	0.0	1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20.3	20.3	25.0	29.7	4.7	0.0
남한친척	거의 접할 수 없었다	11.8	29.4	11.8	47.1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있다	10.1	29.0	18.8	37.7	2.9	1.4
	없다	27.5	17.5	20.0	32.5	2.5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16.7	25.0	18.8	37.5	2.1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26.1	21.7	30.4	17.4	4.3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5.9	35.3	11.8	41.2	0.0	5.9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30.0	10.0	20.0	30.0	1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30.0	10.0	60.0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1997 IMF 외환위기

문2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2.8%(3)	7.3%(8)	18.3%(20)	69.7%(76)	1.8%(2)	0.0%(0)
성별	남자	8.1	10.8	21.6	59.5	0.0	0.0
	여자	0.0	5.6	16.7	75.0	2.8	0.0
연령대	10대	0.0	0.0	25.0	75.0	0.0	0.0
	20대	2.9	11.8	17.6	67.6	0.0	0.0
	30대	0.0	5.6	33.3	55.6	5.6	0.0
	40대	7.1	7.1	21.4	64.3	0.0	0.0
	50대	3.3	3.3	10.0	80.0	3.3	0.0
	60대	0.0	14.3	0.0	85.7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당원	당원	7.1	14.3	14.3	64.3	0.0	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2.2	6.5	18.5	70.7	2.2	0.0
	무응답	0.0	0.0	50.0	50.0	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4.3	7.2	17.4	68.1	2.9	0.0
	없다	0.0	7.5	20.0	72.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10.0	30.0	6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3.1	7.8	23.4	62.5	3.1	0.0
남한친척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9	5.9	5.9	85.3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있다	1.4	5.8	15.9	75.4	1.4	0.0
	없다	5.0	10.0	22.5	60.0	2.5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1	8.3	22.9	64.6	2.1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8.7	0.0	21.7	69.6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0.0	11.8	11.8	76.5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0.0	20.0	20.0	50.0	1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0.0	0.0	100.0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K-POP (케이팝)

문27)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4.6%(5)	8.3%(9)	15.6%(17)	69.7%(76)	1.8%(2)	0.0%(0)
성별	남자	10.8	8.1	18.9	62.2	0.0	0.0
	여자	1.4	8.3	13.9	73.6	2.8	0.0
연령대	10대	0.0	0.0	50.0	50.0	0.0	0.0
	20대	8.8	11.8	11.8	67.6	0.0	0.0
	30대	0.0	5.6	33.3	55.6	5.6	0.0
	40대	7.1	7.1	7.1	78.6	0.0	0.0
	50대	3.3	6.7	6.7	80.0	3.3	0.0
	60대	0.0	14.3	0.0	85.7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7.1	7.1	7.1	78.6	0.0	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4.3	8.7	16.3	68.5	2.2	0.0
	무응답	0.0	0.0	50.0	5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5.8	7.2	14.5	69.6	2.9	0.0
	없다	2.5	10.0	17.5	7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20.0	10.0	7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6.3	7.8	18.8	64.1	3.1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9	5.9	11.8	79.4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2.9	8.7	15.9	71.0	1.4	0.0
	없다	7.5	7.5	15.0	67.5	2.5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4.2	8.3	22.9	62.5	2.1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8.7	0.0	17.4	73.9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0.0	17.6	5.9	76.5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10.0	20.0	10.0	50.0	1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0.0	0.0	100.0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문화 경험

문2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자주 접해 봤다	한두 번 접해 봤다	전혀 접해보지 못했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43.1%(47)	39.4%(43)	17.4%(19)	0.0%(0)	0.0%(0)
성별	남자	48.6	40.5	10.8	0.0	0.0
	여자	40.3	38.9	20.8	0.0	0.0
연령대	10대	75.0	25.0	0.0	0.0	0.0
	20대	41.2	44.1	14.7	0.0	0.0
	30대	38.9	50.0	11.1	0.0	0.0
	40대	64.3	21.4	14.3	0.0	0.0
	50대	40.0	36.7	23.3	0.0	0.0
	60대	14.3	42.9	42.9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50.0	42.9	7.1	0.0	0.0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비당원	42.4	40.2	17.4	0.0	0.0
	무응답	50.0	0.0	5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50.7	33.3	15.9	0.0	0.0
	없다	30.0	50.0	2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60.0	10.0	3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46.9	42.2	10.9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9.4	44.1	26.5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40.6	46.4	13.0	0.0	0.0
	없다	47.5	27.5	2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35.4	47.9	16.7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39.1	39.1	21.7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41.2	35.3	23.5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80.0	20.0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60.0	30.0	10.0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문화 유통경로

문29) 귀하는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어떤 경로를 통하여 접하십니까?

		시장에서 직접 구하여 접했다	주변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에게서 구하여 접했다.	주변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과 함께 접했다	외국에 나갔 을 때 접했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3.7%(4)	55.0%(60)	19.3%(21)	2.8%(3)	0.9%(1)	1.8%(2)
성별	남자	9.1	66.7	15.2	9.1	0.0	0.0
	여자	1.7	65.5	27.6	0.0	1.7	3.4
연령대	10대	0.0	75.0	25.0	0.0	0.0	0.0
	20대	3.3	60.0	30.0	6.7	0.0	0.0
	30대	0.0	62.5	31.3	0.0	0.0	6.3
	40대	8.3	75.0	0.0	0.0	8.3	8.3
	50대	8.7	69.6	21.7	0.0	0.0	0.0
	60대	0.0	50.0	25.0	25.0	0.0	0.0
당원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당원	7.7	76.9	15.4	0.0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3.9	63.2	25.0	3.9	1.3	2.6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5.2	63.8	20.7	5.2	1.7	3.4
	없다	3.0	69.7	27.3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57.1	14.3	14.3	0.0	14.3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3.5	71.9	19.3	3.5	0.0	1.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7.7	53.8	34.6	0.0	3.8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5.0	58.3	28.3	5.0	1.7	1.7
	없다	3.2	80.6	12.9	0.0	0.0	3.2
	무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4	65.9	26.8	4.9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11.1	50.0	38.9	0.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7.7	53.8	15.4	7.7	7.7	7.7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0.0	90.0	0.0	0.0	0.0	1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88.9	11.1	0.0	0.0	0.0
결혼상태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문화 친숙도

문30) 귀하는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매우 친숙했다	약간 친숙했다	별로 친숙하지 않았다	전혀 친숙하지 않았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47.7%(52)	31.2%(34)	3.7%(4)	2.8%(3)	0.0%(0)	0.0%(0)
성별	남자	51.5	39.4	6.1	3.0	0.0	0.0
	여자	58.3	35.0	3.3	3.3	0.0	0.0
연령대	10대	25.0	75.0	0.0	0.0	0.0	0.0
	20대	40.0	50.0	6.7	3.3	0.0	0.0
	30대	76.5	23.5	0.0	0.0	0.0	0.0
	40대	58.3	33.3	8.3	0.0	0.0	0.0
	50대	66.7	25.0	0.0	8.3	0.0	0.0
	60대	50.0	50.0	0.0	0.0	0.0	0.0
당원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당원	53.8	38.5	0.0	7.7	0.0	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56.4	37.2	5.1	1.3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61.7	31.7	3.3	3.3	0.0	0.0
	없다	45.5	45.5	6.1	3.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28.6	71.4	0.0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57.6	37.3	1.7	3.4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57.7	26.9	11.5	3.8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55.7	34.4	6.6	3.3	0.0	0.0
	없다	56.3	40.6	0.0	3.1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42.9	47.6	7.1	2.4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66.7	27.8	0.0	5.6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50.0	35.7	7.1	7.1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80.0	20.0	0.0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77.8	22.2	0.0	0.0	0.0	0.0
결혼상태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문화 접촉 후 호감도 변화

문31) 귀하는 남한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한 후 남한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호감도가	호감도가	호감도에	호감도가	호감도가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증가 하였다	약간 증가 하였다	변화가 없었다	약간 감소 하였다	매우 감소 하였다		
		61.5%(67)	14.7%(16)	3.7%(4)	3.7%(4)	0.0%(0)	0.9%(1)	0.0%(0)
성별	남자	69.7	18.2	9.1	3.0	0.0	0.0	0.0
	여자	74.6	16.9	1.7	5.1	0.0	1.7	0.0
연령대	10대	50.0	50.0	0.0	0.0	0.0	0.0	0.0
	20대	70.0	20.0	6.7	3.3	0.0	0.0	0.0
	30대	75.0	12.5	6.3	6.3	0.0	0.0	0.0
	40대	83.3	8.3	0.0	0.0	0.0	8.3	0.0
	50대	75.0	16.7	0.0	8.3	0.0	0.0	0.0
	60대	75.0	25.0	0.0	0.0	0.0	0.0	0.0
당원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당원	69.2	15.4	0.0	15.4	0.0	0.0	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0.0
	비당원	74.0	18.2	5.2	1.3	0.0	1.3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있다	80.0	11.7	1.7	5.0	0.0	1.7	0.0
	없다	59.4	28.1	9.4	3.1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42.9	42.9	14.3	0.0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81.4	11.9	1.7	5.1	0.0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60.0	24.0	8.0	4.0	0.0	4.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있다	68.9	19.7	4.9	4.9	0.0	1.6	0.0
	없다	80.6	12.9	3.2	3.2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68.3	19.5	9.8	2.4	0.0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77.8	16.7	0.0	5.6	0.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71.4	14.3	0.0	7.1	0.0	7.1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90.0	10.0	0.0	0.0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66.7	22.2	0.0	11.1	0.0	0.0	0.0
결혼상태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선거방식

문32)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78.9%(86)	14.7%(16)	2.8%(3)	2.8%(3)	0.9%(1)	0.0%(0)
성별	남자	86.5	10.8	2.7	0.0	0.0	0.0
	여자	93.1	4.2	0.0	1.4	1.4	0.0
연령대	10대	100.0	0.0	0.0	0.0	0.0	0.0
	20대	85.3	11.8	0.0	2.9	0.0	0.0
	30대	88.9	11.1	0.0	0.0	0.0	0.0
	40대	100.0	0.0	0.0	0.0	0.0	0.0
	50대	90.0	3.3	3.3	0.0	3.3	0.0
	60대	100.0	0.0	0.0	0.0	0.0	0.0
당원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당원	100.0	0.0	0.0	0.0	0.0	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91.3	6.5	1.1	0.0	1.1	0.0
	무응답	50.0	50.0	0.0	0.0	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94.2	2.9	1.4	0.0	1.4	0.0
	없다	85.0	12.5	0.0	2.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80.0	20.0	0.0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89.1	7.8	1.6	0.0	1.6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97.1	0.0	0.0	2.9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94.2	2.9	1.4	0.0	1.4	0.0
	없다	85.0	12.5	0.0	2.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83.3	12.5	0.0	2.1	2.1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100.0	0.0	0.0	0.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100.0	0.0	0.0	0.0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90.0	10.0	0.0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90.0	0.0	10.0	0.0	0.0	0.0
결혼상태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사회복지

문33)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78.9%(86)	14.7%(16)	2.8%(3)	2.8%(3)	0.9%(1)	0.0%(0)
성별	남자	73.0	21.6	5.4	0.0	0.0	0.0
	여자	81.9	11.1	1.4	4.2	1.4	0.0
연령대	10대	100.0	0.0	0.0	0.0	0.0	0.0
	20대	67.6	26.5	2.9	2.9	0.0	0.0
	30대	88.9	5.6	5.6	0.0	0.0	0.0
	40대	78.6	14.3	0.0	7.1	0.0	0.0
	50대	80.0	10.0	3.3	3.3	3.3	0.0
	60대	85.7	14.3	0.0	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92.9	0.0	7.1	0.0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78.3	16.3	1.1	3.3	1.1	0.0
	무응답	50.0	0.0	5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84.1	7.2	4.3	2.9	1.4	0.0
	없다	70.0	27.5	0.0	2.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60.0	20.0	0.0	2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81.3	12.5	4.7	0.0	1.6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79.4	17.6	0.0	2.9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81.2	13.0	1.4	2.9	1.4	0.0
	없다	75.0	17.5	5.0	2.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70.8	20.8	4.2	2.1	2.1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87.0	4.3	4.3	4.3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82.4	11.8	0.0	5.9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80.0	20.0	0.0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90.0	10.0	0.0	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언어사용

문34)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67.9%(74)	24.8%(27)	1.8%(2)	4.6%(5)	0.9%(1)	0.0%(0)
성별	남자	54.1	40.5	0.0	5.4	0.0	0.0
	여자	75.0	16.7	2.8	4.2	1.4	0.0
연령대	10대	75.0	25.0	0.0	0.0	0.0	0.0
	20대	67.6	26.5	0.0	5.9	0.0	0.0
	30대	77.8	16.7	5.6	0.0	0.0	0.0
	40대	64.3	28.6	0.0	7.1	0.0	0.0
	50대	66.7	20.0	3.3	6.7	3.3	0.0
	60대	57.1	42.9	0.0	0.0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57.1	35.7	0.0	7.1	0.0	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70.7	23.9	1.1	3.3	1.1	0.0
	무응답	50.0	0.0	5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68.1	24.6	2.9	2.9	1.4	0.0
	없다	67.5	25.0	0.0	7.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40.0	40.0	0.0	2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71.9	25.0	1.6	0.0	1.6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67.6	20.6	2.9	8.8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68.1	24.6	1.4	4.3	1.4	0.0
	없다	67.5	25.0	2.5	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66.7	25.0	2.1	4.2	2.1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56.5	30.4	4.3	8.7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82.4	11.8	0.0	5.9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70.0	30.0	0.0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70.0	30.0	0.0	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생활풍습

문35)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48.6%(53)	33.9%(37)	12.8%(14)	3.7%(4)	0.9%(1)	0.0%(0)
성별	남자	43.2	37.8	16.2	2.7	0.0	0.0
	여자	51.4	31.9	11.1	4.2	1.4	0.0
연령대	10대	50.0	50.0	0.0	0.0	0.0	0.0
	20대	38.2	52.9	5.9	2.9	0.0	0.0
	30대	55.6	22.2	16.7	5.6	0.0	0.0
	40대	50.0	35.7	7.1	7.1	0.0	0.0
	50대	56.7	16.7	20.0	3.3	3.3	0.0
	60대	57.1	28.6	14.3	0.0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57.1	35.7	7.1	0.0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47.8	33.7	13.0	4.3	1.1	0.0
	무응답	50.0	0.0	5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있다	53.6	29.0	11.6	4.3	1.4	0.0
	없다	40.0	42.5	15.0	2.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40.0	40.0	0.0	2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48.4	35.9	14.1	0.0	1.6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접할 수 없었다	50.0	29.4	14.7	5.9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53.6	29.0	13.0	2.9	1.4	0.0
남한친척	없다	40.0	42.5	12.5	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41.7	43.8	10.4	2.1	2.1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52.2	34.8	8.7	4.3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64.7	5.9	23.5	5.9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50.0	40.0	10.0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40.0	30.0	20.0	1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가족중시

문36)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33.0%(36)	36.7%(40)	22.9%(25)	6.4%(7)	0.9%(1)	0.0%(0)
성별	남자	35.1	37.8	18.9	8.1	0.0	0.0
	여자	31.9	36.1	25.0	5.6	1.4	0.0
연령대	10대	50.0	25.0	25.0	0.0	0.0	0.0
	20대	23.5	41.2	29.4	5.9	0.0	0.0
	30대	38.9	27.8	16.7	16.7	0.0	0.0
	40대	28.6	28.6	35.7	7.1	0.0	0.0
	50대	40.0	36.7	16.7	3.3	3.3	0.0
	60대	42.9	42.9	14.3	0.0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35.7	28.6	28.6	7.1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32.6	37.0	22.8	6.5	1.1	0.0
	무응답	50.0	5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있다	36.2	33.3	23.2	5.8	1.4	0.0
	없다	27.5	42.5	22.5	7.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20.0	50.0	10.0	2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32.8	34.4	28.1	3.1	1.6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접할 수 없었다	35.3	38.2	17.6	8.8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37.7	31.9	23.2	5.8	1.4	0.0
남한친척	없다	25.0	45.0	22.5	7.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7.1	37.5	29.2	4.2	2.1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56.5	26.1	4.3	13.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29.4	47.1	23.5	0.0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20.0	50.0	30.0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20.0	30.0	30.0	2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돈 중시

문37)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50.5%(55)	22.0%(24)	19.3%(21)	7.3%(8)	0.9%(1)	0.0%(0)
성별	남자	56.8	21.6	16.2	5.4	0.0	0.0
	여자	47.2	22.2	20.8	8.3	1.4	0.0
연령대	10대	25.0	0.0	75.0	0.0	0.0	0.0
	20대	41.2	26.5	23.5	8.8	0.0	0.0
	30대	72.2	11.1	5.6	11.1	0.0	0.0
	40대	28.6	35.7	28.6	7.1	0.0	0.0
	50대	60.0	20.0	10.0	6.7	3.3	0.0
	60대	71.4	14.3	14.3	0.0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85.7	0.0	7.1	7.1	0.0	0.0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0.0
	비당원	45.7	25.0	20.7	7.6	1.1	0.0
	무응답	50.0	5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52.2	23.2	14.5	8.7	1.4	0.0
	없다	47.5	20.0	27.5	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40.0	30.0	10.0	2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53.1	21.9	17.2	6.3	1.6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47.1	20.6	26.5	5.9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55.1	17.4	20.3	5.8	1.4	0.0
	없다	42.5	30.0	17.5	1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41.7	22.9	27.1	6.3	2.1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69.6	17.4	4.3	8.7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52.9	23.5	11.8	11.8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60.0	30.0	10.0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30.0	20.0	40.0	1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의 무력도발

문3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을 무력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17.4%(19)	26.6%(29)	29.4%(32)	25.7%(28)	0.0%(0)	0.0%(0)
성별	남자	16.2	32.4	18.9	32.4	0.0	0.0
	여자	18.3	23.9	35.2	22.5	0.0	0.0
연령대	10대	0.0	0.0	50.0	50.0	0.0	0.0
	20대	11.8	29.4	44.1	14.7	0.0	0.0
	30대	35.3	29.4	17.6	17.6	0.0	0.0
	40대	7.1	7.1	28.6	57.1	0.0	0.0
	50대	13.3	36.7	20.0	30.0	0.0	0.0
	60대	42.9	28.6	14.3	14.3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28.6	28.6	14.3	28.6	0.0	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15.4	27.5	31.9	25.3	0.0	0.0
	무응답	50.0	0.0	5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21.7	23.2	24.6	30.4	0.0	0.0
	없다	10.3	33.3	38.5	17.9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50.0	40.0	1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21.9	21.9	29.7	26.6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12.1	30.3	27.3	30.3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20.3	29.0	27.5	23.2	0.0	0.0
	없다	12.8	23.1	33.3	30.8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1.3	23.4	40.4	14.9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17.4	26.1	4.3	52.2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5.9	35.3	35.3	23.5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30.0	20.0	20.0	3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10.0	40.0	30.0	20.0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핵무기 위협

문39)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얼마나 위협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위협적이다	다소 위협적이다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53.2%(58)	32.1%(35)	9.2%(10)	5.5%(6)	0.0%(0)	0.0%(0)
성별	남자	59.5	24.3	5.4	10.8	0.0	0.0
	여자	50.0	36.1	11.1	2.8	0.0	0.0
연령대	10대	0.0	100.0	0.0	0.0	0.0	0.0
	20대	47.1	38.2	8.8	5.9	0.0	0.0
	30대	61.1	22.2	11.1	5.6	0.0	0.0
	40대	64.3	21.4	14.3	0.0	0.0	0.0
	50대	60.0	23.3	10.0	6.7	0.0	0.0
	60대	57.1	28.6	0.0	14.3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85.7	0.0	7.1	7.1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50.0	34.8	9.8	5.4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63.8	23.2	7.2	5.8	0.0	0.0
	없다	35.0	47.5	12.5	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40.0	20.0	40.0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60.9	28.1	6.3	4.7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44.1	41.2	5.9	8.8	0.0	0.0
남한친척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58.0	31.9	2.9	7.2	0.0	0.0
	없다	45.0	32.5	20.0	2.5	0.0	0.0
결혼상태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41.7	47.9	6.3	4.2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73.9	8.7	4.3	13.0	0.0	0.0
결혼상태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52.9	29.4	11.8	5.9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50.0	20.0	30.0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60.0	30.0	10.0	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대북지원 인식

문40)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이 쌀,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한 적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 알고 있다	조금 잘 알고 있다	별로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11.9%(13)	42.2%(46)	18.3%(20)	27.5%(30)	0.0%(0)	0.0%(0)
성별	남자	18.9	45.9	18.9	16.2	0.0	0.0
	여자	8.3	40.3	18.1	33.3	0.0	0.0
연령대	10대	0.0	50.0	0.0	50.0	0.0	0.0
	20대	2.9	38.2	20.6	38.2	0.0	0.0
	30대	11.1	33.3	27.8	27.8	0.0	0.0
	40대	28.6	42.9	7.1	21.4	0.0	0.0
	50대	20.0	43.3	16.7	20.0	0.0	0.0
	60대	0.0	71.4	14.3	14.3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28.6	50.0	14.3	7.1	0.0	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9.8	42.4	19.6	28.3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14.5	40.6	17.4	27.5	0.0	0.0
	없다	7.5	45.0	20.0	27.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0.0	30.0	20.0	4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8.8	46.9	15.6	18.8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38.2	23.5	38.2	0.0	0.0
남한친척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14.5	43.5	14.5	27.5	0.0	0.0
	없다	7.5	40.0	25.0	27.5	0.0	0.0
결혼상태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4.2	41.7	20.8	33.3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17.4	47.8	4.3	30.4	0.0	0.0
결혼상태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17.6	41.2	11.8	29.4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10.0	40.0	40.0	1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30.0	40.0	20.0	10.0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대북지원 규모

문4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금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금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폭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33.0%(36)	31.2%(34)	10.1%(11)	4.6%(5)	20.2%(22)	0.0%(0)	0.0%(0)				
성별	남자	27.0	37.8	16.2	0.0	18.9	0.0	0.0				
	여자	36.6	28.2	7.0	7.0	21.1	0.0	0.0				
연령대	10대	0.0	50.0	0.0	0.0	50.0	0.0	0.0				
	20대	23.5	50.0	8.8	5.9	11.8	0.0	0.0				
	30대	27.8	33.3	22.2	11.1	5.6	0.0	0.0				
	40대	57.1	14.3	0.0	0.0	28.6	0.0	0.0				
	50대	41.4	13.8	10.3	3.4	31.0	0.0	0.0				
	60대	42.9	28.6	0.0	0.0	28.6	0.0	0.0				
당원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당원	50.0	21.4	7.1	0.0	21.4	0.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31.9	31.9	11.0	5.5	19.8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0.0				
정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있다	41.2	26.5	8.8	5.9	17.6	0.0	0.0				
	없다	20.0	40.0	12.5	2.5	2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20.0	40.0	20.0	0.0	2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35.9	34.4	10.9	6.3	12.5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33.3	21.2	6.1	3.0	36.4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있다	41.2	25.0	11.8	2.9	19.1	0.0	0.0				
	없다	20.0	42.5	7.5	7.5	22.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0.8	50.0	10.4	4.2	14.6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36.4	18.2	13.6	4.5	27.3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41.2	23.5	17.6	0.0	17.6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60.0	20.0	0.0	0.0	2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40.0	0.0	0.0	20.0	40.0	0.0	0.0				
결혼상태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의 대북지원

문42)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긍정		약간 긍정		부정도 긍정도 아님		약간 부정		매우 부정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61.5%(67)	14.7%(16)	13.8%(15)	6.4%(7)	2.8%(3)	0.9%(1)	0.0%(0)					
성별	남자	56.8	18.9	13.5	5.4	5.4	0.0	0.0					
	여자	63.9	12.5	13.9	6.9	1.4	1.4	0.0					
연령대	10대	25.0	0.0	75.0	0.0	0.0	0.0	0.0					
	20대	61.8	26.5	5.9	2.9	2.9	0.0	0.0					
	30대	55.6	16.7	16.7	5.6	5.6	0.0	0.0					
	40대	78.6	7.1	0.0	7.1	7.1	0.0	0.0					
	50대	66.7	0.0	20.0	10.0	0.0	3.3	0.0					
	60대	57.1	28.6	14.3	0.0	0.0	0.0	0.0					
당원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0.0					
	당원	78.6	0.0	7.1	0.0	14.3	0.0	0.0					
	후보당원	10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58.7	16.3	15.2	7.6	1.1	1.1	0.0					
	무응답	50.0	50.0	0.0	0.0	0.0	0.0	0.0					
정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있다	62.3	11.6	13.0	7.2	4.3	1.4	0.0					
	없다	60.0	20.0	15.0	5.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40.0	20.0	40.0	0.0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65.6	15.6	6.3	6.3	4.7	1.6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58.8	11.8	20.6	8.8	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있다	66.7	13.0	8.7	8.7	1.4	1.4	0.0					
	없다	52.5	17.5	22.5	2.5	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52.1	22.9	14.6	6.3	2.1	2.1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73.9	13.0	8.7	0.0	4.3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70.6	11.8	11.8	5.9	0.0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70.0	0.0	10.0	10.0	1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50.0	0.0	30.0	20.0	0.0	0.0	0.0					
결혼상태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의 대북경제투자

문43)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긍정	약간 긍정	부정도 긍정도 아님	약간 부정	매우 부정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61.5%(67)	16.5%(18)	11.9%(13)	5.5%(6)	3.7%(4)	0.9%(1)	0.0%(0)
성별	남자	59.5	16.2	13.5	2.7	8.1	0.0	0.0
	여자	62.5	16.7	11.1	6.9	1.4	1.4	0.0
연령대	10대	25.0	50.0	25.0	0.0	0.0	0.0	0.0
	20대	64.7	20.6	5.9	5.9	2.9	0.0	0.0
	30대	66.7	16.7	5.6	5.6	5.6	0.0	0.0
	40대	71.4	14.3	0.0	7.1	7.1	0.0	0.0
	50대	60.0	6.7	23.3	3.3	3.3	3.3	0.0
	60대	57.1	14.3	28.6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71.4	7.1	7.1	0.0	14.3	0.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59.8	18.5	13.0	6.5	1.1	1.1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65.2	13.0	10.1	5.8	4.3	1.4	0.0
	없다	55.0	22.5	15.0	5.0	2.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40.0	30.0	30.0	0.0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65.6	14.1	9.4	4.7	4.7	1.6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58.8	17.6	11.8	8.8	2.9	0.0	0.0
남한친척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있다	63.8	17.4	8.7	7.2	1.4	1.4	0.0
	없다	57.5	15.0	17.5	2.5	7.5	0.0	0.0
결혼상태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56.3	25.0	6.3	8.3	2.1	2.1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73.9	13.0	8.7	0.0	4.3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52.9	17.6	29.4	0.0	0.0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70.0	0.0	10.0	10.0	1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60.0	0.0	20.0	10.0	1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개성공업지구

문44)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긍정	약간 긍정	부정도 긍정도 아님	약간 부정	매우 부정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64.2%(70)	20.2%(22)	10.1%(11)	2.8%(3)	1.8%(2)	0.9%(1)	0.0%(0)
성별	남자	54.1	18.9	16.2	5.4	5.4	0.0	0.0
	여자	69.4	20.8	6.9	1.4	0.0	1.4	0.0
연령대	10대	25.0	75.0	0.0	0.0	0.0	0.0	0.0
	20대	67.6	20.6	8.8	2.9	0.0	0.0	0.0
	30대	61.1	16.7	16.7	5.6	0.0	0.0	0.0
	40대	71.4	14.3	7.1	0.0	7.1	0.0	0.0
	50대	70.0	13.3	10.0	0.0	3.3	3.3	0.0
	60대	42.9	42.9	14.3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71.4	7.1	14.3	0.0	7.1	0.0	0.0
	후보당원	10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62.0	22.8	9.8	3.3	1.1	1.1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66.7	18.8	8.7	1.4	2.9	1.4	0.0
	없다	60.0	22.5	12.5	5.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60.0	20.0	20.0	0.0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62.5	18.8	10.9	3.1	3.1	1.6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67.6	23.5	5.9	2.9	0.0	0.0	0.0
남한친척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있다	66.7	21.7	5.8	2.9	1.4	1.4	0.0
	없다	60.0	17.5	17.5	2.5	2.5	0.0	0.0
결혼상태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60.4	22.9	8.3	6.3	0.0	2.1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69.6	17.4	8.7	0.0	4.3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58.8	29.4	11.8	0.0	0.0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70.0	0.0	30.0	0.0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70.0	20.0	0.0	0.0	1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주체사상자부심

문45)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주체사상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약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별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전혀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34.9%(38)	19.3%(21)	36.7%(40)	9.2%(10)	0.0%(0)	0.0%(0)
성별	남자	35.1	16.2	40.5	8.1	0.0	0.0
	여자	34.7	20.8	34.7	9.7	0.0	0.0
연령대	10대	25.0	50.0	25.0	0.0	0.0	0.0
	20대	38.2	23.5	38.2	0.0	0.0	0.0
	30대	44.4	22.2	22.2	11.1	0.0	0.0
	40대	28.6	7.1	50.0	14.3	0.0	0.0
	50대	33.3	13.3	36.7	16.7	0.0	0.0
	60대	28.6	14.3	42.9	14.3	0.0	0.0
당원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당원	42.9	14.3	28.6	14.3	0.0	0.0
	후보당원	100.0	0.0	0.0	0.0	0.0	0.0
	비당원	33.7	20.7	38.0	7.6	0.0	0.0
장사경험	무응답	0.0	0.0	50.0	5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33.3	14.5	39.1	13.0	0.0	0.0
	없다	37.5	27.5	32.5	2.5	0.0	0.0
북한소식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50.0	10.0	30.0	1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26.6	25.0	43.8	4.7	0.0	0.0
남한친척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36.2	18.8	39.1	5.8	0.0	0.0
	없다	32.5	20.0	32.5	15.0	0.0	0.0
결혼상태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39.6	25.0	35.4	0.0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30.4	17.4	47.8	4.3	0.0	0.0
결혼상태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47.1	17.6	17.6	17.6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30.0	10.0	50.0	10.0	0.0	0.0
결혼상태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10.0	10.0	30.0	50.0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김정은 지도도

문4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0% 미만	20%	30%	40%	50%	60%	70%	80%	90% 이상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10.1%(11)	9.2%(10)	10.1%(11)	8.3%(9)	15.6%(17)	10.1%(11)	3.7%(4)	9.2%(10)	23.9%(26)	0.0%(0)	0.0%(0)
성별	남자	10.8	2.7	5.4	8.1	16.2	13.5	0.0	10.8	32.4	0.0	0.0
	여자	9.7	12.5	12.5	8.3	15.3	8.3	5.6	8.3	19.4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25.0	0.0	25.0	0.0	0.0	50.0	0.0	0.0
	20대	8.8	11.8	0.0	2.9	23.5	11.8	5.9	5.9	29.4	0.0	0.0
	30대	11.1	5.6	16.7	11.1	0.0	11.1	5.6	22.2	16.7	0.0	0.0
	40대	21.4	0.0	7.1	21.4	21.4	0.0	7.1	0.0	21.4	0.0	0.0
	50대	10.0	13.3	20.0	6.7	13.3	6.7	0.0	10.0	20.0	0.0	0.0
	60대	0.0	14.3	14.3	0.0	28.6	14.3	0.0	14.3	14.3	0.0	0.0
당원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당원	14.3	0.0	14.3	14.3	14.3	7.1	0.0	21.4	14.3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8.7	9.8	8.7	7.6	16.3	10.9	4.3	7.6	26.1	0.0	0.0
장사경험	무응답	50.0	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있다	10.1	10.1	14.5	8.7	18.8	7.2	1.4	10.1	18.8	0.0	0.0
	없다	10.0	7.5	2.5	7.5	10.0	15.0	7.5	7.5	32.5	0.0	0.0
북한소식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20.0	0.0	10.0	20.0	10.0	10.0	10.0	10.0	1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6.3	10.9	10.9	9.4	20.3	14.1	1.6	10.9	15.6	0.0	0.0
남한친척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있다	8.7	10.1	10.1	7.2	14.5	8.7	1.4	7.2	31.9	0.0	0.0
	없다	12.5	7.5	10.0	10.0	17.5	12.5	7.5	12.5	10.0	0.0	0.0
결혼상태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8.3	10.4	4.2	8.3	16.7	10.4	6.3	6.3	29.2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0.0	8.7	8.7	13.0	21.7	8.7	0.0	4.3	34.8	0.0	0.0
결혼상태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11.8	0.0	5.9	11.8	5.9	11.8	5.9	23.5	23.5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10.0	10.0	40.0	0.0	20.0	10.0	0.0	10.0	0.0	0.0	0.0
결혼상태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40.0	20.0	20.0	0.0	10.0	0.0	0.0	1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김정은 직무평가

문47)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수반으로서 직무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12.8%(14)	23.9%(26)	33.0%(36)	30.3%(33)	0.0%(0)	0.0%(0)
성별	남자	8.1	29.7	35.1	27.0	0.0	0.0
	여자	15.3	20.8	31.9	31.9	0.0	0.0
연령대	10대	0.0	25.0	75.0	0.0	0.0	0.0
	20대	20.6	29.4	35.3	14.7	0.0	0.0
	30대	5.6	27.8	33.3	33.3	0.0	0.0
	40대	7.1	21.4	21.4	50.0	0.0	0.0
	50대	13.3	16.7	30.0	40.0	0.0	0.0
	60대	14.3	28.6	28.6	28.6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7.1	28.6	21.4	42.9	0.0	0.0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0.0
	비당원	14.1	23.9	34.8	27.2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1.6	20.3	31.9	36.2	0.0	0.0
	없다	15.0	30.0	35.0	2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30.0	30.0	30.0	1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9.4	25.0	37.5	28.1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14.7	20.6	26.5	38.2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남한친척	있다	11.6	27.5	34.8	26.1	0.0	0.0
	없다	15.0	17.5	30.0	37.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14.6	22.9	41.7	20.8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8.7	21.7	30.4	39.1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23.5	35.3	29.4	11.8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10.0	10.0	10.0	7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20.0	30.0	50.0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사회통제 유지도

문4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공안기관에 의한 사회통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 유지되고 있다	대체로 잘 유지되었다	별로 잘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전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3.7%(4)	26.6%(29)	57.8%(63)	11.9%(13)	0.0%(0)	0.0%(0)
성별	남자	5.4	35.1	54.1	5.4	0.0	0.0
	여자	2.8	22.2	59.7	15.3	0.0	0.0
연령대	10대	0.0	0.0	100.0	0.0	0.0	0.0
	20대	5.9	17.6	61.8	14.7	0.0	0.0
	30대	0.0	33.3	55.6	11.1	0.0	0.0
	40대	0.0	28.6	50.0	21.4	0.0	0.0
	50대	6.7	33.3	53.3	6.7	0.0	0.0
	60대	0.0	42.9	42.9	14.3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0.0	50.0	50.0	0.0	0.0	0.0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0.0
	비당원	4.3	23.9	58.7	13.0	0.0	0.0
	무응답	0.0	0.0	50.0	5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4.3	31.9	49.3	14.5	0.0	0.0
	없다	2.5	17.5	72.5	7.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40.0	60.0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6	25.0	57.8	15.6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8.8	26.5	58.8	5.9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남한친척	있다	4.3	27.5	58.0	10.1	0.0	0.0
	없다	2.5	25.0	57.5	1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4.2	14.6	68.8	12.5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8.7	39.1	39.1	13.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0.0	41.2	47.1	11.8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0.0	30.0	50.0	2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20.0	80.0	0.0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비판행위 정도

문49)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에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 행위(낙서, 배라 등)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많다	약간 있다	대체로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2.8%(3)	49.5%(54)	21.1%(23)	26.6%(29)	0.0%(0)	0.0%(0)
성별	남자	5.4	43.2	27.0	24.3	0.0	0.0
	여자	1.4	52.8	18.1	27.8	0.0	0.0
연령대	10대	0.0	25.0	75.0	0.0	0.0	0.0
	20대	0.0	38.2	29.4	32.4	0.0	0.0
	30대	11.1	33.3	27.8	27.8	0.0	0.0
	40대	7.1	64.3	7.1	21.4	0.0	0.0
	50대	0.0	63.3	10.0	26.7	0.0	0.0
	60대	0.0	57.1	14.3	28.6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7.1	71.4	21.4	0.0	0.0	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2.2	45.7	21.7	30.4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4.3	47.8	18.8	29.0	0.0	0.0
	없다	0.0	52.5	25.0	22.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50.0	40.0	1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4.7	53.1	17.2	25.0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41.2	23.5	35.3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1.4	50.7	23.2	24.6	0.0	0.0
	없다	5.0	47.5	17.5	3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1	41.7	27.1	29.2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4.3	47.8	21.7	26.1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0.0	41.2	23.5	35.3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10.0	60.0	10.0	2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90.0	0.0	10.0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정권 예상 유지기간

문50)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년 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30년	30년 이상	생각해 본 적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1.8%(2)	15.6%(17)	4.6%(5)	5.5%(6)	6.4%(7)	21.1%(23)	45.0%(49)	0.0%(0)	0.0%(0)
성별	남자	5.4	13.5	5.4	5.4	8.1	16.2	45.9	0.0	0.0
	여자	0.0	16.7	4.2	5.6	5.6	23.6	44.4	0.0	0.0
연령대	10대	0.0	0.0	25.0	0.0	0.0	0.0	75.0	0.0	0.0
	20대	2.9	8.8	2.9	0.0	8.8	17.6	58.8	0.0	0.0
	30대	0.0	0.0	5.6	11.1	11.1	33.3	38.9	0.0	0.0
	40대	0.0	21.4	7.1	7.1	14.3	21.4	28.6	0.0	0.0
	50대	3.3	23.3	3.3	6.7	0.0	20.0	43.3	0.0	0.0
	60대	0.0	42.9	0.0	0.0	0.0	28.6	28.6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7.1	14.3	0.0	7.1	0.0	21.4	50.0	0.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비당원	1.1	15.2	5.4	5.4	7.6	19.6	45.7	0.0	0.0
	무응답	0.0	50.0	0.0	0.0	0.0	5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4	18.8	4.3	7.2	5.8	21.7	40.6	0.0	0.0
	없다	2.5	10.0	5.0	2.5	7.5	20.0	52.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10.0	0.0	0.0	0.0	50.0	4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6	17.2	6.3	4.7	7.8	18.8	43.8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9	11.8	2.9	8.8	5.9	17.6	50.0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2.9	20.3	2.9	5.8	4.3	21.7	42.0	0.0	0.0
	없다	0.0	7.5	7.5	5.0	10.0	20.0	5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1	6.3	6.3	4.2	8.3	22.9	50.0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4.3	4.3	4.3	0.0	8.7	34.8	43.5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0.0	41.2	5.9	5.9	0.0	17.6	29.4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0.0	30.0	0.0	20.0	0.0	10.0	4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30.0	0.0	10.0	10.0	0.0	5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핵무기 보유 견해

문5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견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찬성했다	다소 찬성했다	반반/그저 그랬다	다소 반대했다	매우 반대했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24.8%(27)	18.3%(20)	40.4%(44)	9.2%(10)	7.3%(8)	0.0%(0)	0.0%(0)
성별	남자	27.0	8.1	45.9	10.8	8.1	0.0	0.0
	여자	23.6	23.6	37.5	8.3	6.9	0.0	0.0
연령대	10대	25.0	25.0	50.0	0.0	0.0	0.0	0.0
	20대	29.4	20.6	32.4	14.7	2.9	0.0	0.0
	30대	38.9	27.8	22.2	0.0	11.1	0.0	0.0
	40대	21.4	21.4	35.7	0.0	21.4	0.0	0.0
	50대	13.3	10.0	53.3	16.7	6.7	0.0	0.0
	60대	28.6	14.3	57.1	0.0	0.0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42.9	0.0	35.7	7.1	14.3	0.0	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0.0
	비당원	22.8	19.6	42.4	8.7	6.5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26.1	15.9	43.5	5.8	8.7	0.0	0.0
	없다	22.5	22.5	35.0	15.0	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0.0	30.0	40.0	10.0	1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29.7	12.5	45.3	6.3	6.3	0.0	0.0
남한친척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0.6	23.5	32.4	14.7	8.8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23.2	11.6	44.9	11.6	8.7	0.0	0.0
	없다	27.5	30.0	32.5	5.0	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31.3	22.9	35.4	8.3	2.1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26.1	13.0	34.8	13.0	13.0	0.0	0.0
결혼상태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17.6	11.8	52.9	5.9	11.8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10.0	40.0	40.0	0.0	1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20.0	0.0	60.0	10.0	10.0	0.0	0.0
결혼상태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 경제 어려움 이유

문5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의 경제가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연 재해로 식량 생산이 안되어	과다한 군사비 지출 때문에	국가의 정책이 잘못 되어	간부들의 관료주의 때문에	지도자 (김정일, 김정은) 개행을 하지 않아서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통일이 되지 않아서	기타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2.8% (3)	24.8% (27)	8.3% (9)	5.5% (6)	16.5% (18)	23.9% (26)	11.9% (13)	1.8% (2)	0.9% (1)	0.0% (0)	3.7% (4)
성별	남자	5.4	27.0	5.4	8.1	24.3	10.8	16.2	2.7	0.0	0.0	0.0
	여자	1.4	23.6	9.7	4.2	12.5	30.6	9.7	1.4	1.4	0.0	0.0
연령대	10대	0.0	25.0	25.0	50.0	0.0	0.0	0.0	0.0	0.0	0.0	0.0
	20대	5.9	20.6	8.8	8.8	11.8	29.4	8.8	2.9	2.9	0.0	0.0
	30대	5.6	22.2	5.6	0.0	11.1	22.2	27.8	5.6	0.0	0.0	0.0
	40대	0.0	21.4	7.1	0.0	28.6	42.9	0.0	0.0	0.0	0.0	0.0
	50대	0.0	33.3	3.3	3.3	23.3	16.7	6.7	0.0	0.0	0.0	0.0
	60대	0.0	28.6	14.3	0.0	0.0	14.3	42.9	0.0	0.0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0.0	21.4	0.0	7.1	28.6	7.1	28.6	7.1	0.0	0.0	0.0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3.3	26.1	7.6	5.4	14.1	27.2	9.8	1.1	1.1	0.0	0.0
	무응답	0.0	0.0	50.0	0.0	5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4	24.6	4.3	4.3	17.4	26.1	14.5	2.9	0.0	0.0	0.0
	없다	5.0	25.0	15.0	7.5	15.0	20.0	7.5	0.0	2.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10.0	10.0	10.0	10.0	50.0	10.0	0.0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3.1	28.1	4.7	4.7	18.8	17.2	17.2	1.6	0.0	0.0	0.0
남한친척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9	23.5	11.8	5.9	14.7	29.4	2.9	2.9	2.9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2.9	20.3	8.7	7.2	15.9	20.3	14.5	2.9	1.4	0.0	0.0
	없다	2.5	32.5	7.5	2.5	17.5	30.0	7.5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4.2	22.9	12.5	8.3	12.5	25.0	10.4	2.1	2.1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4.3	34.8	0.0	0.0	13.0	17.4	21.7	0.0	0.0	0.0	0.0
결혼상태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0.0	23.5	11.8	0.0	11.8	41.2	11.8	0.0	0.0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0.0	30.0	10.0	10.0	20.0	20.0	0.0	0.0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10.0	0.0	0.0	50.0	10.0	10.0	10.0	0.0	0.0	0.0
결혼상태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생산규율 유지

문53)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직장에서 생산규율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까?

		거의 대부분 지켜지고 있다	대체로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대체로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거의 대부분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4.6%(5)	25.7%(28)	33.0%(36)	36.7%(40)	0.0%(0)	0.0%(0)
성별	남자	5.4	16.2	48.6	29.7	0.0	0.0
	여자	4.2	30.6	25.0	40.3	0.0	0.0
연령대	10대	0.0	0.0	25.0	75.0	0.0	0.0
	20대	2.9	17.6	41.2	38.2	0.0	0.0
	30대	5.6	33.3	22.2	38.9	0.0	0.0
	40대	0.0	35.7	28.6	35.7	0.0	0.0
	50대	3.3	20.0	40.0	36.7	0.0	0.0
	60대	28.6	57.1	0.0	14.3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7.1	21.4	21.4	50.0	0.0	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3.3	27.2	35.9	33.7	0.0	0.0
	무응답	50.0	0.0	0.0	5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4.3	27.5	33.3	34.8	0.0	0.0
	없다	5.0	22.5	32.5	4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40.0	30.0	3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3.1	23.4	37.5	35.9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5.9	26.5	26.5	41.2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5.8	27.5	37.7	29.0	0.0	0.0
	없다	2.5	22.5	25.0	5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1	22.9	35.4	39.6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4.3	30.4	39.1	26.1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11.8	41.2	11.8	35.3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0.0	0.0	60.0	4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30.0	20.0	5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생활총화 참석률

문54)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주민들의 주간 생활총화 참석률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30%미만	30-50%	50-70%	70-90%	90% 이상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20.2%(22)	14.7%(16)	19.3%(21)	28.4%(31)	16.5%(18)	0.9%(1)	0.0%(0)
성별	남자	16.2	21.6	24.3	21.6	16.2	0.0	0.0
	여자	22.2	11.1	16.7	31.9	16.7	1.4	0.0
연령대	10대	25.0	0.0	0.0	50.0	25.0	0.0	0.0
	20대	14.7	17.6	17.6	32.4	17.6	0.0	0.0
	30대	16.7	16.7	16.7	38.9	11.1	0.0	0.0
	40대	21.4	7.1	28.6	21.4	21.4	0.0	0.0
	50대	30.0	13.3	23.3	13.3	16.7	3.3	0.0
	60대	14.3	14.3	14.3	57.1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100.0	0.0	0.0
당원	당원	21.4	7.1	35.7	14.3	21.4	0.0	0.0
	후보당원	10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19.6	16.3	17.4	29.3	16.3	1.1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21.7	10.1	21.7	27.5	17.4	1.4	0.0
	없다	17.5	22.5	15.0	30.0	1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20.0	10.0	40.0	20.0	1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21.9	10.9	18.8	31.3	15.6	1.6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17.6	23.5	14.7	23.5	20.6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23.2	17.4	17.4	27.5	13.0	1.4	0.0
	없다	15.0	10.0	22.5	30.0	22.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12.5	18.8	12.5	35.4	18.8	2.1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21.7	21.7	17.4	21.7	17.4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17.6	0.0	35.3	35.3	11.8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50.0	0.0	30.0	20.0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30.0	20.0	20.0	10.0	2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북한 경제시스템 지지도

문5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사회주의 경제(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시장경제, 개인소유경제) 중 어느 것을 더 지지했습니까?

		사회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했다		두가지 모두 를 비슷하게 지지했다		자본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했다		자본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했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6.4%(7)	9.2%(10)	15.6%(17)	40.4%(44)	27.5%(30)	0.0%(0)	0.9%(1)			
성별	남자	5.4	10.8	18.9	27.0	37.8	0.0	0.0			
	여자	6.9	8.3	13.9	47.2	22.2	0.0	1.4			
연령대	10대	0.0	25.0	0.0	50.0	25.0	0.0	0.0			
	20대	8.8	14.7	26.5	32.4	17.6	0.0	0.0			
	30대	5.6	0.0	16.7	50.0	22.2	0.0	5.6			
	40대	0.0	0.0	7.1	50.0	42.9	0.0	0.0			
	50대	6.7	10.0	6.7	40.0	36.7	0.0	0.0			
	60대	14.3	0.0	14.3	42.9	28.6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7.1	7.1	0.0	35.7	50.0	0.0	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0.0			
	비당원	6.5	9.8	18.5	39.1	25.0	0.0	1.1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8.7	0.0	11.6	46.4	31.9	0.0	1.4			
	없다	2.5	25.0	22.5	30.0	2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20.0	10.0	20.0	50.0	0.0	0.0	0.0			
북한소식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6.3	7.8	17.2	39.1	28.1	0.0	1.6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9	11.8	11.8	38.2	35.3	0.0	0.0			
	무응답	0.0	10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있다	8.7	10.1	15.9	36.2	29.0	0.0	0.0			
남한친척	없다	2.5	7.5	15.0	47.5	25.0	0.0	2.5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10.4	14.6	22.9	35.4	16.7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0.0	0.0	8.7	47.8	43.5	0.0	0.0			
결혼상태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11.8	5.9	17.6	47.1	17.6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0.0	10.0	0.0	30.0	50.0	0.0	1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0.0	10.0	50.0	40.0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다른 지역 방문

문5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얼마나 자주 다른 지역(다른 군, 시, 도, 외국)에 가보셨습니까?

		자주 가보았다	가끔 가보았다	거의 가보지 못했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20.2%(22)	31.2%(34)	48.6%(53)	0.0%(0)	0.0%(0)
성별	남자	37.8	29.7	32.4	0.0	0.0
	여자	11.1	31.9	56.9	0.0	0.0
연령대	10대	0.0	50.0	50.0	0.0	0.0
	20대	23.5	35.3	41.2	0.0	0.0
	30대	22.2	27.8	50.0	0.0	0.0
	40대	28.6	35.7	35.7	0.0	0.0
	50대	20.0	23.3	56.7	0.0	0.0
	60대	0.0	42.9	57.1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당원	당원	50.0	35.7	14.3	0.0	0.0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비당원	16.3	30.4	53.3	0.0	0.0
	무응답	0.0	50.0	5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24.6	30.4	44.9	0.0	0.0
	없다	12.5	32.5	5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30.0	70.0	0.0	0.0	0.0
북한소식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23.4	31.3	45.3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11.8	17.6	70.6	0.0	0.0
	무응답	10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있다	15.9	31.9	52.2	0.0	0.0
남한친척	없다	27.5	30.0	42.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0.8	31.3	47.9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17.4	39.1	43.5	0.0	0.0
결혼상태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17.6	35.3	47.1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40.0	20.0	4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10.0	20.0	70.0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집단과 개인 우선도

문57)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일상생활에서 집단과 나(또는 가족) 중에서 무엇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단이 훨씬 더 우선이다	집단이 조금 더 우선이다	내(또는 가족)가 훨씬 더 우선이다	내(또는 가족)가 조금 더 우선이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3.7%(4)	6.4%(7)	82.6%(90)	7.3%(8)	0.0%(0)	0.0%(0)
성별	남자	5.4	2.7	83.8	8.1	0.0	0.0
	여자	2.8	8.3	81.9	6.9	0.0	0.0
연령대	10대	0.0	0.0	75.0	25.0	0.0	0.0
	20대	5.9	2.9	85.3	5.9	0.0	0.0
	30대	0.0	0.0	94.4	5.6	0.0	0.0
	40대	0.0	14.3	85.7	0.0	0.0	0.0
	50대	6.7	6.7	73.3	13.3	0.0	0.0
	60대	0.0	14.3	85.7	0.0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0.0	0.0	92.9	7.1	0.0	0.0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0.0
	비당원	4.3	6.5	81.5	7.6	0.0	0.0
	무응답	0.0	50.0	5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4	5.8	84.1	8.7	0.0	0.0
	없다	7.5	7.5	80.0	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10.0	80.0	1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4.7	4.7	84.4	6.3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9	5.9	82.4	8.8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4.3	5.8	88.4	1.4	0.0	0.0
	없다	2.5	7.5	72.5	17.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6.3	6.3	79.2	8.3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0.0	4.3	95.7	0.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5.9	11.8	76.5	5.9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0.0	10.0	80.0	1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0.0	80.0	20.0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언론에 대한 신뢰도

문5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로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의 보도가 얼마나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사실이 라고 생각했다	일부만 사실이 라고 생각했다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생각해 본 적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30.3%(33)	41.3%(45)	22.0%(24)	5.5%(6)	0.0%(0)	0.9%(1)
성별	남자	27.0	48.6	16.2	5.4	0.0	2.7
	여자	31.9	37.5	25.0	5.6	0.0	0.0
연령대	10대	50.0	25.0	25.0	0.0	0.0	0.0
	20대	35.3	35.3	20.6	8.8	0.0	0.0
	30대	33.3	50.0	11.1	5.6	0.0	0.0
	40대	14.3	28.6	50.0	7.1	0.0	0.0
	50대	23.3	50.0	20.0	3.3	0.0	3.3
	60대	57.1	28.6	14.3	0.0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35.7	50.0	7.1	0.0	0.0	7.1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28.3	40.2	25.0	6.5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26.1	44.9	21.7	5.8	0.0	1.4
	없다	37.5	35.0	22.5	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0.0	40.0	50.0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34.4	39.1	20.3	6.3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6.5	47.1	17.6	5.9	0.0	2.9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29.0	42.0	20.3	7.2	0.0	1.4
	없다	32.5	40.0	25.0	2.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35.4	37.5	20.8	6.3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21.7	39.1	26.1	8.7	0.0	4.3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35.3	35.3	29.4	0.0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20.0	60.0	10.0	1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30.0	50.0	20.0	0.0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외부소식 접촉 경로

문59)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외부 소식을 주로 어디서 들었습니까?

		조선신문 (로동신문)	조선방송	주변사람 (친척, 이웃, 친구 등)	강연, 학습	남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매체 (방송, 통신, 피라 등)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9.2%(10)	10.1%(11)	56.0%(61)	7.3%(8)	15.6%(17)	0.0%(0)	1.8%(2)
성별	남자	10.8	5.4	56.8	5.4	18.9	0.0	2.7
	여자	8.3	12.5	55.6	8.3	13.9	0.0	1.4
연령대	10대	0.0	50.0	25.0	0.0	25.0	0.0	0.0
	20대	5.9	14.7	52.9	14.7	11.8	0.0	0.0
	30대	5.6	0.0	66.7	5.6	22.2	0.0	0.0
	40대	7.1	0.0	57.1	0.0	35.7	0.0	0.0
	50대	13.3	10.0	56.7	6.7	10.0	0.0	3.3
	60대	28.6	0.0	57.1	0.0	0.0	0.0	14.3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14.3	0.0	50.0	0.0	28.6	0.0	7.1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0.0
	비당원	8.7	12.0	56.5	7.6	14.1	0.0	1.1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5.8	7.2	63.8	4.3	17.4	0.0	1.4
	없다	15.0	15.0	42.5	12.5	12.5	0.0	2.5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0.0	20.0	60.0	0.0	1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4.7	4.7	59.4	7.8	20.3	0.0	3.1
	거의 접할 수 없었다	17.6	17.6	47.1	8.8	8.8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8.7	11.6	55.1	8.7	13.0	0.0	2.9
	없다	10.0	7.5	57.5	5.0	2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6.3	16.7	52.1	12.5	12.5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13.0	8.7	47.8	4.3	21.7	0.0	4.3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17.6	0.0	64.7	5.9	5.9	0.0	5.9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10.0	0.0	60.0	0.0	3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10.0	70.0	0.0	20.0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여성의 지위 변화

문60) 과거 10년에 비해 북한에서 북한 여성의 지위가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상승했다	약간 상승했다	그대보다/ 변화가 없다	약간 하락했다	크게 하락했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50.5%(55)	25.7%(28)	19.3%(21)	1.8%(2)	2.8%(3)	0.0%(0)	0.0%(0)
		성별	남자	51.4	13.5	24.3	2.7	8.1
	여자	50.0	31.9	16.7	1.4	0.0	0.0	0.0
연령대	10대	25.0	75.0	0.0	0.0	0.0	0.0	0.0
	20대	32.4	23.5	35.3	5.9	2.9	0.0	0.0
	30대	72.2	16.7	11.1	0.0	0.0	0.0	0.0
	40대	50.0	42.9	7.1	0.0	0.0	0.0	0.0
	50대	60.0	23.3	13.3	0.0	3.3	0.0	0.0
	60대	71.4	0.0	14.3	0.0	14.3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92.9	0.0	7.1	0.0	0.0	0.0	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0.0
	비당원	43.5	30.4	21.7	1.1	3.3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58.0	24.6	14.5	0.0	2.9	0.0	0.0
	없다	37.5	27.5	27.5	5.0	2.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60.0	20.0	20.0	0.0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48.4	28.1	20.3	0.0	3.1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50.0	23.5	17.6	5.9	2.9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49.3	23.2	21.7	1.4	4.3	0.0	0.0
	없다	52.5	30.0	15.0	2.5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33.3	27.1	33.3	4.2	2.1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78.3	17.4	4.3	0.0	0.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64.7	11.8	17.6	0.0	5.9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60.0	30.0	10.0	0.0	0.0	0.0	0.0
결혼상태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30.0	60.0	0.0	0.0	1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한미연합훈련 위협감

문61) 귀하는 북한에서 한미연합훈련 소식을 들었을 때 죽음에 대한 불안을 느끼셨습니까?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나와 상관없다고 느꼈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11.0%(12)	21.1%(23)	40.4%(44)	17.4%(19)	10.1%(11)	0.0%(0)	0.0%(0)
성별	남자	8.1	18.9	43.2	21.6	8.1	0.0	0.0
	여자	12.5	22.2	38.9	15.3	11.1	0.0	0.0
연령대	10대	0.0	25.0	75.0	0.0	0.0	0.0	0.0
	20대	5.9	17.6	52.9	20.6	2.9	0.0	0.0
	30대	0.0	27.8	33.3	22.2	16.7	0.0	0.0
	40대	0.0	35.7	35.7	7.1	21.4	0.0	0.0
	50대	30.0	16.7	33.3	13.3	6.7	0.0	0.0
	60대	14.3	0.0	28.6	28.6	28.6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14.3	28.6	35.7	14.3	7.1	0.0	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0.0
	비당원	10.9	20.7	42.4	16.3	9.8	0.0	0.0
	무응답	0.0	0.0	0.0	50.0	5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1.6	26.1	37.7	13.0	11.6	0.0	0.0
	없다	10.0	12.5	45.0	25.0	7.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20.0	60.0	20.0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6.3	17.2	51.6	14.1	10.9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3.5	29.4	14.7	23.5	8.8	0.0	0.0
	무응답	0.0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14.5	20.3	40.6	14.5	10.1	0.0	0.0
	없다	5.0	22.5	40.0	22.5	1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10.4	16.7	47.9	22.9	2.1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21.7	17.4	34.8	13.0	13.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0.0	17.6	47.1	11.8	23.5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0.0	30.0	40.0	10.0	2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20.0	50.0	10.0	10.0	1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주변국 친밀감

문6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셨습니까?

		미국	일본	남한	중국	러시아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1.8%(2)	0.9%(1)	20.2%(22)	65.1%(71)	11.0%(12)	0.0%(0)	0.9%(1)
성별	남자	0.0	0.0	16.2	67.6	16.2	0.0	0.0
	여자	2.8	1.4	22.2	63.9	8.3	0.0	1.4
연령대	10대	0.0	0.0	50.0	50.0	0.0	0.0	0.0
	20대	2.9	2.9	5.9	73.5	14.7	0.0	0.0
	30대	0.0	0.0	11.1	77.8	11.1	0.0	0.0
	40대	7.1	0.0	21.4	57.1	14.3	0.0	0.0
	50대	0.0	0.0	36.7	53.3	6.7	0.0	3.3
	60대	0.0	0.0	28.6	71.4	0.0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0.0	0.0	7.1	78.6	14.3	0.0	0.0
	후보당원	10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1.1	1.1	21.7	64.1	10.9	0.0	1.1
	무응답	0.0	0.0	50.0	5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4	0.0	23.2	62.3	11.6	0.0	1.4
	없다	2.5	2.5	15.0	70.0	1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10.0	80.0	1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6	0.0	15.6	71.9	9.4	0.0	1.6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9	2.9	29.4	50.0	14.7	0.0	0.0
	무응답	0.0	0.0	10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1.4	27.5	62.3	7.2	0.0	1.4
	없다	5.0	0.0	7.5	70.0	17.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1	2.1	12.5	70.8	12.5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0.0	0.0	30.4	56.5	8.7	0.0	4.3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0.0	0.0	23.5	70.6	5.9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10.0	0.0	10.0	70.0	1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0.0	40.0	40.0	20.0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평화위협국가

문6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일본	남한	중국	러시아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80.7%(88)	7.3%(8)	0.9%(1)	6.4%(7)	0.9%(1)	0.9%(1)	0.0%(0)
성별	남자	75.7	8.1	2.7	10.8	2.7	0.0	0.0
	여자	83.3	6.9	0.0	4.2	0.0	1.4	4.2
연령대	10대	100.0	0.0	0.0	0.0	0.0	0.0	0.0
	20대	85.3	8.8	2.9	0.0	2.9	0.0	0.0
	30대	88.9	5.6	0.0	5.6	0.0	0.0	0.0
	40대	71.4	7.1	0.0	7.1	0.0	7.1	7.1
	50대	70.0	10.0	0.0	13.3	0.0	0.0	6.7
	60대	100.0	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78.6	7.1	0.0	14.3	0.0	0.0	0.0
	후보당원	10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80.4	7.6	1.1	5.4	1.1	1.1	3.3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있다	82.6	7.2	0.0	5.8	0.0	1.4	2.9
	없다	77.5	7.5	2.5	7.5	2.5	0.0	2.5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90.0	10.0	0.0	0.0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82.8	4.7	0.0	6.3	0.0	1.6	4.7
	거의 접할 수 없었다	73.5	11.8	2.9	8.8	2.9	0.0	0.0
북한소식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있다	85.5	1.4	1.4	7.2	1.4	0.0	2.9
	없다	72.5	17.5	0.0	5.0	0.0	2.5	2.5
남한친척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87.5	6.3	2.1	2.1	2.1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87.0	4.3	0.0	8.7	0.0	0.0	0.0
결혼상태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76.5	5.9	0.0	11.8	0.0	0.0	5.9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50.0	10.0	0.0	10.0	0.0	10.0	2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80.0	20.0	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협조필요국가

문6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북한이 통일하는데 한반도 주변국들 중 어느 나라의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어느 나라의 도움도 필요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37.6%(41)	21.1%(23)	6.4%(7)	0.0%(0)	32.1%(35)	0.0%(0)	2.8%(3)
성별	남자	40.5	10.8	13.5	0.0	32.4	0.0	2.7
	여자	36.1	26.4	2.8	0.0	31.9	0.0	2.8
연령대	10대	50.0	0.0	25.0	0.0	25.0	0.0	0.0
	20대	29.4	20.6	14.7	0.0	35.3	0.0	0.0
	30대	27.8	16.7	0.0	0.0	55.6	0.0	0.0
	40대	28.6	28.6	7.1	0.0	35.7	0.0	0.0
	50대	46.7	23.3	0.0	0.0	20.0	0.0	10.0
	60대	71.4	14.3	0.0	0.0	14.3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35.7	14.3	7.1	0.0	35.7	0.0	7.1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0.0
	비당원	39.1	20.7	6.5	0.0	31.5	0.0	2.2
	무응답	0.0	50.0	0.0	0.0	5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있다	44.9	21.7	2.9	0.0	27.5	0.0	2.9
	없다	25.0	20.0	12.5	0.0	40.0	0.0	2.5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50.0	40.0	0.0	10.0	30.8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45.3	17.2	4.7	28.1	29.7	0.0	4.7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0.6	20.6	11.8	47.1	36.0	0.0	0.0
북한소식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있다	31.9	23.2	8.7	0.0	31.9	0.0	4.3
	없다	47.5	17.5	2.5	0.0	32.5	0.0	0.0
남한친척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35.4	18.8	10.4	0.0	35.4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39.1	17.4	4.3	0.0	34.8	0.0	4.3
결혼상태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47.1	23.5	0.0	0.0	23.5	0.0	5.9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30.0	40.0	10.0	0.0	10.0	0.0	1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40.0	20.0	0.0	0.0	4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발전에 필요한 국가

문6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와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일본	남한	중국	러시아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13.8%(15)	0.0%(0)	49.5%(54)	32.1%(35)	2.8%(3)	0.0%(0)	1.8%(2)
성별	남자	10.8	0.0	48.6	35.1	5.4	0.0	0.0
	여자	15.3	0.0	50.0	30.6	1.4	0.0	2.8
연령대	10대	0.0	0.0	100.0	0.0	0.0	0.0	0.0
	20대	11.8	0.0	41.2	38.2	8.8	0.0	0.0
	30대	11.1	0.0	50.0	38.9	0.0	0.0	0.0
	40대	21.4	0.0	71.4	7.1	0.0	0.0	0.0
	50대	20.0	0.0	40.0	33.3	0.0	0.0	6.7
	60대	0.0	0.0	71.4	28.6	0.0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21.4	0.0	50.0	28.6	0.0	0.0	0.0
	후보당원	10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12.0	0.0	48.9	33.7	3.3	0.0	2.2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있다	14.5	0.0	46.4	34.8	1.4	0.0	2.9
	없다	12.5	0.0	55.0	27.5	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30.0	0.0	40.0	30.0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4.1	0.0	48.4	32.8	1.6	0.0	3.1
	거의 접할 수 없었다	8.8	0.0	52.9	32.4	5.9	0.0	0.0
남한친척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있다	11.6	0.0	44.9	37.7	2.9	0.0	2.9
	없다	17.5	0.0	57.5	22.5	2.5	0.0	0.0
결혼상태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8.3	0.0	45.8	39.6	6.3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13.0	0.0	47.8	34.8	0.0	0.0	4.3
결혼상태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23.5	0.0	52.9	17.6	0.0	0.0	5.9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30.0	0.0	50.0	20.0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10.0	0.0	60.0	30.0	0.0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미국의 통일희망

문6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11.0%(12)	9.2%(10)	31.2%(34)	46.8%(51)	0.9%(1)	0.9%(1)
성별	남자	10.8	0.0	35.1	51.4	0.0	2.7
	여자	11.1	13.9	29.2	44.4	1.4	0.0
연령대	10대	0.0	0.0	50.0	50.0	0.0	0.0
	20대	8.8	8.8	23.5	55.9	0.0	2.9
	30대	16.7	16.7	16.7	50.0	0.0	0.0
	40대	14.3	0.0	42.9	42.9	0.0	0.0
	50대	13.3	13.3	36.7	33.3	3.3	0.0
	60대	0.0	0.0	28.6	71.4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21.4	0.0	14.3	64.3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9.8	9.8	33.7	44.6	1.1	1.1
	무응답	0.0	0.0	50.0	50.0	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11.6	10.1	27.5	49.3	1.4	0.0
	없다	10.0	7.5	37.5	42.5	0.0	2.5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20.0	0.0	40.0	4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9.4	7.8	31.3	48.4	1.6	1.6
	거의 접할 수 없었다	11.8	14.7	29.4	44.1	0.0	0.0
남한친척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10.1	11.6	34.8	40.6	1.4	1.4
	없다	12.5	5.0	25.0	57.5	0.0	0.0
결혼상태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8.3	6.3	31.3	50.0	2.1	2.1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4.3	13.0	34.8	47.8	0.0	0.0
결혼상태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5.9	11.8	35.3	47.1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30.0	0.0	30.0	4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20.0	20.0	20.0	4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중국의 통일희망

문67)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4.6%(5)	11.9%(13)	28.4%(31)	53.2%(58)	1.8%(2)	0.0%(0)
성별	남자	5.4	5.4	29.7	59.5	0.0	0.0
	여자	4.2	15.3	27.8	50.0	2.8	0.0
연령대	10대	0.0	25.0	25.0	50.0	0.0	0.0
	20대	5.9	17.6	32.4	44.1	0.0	0.0
	30대	5.6	11.1	22.2	61.1	0.0	0.0
	40대	7.1	7.1	21.4	64.3	0.0	0.0
	50대	3.3	3.3	33.3	53.3	6.7	0.0
	60대	0.0	14.3	14.3	71.4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7.1	0.0	7.1	85.7	0.0	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4.3	14.1	31.5	47.8	2.2	0.0
	무응답	0.0	0.0	50.0	5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5.8	10.1	24.6	56.5	2.9	0.0
	없다	2.5	15.0	35.0	47.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20.0	0.0	30.0	5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3.1	10.9	32.8	50.0	3.1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9	17.6	20.6	58.8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4.3	14.5	31.9	46.4	2.9	0.0
	없다	5.0	7.5	22.5	6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1	16.7	33.3	45.8	2.1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4.3	13.0	21.7	60.9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5.9	5.9	35.3	52.9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10.0	0.0	20.0	60.0	1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10.0	10.0	20.0	60.0	0.0	0.0
결혼상태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일본의 통일희망

문6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2.8%(3)	4.6%(5)	32.1%(35)	57.8%(63)	2.8%(3)	0.0%(0)
성별	남자	2.7	2.7	27.0	64.9	2.7	0.0
	여자	2.8	5.6	34.7	54.2	2.8	0.0
연령대	10대	0.0	0.0	50.0	50.0	0.0	0.0
	20대	2.9	2.9	23.5	67.6	2.9	0.0
	30대	0.0	16.7	33.3	50.0	0.0	0.0
	40대	0.0	0.0	50.0	50.0	0.0	0.0
	50대	6.7	0.0	36.7	50.0	6.7	0.0
	60대	0.0	14.3	0.0	85.7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7.1	7.1	14.3	71.4	0.0	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2.2	4.3	34.8	55.4	3.3	0.0
	무응답	0.0	0.0	50.0	5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4	7.2	30.4	58.0	2.9	0.0
	없다	5.0	0.0	35.0	57.5	2.5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0.0	0.0	50.0	4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4.7	31.3	60.9	3.1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5.9	5.9	29.4	55.9	2.9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2.9	5.8	36.2	50.7	4.3	0.0
	없다	2.5	2.5	25.0	7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1	2.1	33.3	58.3	4.2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0.0	13.0	26.1	60.9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0.0	5.9	41.2	52.9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0.0	0.0	40.0	50.0	1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10.0	0.0	20.0	70.0	0.0	0.0
결혼상태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러시아의 통일희망

문69)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시는 때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6.4%(7)	19.3%(21)	33.0%(36)	38.5%(42)	2.8%(3)	0.0%(0)
성별	남자	8.1	13.5	29.7	48.6	0.0	0.0
	여자	5.6	22.2	34.7	33.3	4.2	0.0
연령대	10대	0.0	50.0	0.0	50.0	0.0	0.0
	20대	8.8	23.5	29.4	38.2	0.0	0.0
	30대	5.6	27.8	33.3	33.3	0.0	0.0
	40대	0.0	21.4	50.0	28.6	0.0	0.0
	50대	6.7	3.3	40.0	40.0	10.0	0.0
	60대	14.3	14.3	0.0	71.4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7.1	14.3	28.6	50.0	0.0	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6.5	20.7	33.7	35.9	3.3	0.0
	무응답	0.0	0.0	50.0	5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7.2	18.8	30.4	40.6	2.9	0.0
	없다	5.0	20.0	37.5	35.0	2.5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0.0	10.0	60.0	2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4.7	23.4	26.6	40.6	4.7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8.8	14.7	38.2	38.2	0.0	0.0
남한친척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100.0	0.0	0.0
	있다	7.2	18.8	33.3	36.2	4.3	0.0
	없다	5.0	20.0	32.5	42.5	0.0	0.0
결혼상태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4.2	27.1	31.3	35.4	2.1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0.0	17.4	30.4	52.2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5.9	11.8	47.1	29.4	5.9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10.0	10.0	30.0	40.0	1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30.0	10.0	30.0	30.0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주민 친근감

문70) 귀하는 남한에 살면서 남한 주민들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38.5%(42)	48.6%(53)	11.9%(13)	0.9%(1)	0.0%(0)	0.0%(0)
성별	남자	35.1	43.2	18.9	2.7	0.0	0.0
	여자	40.3	51.4	8.3	0.0	0.0	0.0
연령대	10대	25.0	75.0	0.0	0.0	0.0	0.0
	20대	23.5	58.8	17.6	0.0	0.0	0.0
	30대	33.3	55.6	11.1	0.0	0.0	0.0
	40대	71.4	21.4	7.1	0.0	0.0	0.0
	50대	46.7	46.7	6.7	0.0	0.0	0.0
	60대	28.6	42.9	28.6	0.0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당원	당원	42.9	35.7	21.4	0.0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39.1	48.9	10.9	1.1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42.0	46.4	11.6	0.0	0.0	0.0
	없다	32.5	52.5	12.5	2.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50.0	20.0	30.0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32.8	54.7	12.5	0.0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47.1	44.1	5.9	2.9	0.0	0.0
남한친척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39.1	44.9	14.5	1.4	0.0	0.0
	없다	37.5	55.0	7.5	0.0	0.0	0.0
결혼상태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2.9	60.4	14.6	2.1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56.5	30.4	13.0	0.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52.9	35.3	11.8	0.0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70.0	30.0	0.0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10.0	80.0	10.0	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주민 포용성

문71) 귀하는 남한에 살면서 탈북자에 대해 남한사람들이 얼마나 포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포용적이다	약간 포용적이다	별로 포용적이지 못하다	전혀 포용적이지 못하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22.9%(25)	47.7%(52)	28.4%(31)	0.9%(1)	0.0%(0)	0.0%(0)
성별	남자	27.0	48.6	24.3	0.0	0.0	0.0
	여자	20.8	47.2	30.6	1.4	0.0	0.0
연령대	10대	50.0	25.0	25.0	0.0	0.0	0.0
	20대	14.7	52.9	32.4	0.0	0.0	0.0
	30대	22.2	27.8	50.0	0.0	0.0	0.0
	40대	35.7	57.1	7.1	0.0	0.0	0.0
	50대	26.7	46.7	26.7	0.0	0.0	0.0
	60대	14.3	57.1	14.3	14.3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35.7	35.7	28.6	0.0	0.0	0.0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0.0
	비당원	20.7	50.0	28.3	1.1	0.0	0.0
	무응답	50.0	5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23.2	42.0	34.8	0.0	0.0	0.0
	없다	22.5	57.5	17.5	2.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30.0	30.0	40.0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7.2	54.7	28.1	0.0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32.4	38.2	26.5	2.9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24.6	46.4	29.0	0.0	0.0	0.0
	없다	20.0	50.0	27.5	2.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0.8	47.9	31.3	0.0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30.4	43.5	26.1	0.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29.4	41.2	23.5	5.9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20.0	60.0	20.0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60.0	40.0	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국민의식

문72) 귀하는 남한에 살게 된 이후 자신이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남한사람이다	나는 북한사람이다	나는 남한사람도 북한사람도 아니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65.1%(71)	22.9%(25)	11.9%(13)	0.0%(0)	0.0%(0)
성별	남자	64.9	21.6	13.5	0.0	0.0
	여자	65.3	23.6	11.1	0.0	0.0
연령대	10대	75.0	25.0	0.0	0.0	0.0
	20대	61.8	32.4	5.9	0.0	0.0
	30대	66.7	16.7	16.7	0.0	0.0
	40대	71.4	28.6	0.0	0.0	0.0
	50대	66.7	13.3	20.0	0.0	0.0
	60대	57.1	28.6	14.3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당원	당원	42.9	42.9	14.3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비당원	68.5	19.6	12.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71.0	17.4	11.6	0.0	0.0
	없다	55.0	32.5	12.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60.0	20.0	2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64.1	26.6	9.4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67.6	17.6	14.7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71.0	20.3	8.7	0.0	0.0
	없다	55.0	27.5	17.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66.7	27.1	6.3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69.6	21.7	8.7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64.7	17.6	17.6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60.0	20.0	2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60.0	10.0	30.0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생활 만족도

문73) 귀하는 현재 남한에서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보통이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44.0%(48)	35.8%(39)	17.4%(19)	2.8%(3)	0.0%(0)	0.0%(0)	0.0%(0)
성별	남자	51.4	27.0	21.6	0.0	0.0	0.0	0.0
	여자	40.3	40.3	15.3	4.2	0.0	0.0	0.0
연령대	10대	50.0	50.0	0.0	0.0	0.0	0.0	0.0
	20대	29.4	38.2	29.4	2.9	0.0	0.0	0.0
	30대	44.4	44.4	11.1	0.0	0.0	0.0	0.0
	40대	57.1	28.6	14.3	0.0	0.0	0.0	0.0
	50대	53.3	30.0	13.3	3.3	0.0	0.0	0.0
	60대	42.9	42.9	0.0	14.3	0.0	0.0	0.0
당원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당원	64.3	28.6	7.1	0.0	0.0	0.0	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0.0
	비당원	41.3	37.0	19.6	2.2	0.0	0.0	0.0
	무응답	50.0	5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있다	50.7	34.8	13.0	1.4	0.0	0.0	0.0
	없다	32.5	37.5	25.0	5.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40.0	40.0	20.0	0.0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43.8	34.4	20.3	1.6	0.0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47.1	35.3	11.8	5.9	0.0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있다	47.8	39.1	11.6	1.4	0.0	0.0	0.0
	없다	37.5	30.0	27.5	5.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35.4	35.4	25.0	4.2	0.0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73.9	17.4	8.7	0.0	0.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35.3	47.1	11.8	5.9	0.0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40.0	50.0	10.0	0.0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30.0	50.0	20.0	0.0	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문화적 차이

문74) 귀하는 현재 남한에 거주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25.7%(28)	48.6%(53)	17.4%(19)	7.3%(8)	0.9%(1)	0.0%(0)
성별	남자	18.9	43.2	24.3	13.5	0.0	0.0
	여자	29.2	51.4	13.9	4.2	1.4	0.0
연령대	10대	0.0	75.0	25.0	0.0	0.0	0.0
	20대	14.7	55.9	17.6	11.8	0.0	0.0
	30대	22.2	55.6	11.1	11.1	0.0	0.0
	40대	28.6	50.0	21.4	0.0	0.0	0.0
	50대	36.7	36.7	16.7	6.7	3.3	0.0
	60대	57.1	42.9	0.0	0.0	0.0	0.0
당원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당원	28.6	35.7	21.4	14.3	0.0	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26.1	50.0	17.4	5.4	1.1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29.0	44.9	15.9	8.7	1.4	0.0
	없다	20.0	55.0	20.0	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20.0	50.0	20.0	1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21.9	51.6	18.8	6.3	1.6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35.3	41.2	14.7	8.8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23.2	49.3	18.8	7.2	1.4	0.0
	없다	30.0	47.5	15.0	7.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18.8	52.1	18.8	8.3	2.1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21.7	47.8	17.4	13.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47.1	47.1	5.9	0.0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10.0	60.0	20.0	1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40.0	30.0	30.0	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건강의 문제

문75) 귀하는 현재 남한에 거주하면서 다음의 상황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11.9%(13)	20.2%(22)	38.5%(42)	28.4%(31)	0.9%(1)	0.0%(0)
성별	남자	13.5	13.5	40.5	32.4	0.0	0.0
	여자	11.1	23.6	37.5	26.4	1.4	0.0
연령대	10대	0.0	0.0	100.0	0.0	0.0	0.0
	20대	2.9	20.6	47.1	29.4	0.0	0.0
	30대	5.6	27.8	44.4	22.2	0.0	0.0
	40대	14.3	14.3	21.4	50.0	0.0	0.0
	50대	26.7	20.0	23.3	26.7	3.3	0.0
	60대	14.3	28.6	28.6	28.6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14.3	14.3	21.4	50.0	0.0	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12.0	19.6	42.4	25.0	1.1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4.5	21.7	29.0	33.3	1.4	0.0
	없다	7.5	17.5	55.0	2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40.0	30.0	3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9.4	20.3	39.1	29.7	1.6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0.6	11.8	41.2	26.5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10.1	18.8	42.0	27.5	1.4	0.0
	없다	15.0	22.5	32.5	3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1	18.8	52.1	25.0	2.1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21.7	8.7	34.8	34.8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17.6	35.3	23.5	23.5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10.0	40.0	10.0	4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30.0	10.0	30.0	30.0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경제적 문제

문76) 귀하는 현재 남한에 거주하면서 다음의 상황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23.9%(26)	39.4%(43)	25.7%(28)	9.2%(10)	1.8%(2)	0.0%(0)
성별	남자	21.6	40.5	24.3	13.5	0.0	0.0
	여자	25.0	38.9	26.4	6.9	2.8	0.0
연령대	10대	0.0	50.0	50.0	0.0	0.0	0.0
	20대	23.5	32.4	35.3	8.8	0.0	0.0
	30대	27.8	50.0	11.1	11.1	0.0	0.0
	40대	21.4	28.6	35.7	14.3	0.0	0.0
	50대	23.3	46.7	13.3	10.0	6.7	0.0
	60대	42.9	28.6	28.6	0.0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14.3	50.0	28.6	7.1	0.0	0.0
	후보당원	100.0	0.0	0.0	0.0	0.0	0.0
	비당원	25.0	37.0	26.1	9.8	2.2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8.8	40.6	26.1	11.6	2.9	0.0
	없다	32.5	37.5	25.0	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10.0	60.0	3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21.9	45.3	25.0	4.7	3.1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35.3	35.3	17.6	11.8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21.7	39.1	26.1	10.1	2.9	0.0
	없다	27.5	40.0	25.0	7.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5.0	35.4	31.3	6.3	2.1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21.7	39.1	30.4	8.7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29.4	41.2	11.8	17.6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20.0	40.0	20.0	10.0	1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10.0	60.0	20.0	1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인간관계

문77) 귀하는 현재 남한에 거주하면서 다음의 상황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10.1%(11)	32.1%(35)	35.8%(39)	20.2%(22)	1.8%(2)	0.0%(0)
성별	남자	10.8	35.1	32.4	21.6	0.0	0.0
	여자	9.7	30.6	37.5	19.4	2.8	0.0
연령대	10대	0.0	0.0	100.0	0.0	0.0	0.0
	20대	8.8	23.5	44.1	23.5	0.0	0.0
	30대	11.1	33.3	38.9	16.7	0.0	0.0
	40대	7.1	35.7	28.6	28.6	0.0	0.0
	50대	13.3	46.7	16.7	16.7	6.7	0.0
	60대	14.3	14.3	57.1	14.3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7.1	28.6	28.6	35.7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10.9	30.4	38.0	18.5	2.2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0.1	30.4	34.8	21.7	2.9	0.0
	없다	10.0	35.0	37.5	17.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20.0	50.0	3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9.4	29.7	37.5	20.3	3.1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14.7	38.2	29.4	17.6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10.1	29.0	37.7	20.3	2.9	0.0
	없다	10.0	37.5	32.5	2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6.3	25.0	45.8	20.8	2.1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13.0	30.4	30.4	26.1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11.8	52.9	23.5	11.8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20.0	30.0	30.0	10.0	1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10.0	40.0	30.0	20.0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사회적 편견

문78) 귀하는 현재 남한에 거주하면서 다음의 상황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14.7%(16)	34.9%(38)	36.7%(40)	11.9%(13)	1.8%(2)	0.0%(0)
성별	남자	16.2	35.1	35.1	13.5	0.0	0.0
	여자	13.9	34.7	37.5	11.1	2.8	0.0
연령대	10대	25.0	25.0	50.0	0.0	0.0	0.0
	20대	14.7	26.5	47.1	11.8	0.0	0.0
	30대	11.1	44.4	27.8	16.7	0.0	0.0
	40대	7.1	35.7	42.9	14.3	0.0	0.0
	50대	20.0	36.7	23.3	13.3	6.7	0.0
	60대	14.3	42.9	42.9	0.0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14.3	42.9	28.6	14.3	0.0	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15.2	32.6	39.1	10.9	2.2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7.4	31.9	31.9	15.9	2.9	0.0
	없다	10.0	40.0	45.0	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0.0	40.0	30.0	2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0.9	37.5	39.1	9.4	3.1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3.5	26.5	35.3	14.7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14.5	30.4	39.1	13.0	2.9	0.0
	없다	15.0	42.5	32.5	1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14.6	27.1	45.8	10.4	2.1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17.4	21.7	43.5	17.4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17.6	47.1	23.5	11.8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10.0	50.0	20.0	10.0	1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10.0	60.0	20.0	10.0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심리적 외로움

문79) 귀하는 현재 남한에 거주하면서 다음의 상황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24.8%(27)	33.9%(37)	22.0%(24)	18.3%(20)	0.9%(1)	0.0%(0)
성별	남자	21.6	29.7	21.6	27.0	0.0	0.0
	여자	26.4	36.1	22.2	13.9	1.4	0.0
연령대	10대	0.0	25.0	50.0	25.0	0.0	0.0
	20대	23.5	38.2	23.5	14.7	0.0	0.0
	30대	33.3	33.3	16.7	16.7	0.0	0.0
	40대	14.3	21.4	50.0	14.3	0.0	0.0
	50대	33.3	36.7	3.3	23.3	3.3	0.0
	60대	14.3	42.9	28.6	14.3	0.0	0.0
당원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당원	21.4	28.6	21.4	28.6	0.0	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26.1	33.7	22.8	16.3	1.1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26.1	33.3	18.8	20.3	1.4	0.0
	없다	22.5	35.0	27.5	15.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0.0	60.0	10.0	2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23.4	34.4	26.6	14.1	1.6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32.4	23.5	17.6	26.5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17.4	39.1	20.3	21.7	1.4	0.0
	없다	37.5	25.0	25.0	12.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5.0	29.2	29.2	14.6	2.1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26.1	21.7	17.4	34.8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23.5	47.1	17.6	11.8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20.0	60.0	10.0	1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30.0	40.0	20.0	10.0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탈북자 지원정책 만족도

문80) 귀하는 현재 남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보통이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53.2%(58)	29.4%(32)	11.9%(13)	3.7%(4)	1.8%(2)	0.0%(0)	0.0%(0)
성별	남자	43.2	29.7	18.9	2.7	5.4	0.0	0.0
	여자	58.3	29.2	8.3	4.2	0.0	0.0	0.0
연령대	10대	25.0	75.0	0.0	0.0	0.0	0.0	0.0
	20대	47.1	29.4	14.7	2.9	5.9	0.0	0.0
	30대	50.0	27.8	22.2	0.0	0.0	0.0	0.0
	40대	64.3	35.7	0.0	0.0	0.0	0.0	0.0
	50대	56.7	26.7	13.3	3.3	0.0	0.0	0.0
	60대	71.4	14.3	0.0	14.3	0.0	0.0	0.0
당원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0.0
	당원	35.7	50.0	14.3	0.0	0.0	0.0	0.0
	후보당원	10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54.3	27.2	12.0	4.3	2.2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있다	56.5	27.5	11.6	1.4	2.9	0.0	0.0
	없다	47.5	32.5	12.5	7.5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50.0	20.0	30.0	0.0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50.0	31.3	12.5	3.1	3.1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58.8	29.4	5.9	5.9	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있다	55.1	30.4	10.1	2.9	1.4	0.0	0.0
	없다	50.0	27.5	15.0	5.0	2.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45.8	31.3	12.5	6.3	4.2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65.2	30.4	4.3	0.0	0.0	0.0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47.1	29.4	17.6	5.9	0.0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60.0	20.0	20.0	0.0	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60.0	30.0	10.0	0.0	0.0	0.0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정부지원 제외 가장 도움 된 것

문81) 귀하가 남한생활에 적응하시는 데 있어 정부의 지원을 제외하고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NGO 등 민간단체의 지원	교회 등 종교단체의 지원	기준에 정착해 있던 탈북자들 의 도움	TV,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한 정보획득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24.8%(27)	33.0%(36)	11.9%(13)	26.6%(29)	2.8%(3)	0.9%(1)
성별	남자	32.4	29.7	10.8	27.0	0.0	0.0
	여자	20.8	34.7	12.5	26.4	4.2	1.4
연령대	10대	0.0	25.0	25.0	50.0	0.0	0.0
	20대	26.5	38.2	5.9	29.4	0.0	0.0
	30대	22.2	38.9	0.0	33.3	5.6	0.0
	40대	7.1	14.3	35.7	28.6	14.3	0.0
	50대	40.0	36.7	6.7	13.3	0.0	3.3
	60대	0.0	28.6	28.6	42.9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14.3	42.9	7.1	35.7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26.1	31.5	13.0	25.0	3.3	1.1
	무응답	50.0	0.0	0.0	5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29.0	29.0	11.6	26.1	4.3	0.0
	없다	17.5	40.0	12.5	27.5	0.0	2.5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20.0	60.0	0.0	10.0	1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28.1	25.0	14.1	29.7	1.6	1.6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0.6	41.2	11.8	23.5	2.9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24.6	30.4	14.5	27.5	1.4	1.4
	없다	25.0	37.5	7.5	25.0	5.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27.1	35.4	12.5	25.0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26.1	30.4	8.7	30.4	4.3	0.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11.8	35.3	5.9	35.3	5.9	5.9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40.0	10.0	20.0	20.0	1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20.0	40.0	20.0	20.0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에 온것 후회정도

문82) 귀하는 탈북 후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중복응답, 응 답오류
		0.9%(1)	15.6%(17)	25.7%(28)	56.9%(62)	0.0%(0)	0.9%(1)
성별	남자	2.7	18.9	18.9	59.5	0.0	0.0
	여자	0.0	13.9	29.2	55.6	0.0	1.4
연령대	10대	0.0	0.0	0.0	100.0	0.0	0.0
	20대	0.0	14.7	44.1	41.2	0.0	0.0
	30대	0.0	22.2	33.3	38.9	0.0	5.6
	40대	0.0	7.1	7.1	85.7	0.0	0.0
	50대	0.0	16.7	20.0	63.3	0.0	0.0
	60대	14.3	14.3	0.0	71.4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0.0	21.4	0.0	78.6	0.0	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1.1	15.2	30.4	52.2	0.0	1.1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4	11.6	26.1	59.4	0.0	1.4
	없다	0.0	22.5	25.0	52.5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40.0	0.0	6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6	14.1	34.4	50.0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11.8	17.6	67.6	0.0	2.9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1.4	10.1	24.6	63.8	0.0	0.0
	없다	0.0	25.0	27.5	45.0	0.0	2.5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0.0	14.6	35.4	50.0	0.0	0.0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0.0	8.7	8.7	78.3	0.0	4.3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5.9	23.5	17.6	52.9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0.0	20.0	20.0	60.0	0.0	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0.0	20.0	40.0	40.0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탈북결심이유

문83) 귀하께서 탈북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 정치적 탄압	경제적 어려움	먼저 탈북한 가족의 권유	자유체제에 대한 동경	자식에게 더 나은 기회부여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21.1%(23)	15.6%(17)	26.6%(29)	16.5%(18)	14.7%(16)	0.0%(0)	5.5%(6)
성별	남자	27.0	10.8	32.4	16.2	10.8	0.0	2.7
	여자	18.1	18.1	23.6	16.7	16.7	0.0	6.9
연령대	10대	50.0	25.0	25.0	0.0	0.0	0.0	0.0
	20대	8.8	11.8	26.5	35.3	14.7	0.0	2.9
	30대	16.7	33.3	27.8	5.6	5.6	0.0	11.1
	40대	21.4	14.3	7.1	7.1	42.9	0.0	7.1
	50대	33.3	13.3	23.3	10.0	13.3	0.0	6.7
	60대	28.6	0.0	57.1	14.3	0.0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28.6	14.3	35.7	0.0	14.3	0.0	7.1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19.6	15.2	26.1	19.6	14.1	0.0	5.4
	무응답	50.0	5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26.1	15.9	26.1	11.6	13.0	0.0	7.2
	없다	12.5	15.0	27.5	25.0	17.5	0.0	2.5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30.0	10.0	0.0	30.0	20.0	0.0	1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21.9	17.2	29.7	14.1	14.1	0.0	3.1
	거의 접할 수 없었다	14.7	14.7	29.4	17.6	14.7	0.0	8.8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17.4	11.6	39.1	15.9	11.6	0.0	4.3
	없다	27.5	22.5	5.0	17.5	20.0	0.0	7.5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10.4	18.8	33.3	22.9	12.5	0.0	2.1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21.7	21.7	26.1	8.7	8.7	0.0	13.0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23.5	5.9	23.5	17.6	29.4	0.0	0.0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60.0	0.0	10.0	10.0	10.0	0.0	10.0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30.0	20.0	20.0	10.0	10.0	0.0	10.0
	무응답	0.0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연구 참여자용 설명문

연구과제명 : 2020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

연구책임자명 : 임경훈 교수(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진행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의식조사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이며, 본 연구가 왜 수행되고 어떤 내용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의사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이 있을 경우 담당 연구원이 자세히 설명해 줄 것입니다.

Q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 조사의 목적은 탈북이전 귀하께서 북한에 거주할 당시의 통일, 남북관계, 대북정책, 남한사회 정착 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Q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 2019년에 북한에서 살다가 나오신 만18세 이상인 분들 중 100여명이 참여할 것입니다.

Q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 귀하는 본 설문지를 읽고 북한에 거주할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여 질문에 응답하시면 됩니다.

Q4. 설문에 답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 약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Q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 예, 귀하께서는 설문조사를 하는 도중에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귀하께서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면 언제든지 설문조사를 멈출 수 있으며, 그때까지 작성하신 설문지는 즉시 폐기 처리되며 귀하가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Q6.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 아니오, 귀하는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더라도 귀하가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에 통보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Q7.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 이 연구에 참여해주신 것에 대한 사례로 5만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로 받게 될 것입니다.

Q8.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 연구 담당자: 김학재 HK교수 · 전화번호: 02-880-2208
-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 전화번호: 02-880-5153

Q9. 연구에 대해 얻은 모든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임경훈 교수(02-880-1325)입니다. 설문지 원자료는 연구 책임자가 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통일부 특수자료 관리 규정에 준하여 이중 철재 보관함에 넣어 연구책임자의 연구실(통일평화연구원 209E호)에 1년 간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즉시 폐기합니다. 이 외에 사례비 지급을 위해 설문참여자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수집되며 이 정보는 사례비 지급과 동시에 폐기됩니다. 2. 설문 내용을 형식에 맞게 입력하여 정리한 자료는 영구적으로 보관할 예정입니다.

2020 북한이탈주민의식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동의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0년 7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임경훈

동 의 서 (연구참여자 보관용)

연구과제명 : 2020 북한이탈주민의식조사
 연구책임자명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임경훈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 받는 연구원의 서명이 포함된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 짜 (년/월/일)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서 명	날 짜 (년/월/일)

동 의 서 (연구자 보관용)

연구과제명 : 2020 북한이탈주민의식조사
 연구책임자명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임경훈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 받는 연구원의 서명이 포함된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 짜 (년/월/일)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서 명	날 짜 (년/월/일)

통일 인식

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약간 필요하다.
- ③ 반반/그저 그렇다.
-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귀하는 북한주민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기를 얼마나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원한다.
- ② 약간 원한다.
- ③ 별로 원하지 않는다.
- ④ 전혀 원하지 않는다.

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같은 민족이니까
- ②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 ③ 남북 간에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
- ④ 북한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 ⑤ 북한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 ⑥ 기타(적을 것:)

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5년 이내
- ② 10년 이내
- ③ 20년 이내
- ④ 30년 이내
- ⑤ 30년 이상
- ⑥ 불가능하다.

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북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 ②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 ③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 ④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5-1. 그럼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자신에게는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 ②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 ③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 ④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6.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북한의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번호에 동그라미 또는 √로 표시)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㉗ 빈부격차	1	2	3	4	5
㉘ 실업문제	1	2	3	4	5
㉙ 지역갈등	1	2	3	4	5
㉚ 이념갈등	1	2	3	4	5

7.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번호에 동그라미 또는 √로 표시)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㉗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1	2	3	4
㉘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사회문화 교류	1	2	3	4
㉙ 금강산개성관광·개성공단사업 등 경제협력	1	2	3	4
㉚ 정기적인 남북 간 회담	1	2	3	4

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
- ②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절충하여 통일한다.
- ③ 통일 이후에도 북한과 남한의 두 체제가 각각 유지된다.
- ④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
- ⑤ 통일이 이뤄지지만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9. 귀하는 통일이 되면 어느 지역에서 거주할 생각이십니까?

- ① 북한에서 살 것이다.
- ② 남한에서 살 것이다.
- ③ 남쪽이든 북쪽이든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것이다.
- ④ 외국에 나가 살 것이다.

10.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가장 많이 들었던 통일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 ① 제국주의 교양
- ② 남한에 대한 이해
- ③ 남조선 해방
- ④ 사회주의 및 주체사상의 가치
- ⑤ 남북한 민족의식 함양
- ⑥ 통일의 이익

11.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을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 해당번호에 동그라미 또는 √로 표시)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㉓ 화가 난다	1	2	3	4	5
㉔ 불안하다	1	2	3	4	5
㉕ 슬프다	1	2	3	4	5
㉖ 시큰둥하다	1	2	3	4	5
㉗ 희망적이다	1	2	3	4	5
㉘ 기쁘다	1	2	3	4	5

대남 인식

1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 ① 남한은 북한이 도와주어야 할 지원대상이다.
- ② 남한은 북한이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 ③ 남한은 북한과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 ④ 남한은 북한이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 ⑤ 남한은 북한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대상이다.

1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 해당번호에 동그라미 또는 √로 표시)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㉙ 4.19 혁명	1	2	3	4
㉚ 5.18 광주항쟁	1	2	3	4
㉛ 88서울올림픽	1	2	3	4
㉜ 2002 월드컵	1	2	3	4
㉝ 세월호 사건	1	2	3	4
㉞ 개성공업지구 운영	1	2	3	4
㉟ 촛불집회	1	2	3	4
㊱ 1997 IMF 외환위기	1	2	3	4
㊲ K-POP (케이팝)	1	2	3	4

1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자주 접해봤다.
- ② 한두 번 접해봤다.
- ③ 전혀 접해보지 못했다.

14-1. (13번에서 ①과 ②번을 선택한 사람의 경우에만) 귀하는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어떤 경로를 통하여 접하십니까?

- ① 시장에서 직접 구하여 접했다.
- ② 주변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에게서 구하여 접했다.
- ③ 주변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과 함께 접했다.
- ④ 외국에 나갔을 때 접했다.

14-2. 귀하는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 ① 매우 친숙했다.
- ② 약간 친숙했다.
- ③ 별로 친숙하지 않았다.
- ④ 전혀 친숙하지 않았다.

14-3. 귀하는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한 후 남한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 ① 호감도가 매우 증가하였다.
- ② 호감도가 약간 증가하였다.
- ③ 호감도에 변화가 없었다.
- ④ 호감도가 약간 감소하였다.
- ⑤ 호감도가 매우 감소하였다.

15.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당번호에 동그라미 또는 √로 표시)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㉟ 선거방식	1	2	3	4
㊱ 사회복지	1	2	3	4
㊲ 언어사용	1	2	3	4
㊳ 생활풍습 (관혼상제 등)	1	2	3	4
㊴ 가족에 대한 중시	1	2	3	4
㊵ 돈에 대한 중시	1	2	3	4

1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을 무력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이 있다.
- ② 약간 있다.
- ③ 별로 없다.
- ④ 전혀 없다.

17.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얼마나 위협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위협적이다.
- ② 다소 위협적이다.
- ③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
- ④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

18.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이 쌀,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한 적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② 조금 알고 있다.
- ③ 별로 잘 알지 못하고 있다.
- ④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19.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② 조금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③ 조금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④ 대폭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⑤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20.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도				
	매우 긍정	약간 긍정	공정도	약간 부정	매우 부정
㉔ 남한의 대북지원	1	2	3	4	5
㉕ 남한의 대북 경제투자	1	2	3	4	5
㉖ 개성공업지구	1	2	3	4	5

북한실태 변화

21.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주체사상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 ② 약간의 자부심을 갖고 있다.
- ③ 별로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다.
- ④ 전혀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다.

2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10% 미만
- ② 20%
- ③ 30%
- ④ 40%
- ⑤ 50%
- ⑥ 60%
- ⑦ 70%
- ⑧ 80%
- ⑨ 90% 이상

2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 수반으로서 직무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셨습니까?

- ①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 ②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 ③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 ④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2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공안기관에 의한 사회통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유지되고 있다.
- ② 대체로 잘 유지되었다.
- ③ 별로 잘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 ④ 전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2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에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 행위(낙서, 삐라 등)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많다.
- ② 약간 있다.
- ③ 대체로 없다.
- ④ 전혀 없다.

2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 사회주의 정권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5년 미만
- ② 5~10년
- ③ 10~15년
- ④ 15~20년
- ⑤ 20~30년
- ⑥ 30년 이상
- ⑦ 생각해 본 적이 없다.

27.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견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찬성했다.
- ② 다소 찬성했다.
- ③ 반반/그저 그랬다.
- ④ 다소 반대했다.
- ⑤ 매우 반대했다.

2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의 경제가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연재해로 식량생산이 안되어
- ② 과도한 군사비 지출 때문에
- ③ 국가의 정책이 잘못되어
- ④ 간부들의 관료주의 때문에
- ⑤ 지도자(김정일, 김정은) 때문에
- ⑥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서
- ⑦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에
- ⑧ 통일이 되지 않아서
- ⑨ 기타 ()

29.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직장에서 생산규율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까?

- ① 거의 대부분 지켜지고 있다.
- ② 대체로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 ③ 대체로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④ 거의 대부분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30.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주민들의 주간 생활총화 출석률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① 30%미만 ② 30~50%
- ③ 50~70% ④ 70~90%
- ⑤ 90% 이상

3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사회주의 경제(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시장경제, 개인소유경제) 중 어느 것을 더 지지했습니까?

- ① 사회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했다.
- ② 사회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했다.
- ③ 두 가지 모두를 비슷하게 지지했다.
- ④ 자본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했다.
- ⑤ 자본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했다.

3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얼마나 자주 다른 지역(다른 군, 시, 도, 외국)에 가보셨습니까?

- ① 자주 가보았다.
- ② 가끔 가보았다.
- ③ 거의 가보지 못했다.

3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일상생활에서 집단과 내(또는 가족) 중에서 무엇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집단이 훨씬 더 우선이다.
- ② 집단이 조금 더 우선이다.
- ③ 내(또는 가족)가 훨씬 더 우선이다.
- ④ 내(또는 가족)가 조금 더 우선이다.

3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로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의 보도가 얼마나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부분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 ② 일부만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 ③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 ④ 생각해 본 적 없다.

3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외부 소식을 주로 어디서 들었습니까?

- ① 로동신문
- ② 방송
- ③ 주변사람 (친척, 이웃, 친구 등)
- ④ 강연, 학습
- ⑤ 남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매체 (방송·통신, 배라 등)

3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가족이 만족할 만한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월 생활비(월 소득)가 얼마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돈 _____ 원)

37. 북한에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돈벌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귀하는 과거 10년에 비해 북한 여성의 지위가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크게 상승했다.
- ② 약간 상승했다.
- ③ 그대로다/변화가 없다.
- ④ 약간 하락했다.
- ⑤ 크게 하락했다.

38. 귀하는 북한에서 한미연합훈련 (남조선미국합동군사훈련) 소식을 들었을 때 죽음에 대한 불안을 느끼셨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다소 그렇다.
- ③ 별로 그렇지 않다.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나와 상관없다고 느꼈다.

주변국에 대한 인식

39.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셨습니까?

- ① 미국 ② 일본
- ③ 남한 ④ 중국
- ⑤ 러시아

40.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가 북한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미국 ② 일본
- ③ 남한 ④ 중국
- ⑤ 러시아

4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북한이 통일하는데 한반도 주변국들 중 어느 나라의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중국 ② 미국
- ③ 러시아 ④ 일본
- ⑤ 어느 나라의 도움도 필요 없다.

4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와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 ① 미국 ② 일본
- ③ 남한 ④ 중국
- ⑤ 러시아

4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당번호에 동그라미 또는 √로 표시)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㉔ 미국	1	2	3	4
㉕ 중국	1	2	3	4
㉖ 일본	1	2	3	4
㉗ 러시아	1	2	3	4

45. 귀하는 남한에 살면서 탈북자에 대해 남한사람들이 얼마나 포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포용적이다.
- ② 약간 포용적이다.
- ③ 별로 포용적이지 못하다.
- ④ 전혀 포용적이지 못하다.

46. 귀하는 남한에서 살게 된 이후 자신이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나는 남한사람이다.
- ② 나는 북한사람이다.
- ③ 나는 남한사람도 북한사람도 아니다.

47. 귀하는 현재 남한에서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대체로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4. 귀하는 남한에 살면서 남한 주민들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 ①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 ②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 ③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 ④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남한사회 적응실태

48. 귀하는 남한에 거주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매우 어려움 느꼈다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㉔ 언어, 관습 등의 문화적 차이	1	2	3	4
㉕ 질병 등 건강의 문제	1	2	3	4
㉖ 취업 등 경제적 문제	1	2	3	4
㉗ 가족 및 주변사람들과의 인간관계	1	2	3	4
㉘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1	2	3	4
㉙ 타향살이에서 오는 심리적 외로움	1	2	3	4

49. 귀하는 현재 남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대체로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50. 귀하가 남한 생활에 적응하시는 데 있어 정부의 지원을 제외하고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NGO 등 민간단체의 지원
- ② 교회 등 종교단체의 지원
- ③ 기존에 정착해 있던 탈북자들의 도움
- ④ TV,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획득

51. 귀하는 탈북 후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약간 그렇다.
- ③ 별로 그렇지 않다.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52. 귀하께서 탈북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정치적 탄압
- ② 경제적 어려움
- ③ 먼저 탈북한 가족의 권유
- ④ 자유체제에 대한 동경
- ⑤ 자식에게 더 나은 기회부여

인구통계학적 정보

Q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자
- ② 여자

Q2. 귀하는 몇 년도에 태어나셨습니까?

() 년

Q3. 귀하는 언제 북한을 마지막으로 떠나셨습니까?

(년 월)

Q4. 귀하는 언제 한국에 들어오셨습니까?

(년 월)

Q5. 귀하가 북한을 나오기 직전까지 살았던 거주지는 어디였습니까?

- ① 평양 ② 남포
- ③ 개성 ④ 평안남도
- ⑤ 평안북도 ⑥ 함경남도
- ⑦ 함경북도 ⑧ 자강도
- ⑨ 양강도 ⑩ 황해남도
- ⑪ 황해북도 ⑫ 강원도

Q6.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① 대학교 ② 전문학교
- ③ 고등중학교 ④ 인민학교
- ⑤ 무학

Q7. 북한에서 직업은 무엇이셨습니까?

- ① 노동자 ② 농민
- ③ 사무원
- ④ 전문가(교원, 의사, 기술자 등)
- ⑤ 학생 ⑥ 군인
- ⑦ 외화벌이일군 ⑧ 장사
- ⑨ 가정부인 ⑩ 무직 및 기타

Q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당원이었습니까?

- ① 당원 ② 후보당원 ③ 비당원

Q9.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공식적인 월급(생활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북한돈 원)

Q10.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비공식적으로 벌어들이는 월수입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북한돈 원)

Q1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장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Q12. 귀하는 북한을 떠난 후에도 북한 지역의 소식을 어느 정도 접할 수 있었습니까?

- ①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 ②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 ③ 거의 접할 수 없었다.

Q13. 귀하는 북한을 나오기 이전에 남쪽에 혈육이나 친척이 있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Q14.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결혼한 적 없다.
- ②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 ③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 ④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 ⑤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Q15. 귀하의 현재 자녀는 몇 명입니까?

_____명

Q16. 귀하의 현재 취업 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정규직 근로자 (고용 계약기간 1년 이상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 없이 정규직원으로 계속 일하는 경우)
- ② 계약직 근로자 (고용 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 ③ 일용직 근로자 (고용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일정한 사업장 없이 이동하며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
- ④ 고용자 (유급 종업원을 고용하여 경영하는 사업자)
- ⑤ 자영업자 (자기 혼자나 무급 가족의 힘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 ⑥ 실업자 (일자리는 없지만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중인 사람)
- ⑦ 비경제활동인구 (일자리도 없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 예. 학생, 주부, 근로 무능력)

Q17. 남한에서 귀하는 월 평균 얼마를 버십니까?

_____만원

Q18. 귀하의 월 평균 근로일수와 하루의 평균 근로시간을 적어주십시오.

- ① 월 평균 근로 일수 _____ 일
- ② 하루 평균 근로 시간 _____ 시간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 연구 51

북한주민 통일의식 2020

인 쇄 2021. 02. 28

발 행 2021. 02. 28

발행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발행인 임경훈

저 자 김학재 · 김병로 · 문인철 · 엄현숙 · 조동준 · 천경효 · 임경훈 · 최현정

주 소 15011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로 173 교육동 9층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전 화 031)5176-2332

팩 스 031)624-4751

홈페이지 ipus.snu.ac.kr

디자인 (주)다해미디어 (02-395-7123)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

북한주민 통일의식 2020

저자: 김학재, 김병로, 문인철, 엄현숙, 조동준, 천경효, 임경훈, 최현정

— 서울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0

p. ; cm.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 연구 ; 51)

ISBN 979-11-966513-7-4 93340 : 비매품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0

이 보고서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